

## 어머니가 주는 선물 ‘讀書’

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참으로 새삼스러운 일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지금까지 세계 전체는 책의 지배를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참으로 관심과 열정이 많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좋은 교육의 지름길로 ‘독서’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가 책 읽기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의 책 읽는 모습은 아이들이 올바른 독서 습관을 갖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면 자녀의 생각과 재능을 미리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책 읽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어릴 때부터 좋은 독서습관을 길러 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유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책사랑 주부수필공모전이 어머니들의 독서운동을 진작시킴으로써 자

녀들이 좋은 독서 습관을 갖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을 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글을 잘 쓰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무리 오랫동안 글을 써도 항상 부족함을 떨쳐버릴 수 없고, 글쓰기는 언제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글을 잘 못 쓴다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 할 일은 아닙니다. 공모전의 취지처럼 누구나 꾸준한 독서활동과 노력으로 부족한 점을 점차 채워 간다면 주부, 어머님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Story)가 좋은 글(Telling)이 될 것입니다.

영남일보와 달서구청이 함께 마련한 ‘책사랑 전국주부수필공모전’은 주부들에게 독서운동에 참여 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에서 책 읽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라는 취지로 열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어지는 이번 공모전에도 다양한 계층의 주부들이 소중한 글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회를 거듭하면서 공모전에 대한 열기와 응모작품들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책사랑 전국주부수필공모전에 전국 주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영남일보 사장 손인락

## 책으로 사랑을, 독서로 어질고 선한 세상을 꿈꾸며...

제6회 「달서 책사랑 전국 주부수필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주부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독서문화 확산과 생활화를 몸소 실천하여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사회 독서문화 확산에 더욱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날 주부의 의미는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주부는 가정에서의 역할, 자녀교육의 역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책 읽는 어머니의 모습은 자녀들의 본보기가 됩니다.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으며, 생각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달서구는 영남일보사와 함께 우리 사회의 중심인 주부 여러분의 역할을 좀 더 사회에 표현하고, 독서문화 확산을 기하기 위하여 2009년 제1회 달서 책사랑 전국주부수필 공모전을 시작으로 올해 벌써 6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해가 갈수록 그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주

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각 부문별 시상금과 시상 인원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독서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220여분의 주부 여러분께서 응모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사회가 좀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도 밝은 미래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어질고 선한 세상- 달서’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독서활동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책 함께 읽자 낭독회, 독서마라톤, 독서릴레이, 북(Book)소리 축제, 사립도서관, 독서토론타회’등 독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많은 참여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는 주부님들이 독서를 통해 더 행복한 삶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달서 책사랑 전국 주부수필 공모전에서 더 좋은 작품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공모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영남일보사와 심사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 책과 함께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 대상

이은정	동상이몽: 빛과 빛	10
-----	------------	----

### 금상

이은미	개미와의 동거	15
조미정	받침두리	19

### 은상

김미옥	마음 조각 퍼즐을 잇는 독서회	24
최현정	도서관 가는 길	29

### 동상

견선희	세상의 각막	33
손서희	아이돌보미	41
신현량	그날에 보리향기	46

### 가작

김용선	내가 도서관에 가는 이유	51
김은형	예기치 않은 바람-구원	55
김지선	내 인생의 지침서	60
김현숙	앞은뱅이 서재	64

박영화	우리가족 낭독 모임	68
박지수	허기진 내 영혼	74
박혜자	빛을 갠다	79
변선희	책을 통해 만나는 마음	85
부자윤	나도 이제는 한국 아줌마예요	89
신 현	인문학으로 밥하기	91
신현주	도서관 할머니	98
안재의	두 사람의 책장	101
오경희	아주 자그마한 꽃향기	106
우순옥	책, 너는 내 꿈	110
우순자	‘천향고’, 그 인연을 찾아	114
이경희	삶을 그리다	118
이예리	바다는 4월이 아프다	122
이인경	깨소금 신희일기 말고 독서일기	126
이정미	도서관이 있는 풍경화	130
이정화	목소리로 읽다	135
이정화	보 람 줄	140
전주라	가문 마음의 빛소리	145
정미정	내 가슴속에 꽃이 핀다	150
주선미	多讀多讀 내 인생	153
최이화	아이와 나를 일으킨 독서의 힘	158
허선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163
Piaoxiangyu	나비효과	168

심사평	책 속에는 내가 보지 못하는 ‘나’가	172
관련기사		175



주부들의 아름다운 노래

# 책사랑이야기

제6회 달서 책사랑 전국주부수필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 동상이몽: 빛과 빛

이은정 대구 달서구 이곡1동

삶이 바닥을 쳤다. 남편과의 술자리에서 안주가 사망보험금이었다. 누가 남았을 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교육적으로 두 딸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인가의 주제는 슬프지만, 너무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무덤덤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점점 써어가는 속은 얼굴과 행동에 여과 없이 드러났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었으나 그 행복은 희망 고문이 되었고, 우리 부부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좌절은 마치 예정된 수순 같았다.

살고 싶었다. 정말 제대로 살고 싶었다. 살길이 없었다. 도저히 현실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현실 도피로 선택했던 것이 책이었다. 그해 초, 동네 언니로부터 '달서 독서 마라톤 대회'를 완주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색 메달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했던 것이 때마침 계기가 되었다. 이 생소한 이름의 대회는 읽은 쪽수가 미터로 계산되는 형식이다. 삼천 쪽은 삼천 미터, 오천 쪽은 오천 미터. 그중 가장 긴 것이 무한도전으로 무려 이만 쪽 이상을 읽는 것이었다. 딱히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선택했던 것이 책이었을 뿐이다.

오늘 내일을 전전하던 내가 몇 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는 황금메달을 기대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우습기만 하다. 그런데 그땐 그게 또 희망이 되었다. 가족단위로, 게다가 무한도전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남편까지 동참했다. 목표는 하나, 큰 딸에게 생애 최초의 금메달을 우리 손으로 달아주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남편과 둘이서 도서관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첫날 도서관 2층에서의 내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책장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성였다. 지금 이 상황에 책이 뭐가 싶기도 했다가, 그래도 책이라도 읽자는 마음이 심박 수보다 빠르게 널뛰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도무지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다. 소설을 읽자니 인생이 너무 태평해 보이는 것 같고, 철학 책을 읽자니 안 그래도 골치 아픈 인생 머리만 더 아플 것 같고, 역사를 읽자니 뭔가 암기를 해야 할 것 같은 고지식한 습관이 나올 것 같고..... 참, 그땐 무엇 하나 시작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한참을 책장의 미로를 헤매고 다녔다. 책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바라면서.

처음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김수림 작가의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은 없다.'였다.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가 아니라 포기할 것이 없다는 단호한 표현에 심장이 더욱더 요동을 쳤다. 그녀의 이야기는 대다수 자서전과 마찬가지로 진부했다. 어려웠고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성공했다.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가정적으로 성공했고, 동시에 명예까지 거머쥐었다. 뻘했다. 그래서 절대 읽지 않는 종류의 책이 자서전이였다.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책이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무시하고 지나쳐 갔는데, 결국은 얽히고설킨 미로 속에서 나는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미 책을 고른 남편은 녹장을 부리는 내게 못마땅한 표정을 짓

고 있었다. 어차피 무슨 책이든 상관이지 않느냐는 눈빛을 쏘아 보내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뺀 채 책을 뽑았다.

그날 밤, 나는 안면도 없는 김수림 작가에게 흠뻑 두들겨 맞았다. 정신 차리라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냐고 그녀는 계속해서 질책했다.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더니 그 부모가 너를 버렸느냐고 물었다. 경제적인 문제에 답이 없어 힘들다고 했더니 밥을 굶느냐고 물었다. 시력을 잃은 한 쪽 눈으로 일을 하려니 제약이 많다 했더니 청력 없이도 4개 국어를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했다. 단 한 번이라도 나도 그랬노라고, 그 마음 안다고 공감해주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냉정했다. 그런 정신 상태라면 살 이유가 없다는 단호한 그녀의 태도에 억지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반성을 해야 했다. 인생이 거지같다고, 세상에 옛 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입조차 못 떴게 했다. 그 모든 것은 그저 핑계일 뿐이었다.

밤사이 강제적인 회개를 하고 나니 어이없게도 웃음이 나왔다. 사는 게 뭐라고 그렇게 죽을상을 하고 다녔나 싶었다. 웃는 내 모습을 보니 또 웃겼다.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 또 웃었다. 그러다가 울고 또 울었다. 애처로운 나를 위해, 이런 상황을 함께 해주는 가족들을 위해 울었던 것 같다. 하룻밤 사이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마음이 편안해졌다. 몸에도 마음에도 명든 자국 하나 없이 나를 정신 차리게 한 김수림. 그녀는 내 인생 가장 엄한 스승이었다.

한 명 두 명 작가들을 만났다. 작품이 아니라 작가를 만난다는 것은 내겐 참으로 신선한 경험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과 같은 공간을 느껴보고, 그들과 같은 생각을 공유해 본다. 그것은 예전에는 미처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혼자 하는 책읽기에는 뭔가 한계가 있었다.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남편과 책 이야기를 하기

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다. 각자의 책읽기는 각자의 도피처나 다름 없었기 때문에 그 공간은 서로 건드리지 않으려는 것이 암묵적으로 합의되어 있었다.

그즈음, 도서관에서 독서토론을 하는 모임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 문학을 주로 다루는 모임이었지만 토론의 내용은 인생 전반을 두루 다루고 있었다. 책의 내용을 서로 함께 모여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가 밑줄 친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면, 왜 그 부분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었는지를 말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이야기가 밖으로 튀어나왔다. 책이라는 매개물이 없었다면 결코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치부가 아닌 공유가 되어 서로에게 전달되었다.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준 것은 그들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밖에서 보았을 때는 세상에 나만 불쌍한 사람 같았다. 나보다 인생이 꼬인 사람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안에 들어와 보니 모두가 비슷했다. 작든 크든 각자의 고민 속에서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 다들 꿈을 거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내 삶은 점점 치유되고 있었다. 이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힘이 있다.

작년 이맘때나 지금이나 나의 경제적 상황은 전혀 나아진 바가 없다. 통장의 잔고도 카드의 한도도 여전히 나를 숨 막히게 한다.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들이 나를 움아매고, 카드 대출의 유혹에 끌려 적금 붓듯 쌓여 있는 빚들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예전의 내가 아직도 있다. 그러나 나에게겐 평생을 한도 없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생겼다. 그것도 가족 수 대로 네 장이네! 도서관 대출 카드,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고, 권수의 제한은 있지만, 읽고 싶은 만큼 마음껏 빌려도 되며, 연회비도 따로 받지 않는다. 심지어 내가 돈이 없어 읽고 싶은 책을 살 수 없을 때는 도서

관에 신청만 하면 된다. 이제 더는 돈 때문에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패배자는 아니다. 도서관의 무담보 단박대출, 그 속에서 나는 꿈꾸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다.

|금생

## 개미와의 동거

이은미 대구 달서구 이곡1동

“엄마, 개미가 또 나왔나 봐요”

아들의 말에 비명이 쏟아져 나오려는 입을 겨우 막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아들 둘을 낳아 기르면서 개미 같은 곤충을 안 무서워하는 척해온 게 십수 년이다. 아이들은 엄마를 보고 자란다니, 만일 나처럼 곤충이나 벌레를 보고 질색을 하도록 아들을 키울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정말 두 눈 질끈 감고 개미도 잡아주고 무당벌레도 만져 보였다. 누에도 쓰다듬어 보이며 ‘정말 감축이 매끈하네. 너도 한번 만져봐.’ 하고 아이들 손을 끌어당겨 직접 체험하게 해주었다. 그런 술선수범은 솔직히 나에게 어마어마한 노력을 요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곤충이나 벌레가 결코 좋아지지는 않으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다. 십수 년이 되어도 여전히 벌레라면 온몸에 털이 쭈뼛 서기부터 하니 말이다. 그렇지만, 나의 노력 덕분에(?) 아들은 곤충을 무서워하지 않는 씩씩한 아들로 자랐다. 거기에 더 나아가 너무 좋아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특히 개미를 좋아했다.



어릴 때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면 바닥을 기어 다니는 그 조그만 개미들을 정신없이 따라다니며 놀았다. 그러다가 혹여 개미를 밟아버리는 또래 아이들을 만나면 ‘개미 죽이지 마!’ 하며 놀이터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집에 있는 책 중에서 개미가 들어간 책은 다 잘 보았다. 개미가 등장하는 이야기책도 좋아하고 개미의 생태에 관한 책도 모두 다 좋아했다. 그러다 보니 개미에 대해서 참 많이 알게 되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개미의 모습은 정말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책이 있지 않은가. 책에서는 개미구멍 속을 직접 들여다보는 것처럼 개미에 관한 모든 것을 세세히 다 알려준다. 아이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은 책을 통해 다 알 수 있었다. 우리 아이가 개미를 좋아하는 일이 조금은 독특하고 남과 다른 일인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개미 책을 읽다 보면 우리 아이보다 더 많이 개미를 좋아하고 들여다보고 연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된다.

그러다가 아이가 5학년이 되자, 개미를 키워보겠다고 선언을 했다. 물론 그전에도 여러 번 개미키우기를 해봤었다. 하지만 그런 단순한 키우기가 아니라, 여왕개미를 채집하여 알을 낳고 군집을 형성해가는 모습을 직접 살펴보겠다는, 대단한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책에서 충분히 보고 익혔으니 할 수 있을 거라고 큰 소리를 치는 아들. 공주개미들이 수많은 수 개미들과 함께 결혼비행을 준비하는 봄철이 개미키우기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했다. 결혼비행을 마치고 땅 위로 내려와 날개를 떼고 혼자 알 낳을 준비를 하는 공주개미를 채집해야 한단다. 그건 도대체 얼마의 확률을 가지는 일일까? 마침 그런 공주개미가 우리 눈에 띌 법이나 한가 말이다.

그런데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가? 매일 학교 다녀오면 공주개미를 찾으러 다니던 아이는 정말로 결혼비행을 마치고 내려온 공주개미를 채집해왔다. 그 작은 개미를 내게 보여주면서 ‘날개 뻥 자국 보이시죠?’ 하는데 내 눈엔 도저히 구별이 되질 않았다. 그렇지만 그 개미를 미리 준비해둔 개미집에 넣어주니 며칠 지나지 않아 정말로 알을 낳고 혼자서 그 알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 몇 개의 알이 애벌레가 되고 고치가 되고 마침내 어느 날, 우리 가족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흰색의 일개미 1호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통은 땅 속에서 이루어져,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는 일인데, 아들의 줄기찬 노력 덕분에 그 과정을 생생히 눈으로 보게 된 것이었다. 흰색으로 태어난 개미가 점점 색이 짙어져 완전한 일개미가 되자, 여왕개미는 전적으로 자리를 잡고 알을 낳기 시작하고, 처음 깨어난 일개미들이 본격적으로 살림살이를 맡으면서 개미네 가족은 급격히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때부터 자꾸만 개미집을 탈출하는 일개미들이 생겨나는 것이었다. 큰 플라스틱수조를 이용해 만든 개미집은 뚜껑 대신 촘촘한 방충망을 덮어놓았는데 개미는 그 좁은 방충망 구멍을 통과해 밖으로 먹이를 찾으러 나오곤 했던 것이다. 언제 뺏겨 될지 모를 개미들이 발밑을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당장 한 발자국도 못 뻗지 경이었다. 허나, 아들 때문에 또 한 번 두 눈 질끈 감았다. 온갖 궁리 끝에 우리는 개미집 둘레에 성의 해자처럼 물길을 만들어주어 개미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먹이도 더 넉넉히 준비해주었다. 혹시나 개미가 나와서 밟힐까 하는 공포가 없어지자, 우리 가족 중에 개미와의 생활을 가장 힘들어하던 나머지도 개미들에게 관심을 갖고 정까지 들었다.



우리에게 드라마틱한 생활사를 낱알이 보여주며 감동을 주던 개미가족은 그러나 너무 습하고 너무 길었던 그해 장마를 끝내 견디지 못했다. 인공으로 만든 개미집이다 보니 습기가 잘 빠지지 않아 곰팡이가 피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개미집을 치우던 날, 아들은 자연상태였으면 잘 살았을 개미들을 자기가 괜히 집에서 키웠기 때문이라며 몹시 후회하고 또 슬퍼했다. 하지만 개미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 여름 동안, 어른인 내가 읽기도 벅찬,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 전권을 5학년인 아들이 완독하고 또 개미관찰일지를 쓰고, 자기 혼자 구상한 개미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은 올해 여름휴가를 서천으로 가려고 한다. 개미사랑과 개미와의 동거에 지대한 영향을 준 '개미제국의 발견'이란 책의 저자 최재천 박사가 대표로 있는 '국립생태관'을 방문할 계획이다. 그 책에 자세히 소개해 주셨던 아마존 개미를 실제로 전시할 계획이라고 텔레비전 강연에서 말씀하시는 걸 아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책에서만 보았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볼 멋진 기회이니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 휴가는 고민 없이 그곳으로 결정되었다. 직접 가서 보면, 몇 해 전 우리와 함께 살았던 그 개미가족이 많이 생각날 것 같다. 경험에서 책으로, 책에서 다시 경험으로, 그리고 다시 책으로 톱니바퀴처럼 이어지는 아들의 개미사랑에 오늘도 응원을 보낸다.

김성

## 받침두리

조미정 경북 경산시 사동

오래된 책장이 삐거덕거린다. 선반만 휘어진 것이 아니라 가로 세로 뼈대를 이룬 틀마저 뒤틀렸다.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무너질 것 같다. 꽃아둔 책이 너무 많았나 싶어 책장 한 칸을 비워 봐도 소용이 없다. 책장은 뚱한 아이처럼 더 큰소리로 울어댄다. 하는 수 없이 수리 기사를 불렀다.

바닥이 평평하지 못해 책장 몸체가 기운 탓이라고 했다. 삐거덕거리는 줄도 모르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바람에 문제를 더 키웠다. 말 못 하는 무생물이라도 힘들다는 신호를 무시했다. 아예 못쓰게 되면 어쩔 뻔했으며 기사는 나를 나무랐다. 몇 번 푹푹 하고 매만지니 책장은 금방 순한 아이가 된다. 조금만 손을 보면 될 것을 그동안의 무신경이 면구스럽다.

기사가 수리를 하고 간 책장 밑에는 납작한 나무 조각 하나가 받쳐져 있다. 가구의 아래에 덧대어 받침 역할을 하는 받침두리이다. 울퉁불퉁한 바닥에 쫄 무엇인가가 필요했나 보다. 꺼진 공간을 꼭 메운 받침두리 덕분인지 책장은 힘주어 흔들어 보아도 꿈쩍도 않는다.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작은 조각 하나가 위대해 보인다. 손바닥보다 작은 몸으로 저보다 몇 배나 되는 무게를 곳곳이 견뎌내고 있다.

겉보기에는 편평해 보여도 삶의 바닥은 고르지 않을 때가 많다. 삶이 무거워 이음새가 헐거워지거나 빈 공간이 생겼을 때 받침두리는 돌도 없는 친구요 든든한 조력자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등을 받쳐주고 어깨를 토닥여 준다. 삶의 파고에 부딪혀 뼈거덕 소리를 낼 때마다 바닥을 괴어주는 받침두리가 내게도 있을 성싶다.

독서회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해 이맘때였다.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을 만나러 청도에 들렀다. 고희가 넘은 연세에도 배움의 끈을 잡고 계셨던 지인은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무료 창작 강의를 듣고 있었다. 밖에서 강의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내게 개미 눈물만 한 호기심이 일렁였다. 한번 들어나 보자는 심산으로 강의실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이 인연이 되어 도서관의 독서회 모임에까지 가입하게 되었다.

울산에서 대구로 이사를 온 지 수년이 지났지만 변변한 친구를 사귀지 못한 나였다. 유년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이들은 각자 새 삶의 터전을 찾아 뿔뿔이 흩어진 지 오래였다. 마음을 기대던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후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둘 데 없었다. 그러던 참에 만난 새로운 인연은 무기력하게 단혔던 내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 주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을 갖는 독서회는 단지 읽은 책만 토론하는 것이 아니다. 오순도순 삶을 나누는 장(場)이었다. 책을 선정한 발표자가 작가나 줄거리 등 간단한 책 소개를 하고, 다른 회원들은 돌아가며 책을 읽은 소감을 발표한다. 이 때 인상 깊었던 장면에 기대어 숨기고 싶었던 삶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발가벗고 뛰어 나온다. 사정이 있어 책을 읽지 못했더라도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꼭 찬다. 수십 년 동안 독서회를 곳곳이 지켜온 노선생님들의 정성어린 조언은 삶의 귀중한 지침서다.

책을 읽고 삶을 나눈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작은 눈송이를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조금씩 마음을 뭉친 눈송이는 구르고 굴러 커다란 눈사람이 된다. 보면 볼수록 따뜻한 미소가 그려지는 눈사람. 책은 삶에 대한 통찰을 밑그림으로 그려 놓고 갈 데 없는 허허로운 마음들을 데워주는 눈송이일 것이다. 흠뻑 눈을 맞으면서 조용히 자신을 되돌아보다 보면 별로 내세울 것 없던 내 자신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다는 목민심서의 글귀를 읽었을 때처럼, 처져있던 자존감이 곧추선다.

카페에 앉아 시간을 죽이며 이런저런 수다를 떨던 지난날이 시시하게 여겨졌다. 신이 없는 시대, 미로의 시대, 인간소외의 시대로 불리어지는 요즘 세상에 외로움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전화번호부에 저장한 이름이 수두룩 뽁뽁해도 정작 외로울 때 전화 걸기가 쉽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독서회 모임은 달랐다.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허심탄회하게 삶을 나누는 독서회는 기쁘면 기쁘게 슬프면 슬픈 대로 민낯으로 달려와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오랜 친구 같았다. 듬직하고 편안하다.

독서회에서 토론한 책 중에 ‘건지감자껍질 파이 북클럽’이란 책이 있다. 2차 대전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잊고 따뜻한 인간성을 느끼게 해주던 독서모임에 대한 책이다. 그런 독서회가 내게도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해 온다. 독서회는 평생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귀인의 만남이 아니었을까.

“책이 밥이 되나?”

언젠가 사업을 하는 오빠는 나를 보고 한심하다는 듯 몰아붙인 적이 있다. 미술을 전공한 새언니도 옆에서 거들었다. 예술가치고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림을 빗대어 말했지만,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다.

허구한 날 돈에 허덕이면서도 맞벌이를 하는 대신 모임에 쫓아다니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에게서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치유가 절박했다. 남편의 사업실패 후 육체뿐 아니라 심한 우울증까지 앓았었다. 책읽기는 의사가 처방해준 그 어떤 약보다 나에게 영험한 치료방법이었던 셈이다.

그 해 읽고 토론한 책의 독후감은 한 해를 갈무리할 즈음에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온다. 몇 편의 자작시와 수필들이 함께한다. 비록 기막힌 문장이나 세련된 표현은 없어도 정성들여 꼭꼭 눌러 쓴 글에는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몽클함이 있다. 한 편의 글이 나오기까지 발을 동동 굴렀던 과정을 처음부터 함께 나누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나온 책은 전국 모든 도서관에 골고루 뿌려지게 진다. 뿌듯할 수밖에 없다.

이제 내게는 꿈이 생겼다. 늘그막에 나도 작은 북카페를 하나 만드는 것이다. 지난 목요일에 울산 바닷가의 작은 도서관에 다녀온 후부터이다. 지난해 감명 깊게 읽은 책의 작가의 초청 강연이 있다는 소식에 먼 길 마다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다. 한 시간 남짓할 강연을 들으려는 것치고는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진 까닭이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하고 보니 정말 잘 왔다 싶을 정도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열 평 남짓한 방에는 병풍처럼 책장이 들어서 있고, 썰렁하기 십상인 구석에는 아이들이 직접 빚은 도자기와 시화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무엇보다 달력에 가득한 한 달 일정표는 부러울 정도였다. 동네 허름한 건물 3층에 자리한 도서관에는 독서토론폰만 아니라 주민들이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으며 삶을 나누는 광장이었다.

십 수 년 아이들의 독서 지도를 했던 경험을 살려 무료로 독서 강의를 하고 삶도 나누는 공간을 직접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고요히 고개를 든

다. 발품을 팔아야 갈 수 있는 시립도서관이나 동네 한가운데 자리해 주민들이 쉽게 책을 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도 좋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데 스스로 일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꿈은 언젠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날이 올 때까지 오늘도 나는 도서관으로 자동차를 몰고 간다.

우연히 만난 독서회가 내 삶을 바꾸어 놓았다. 단단한 알을 깨고 나오는 기분이다. 독서회는 아무것도 주을 게 없었던 헛헛한 내 인생에 균형을 잡아주고 무게를 떠받치는 받침두리가 아닐까.

## 마음 조각 퍼즐을 잇는 독서회

김미옥 대구 수성구 범어3동

중학교 1학년 사춘기 딸의 마음은 퍼즐과 같다. 중년을 넘어선 엄마의 마음은 그 퍼즐을 짜 맞추고 알아맞히기 위해 진땀을 흘리는 초보자 수준이다. 퍼즐은 문제를 풀어내는 일반적인 공식이나 해결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은 혼란스러운 문제라고 한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내는 공식이 알려졌다면 그것은 퍼즐이 아닌 것이다. 사춘기 딸의 마음 조각이 퍼즐과 같다고 느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즈음부터 시작된 사춘기는 올해 중학교를 진학하면서 더욱 심해졌다. 엄마로서 아이를 이해하려는 마음과는 달리 말이 먼저 앞서 아이를 훈계하고 지시하며 화내는 모습으로 고민하던 참에 「동도 중학교 어머니 독서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혹시나 딸아이의 마음 조각을 독서회 활동을 통해 연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주저함 없이 신청했다. 학창 시절 이후 독서 토론을 해본 적이 없는 내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독서를 통해서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요소를 마련한다는 것이 나를 설레게 했다.

아이를 키우는 직업주부의 고민은 비슷할 것이다.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많은 것을 아이 곁에서 챙겨주지 못해서 늘 마음이 아프다. 바쁜

다는 핑계로 아이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빠지기 일쑤고 그러다 보면 아이와의 대화 내용도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를 몇 차례 반복하고 나면 아이는 대화를 시도하려고 조차하지 않는다. 그때부터인가 딸아이는 혼자서 퍼즐을 즐겨 하게 되었다. 여행을 가거나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되면 곤잘 입체 퍼즐과 퍼즐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한번은 아이가 없는 틈을 타서 아이가 만지던 퍼즐을 한번 움직여봤다. 평소에 퍼즐을 즐겨 하지 않는 나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평온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불난 듯 화끈거림으로 열을 내다가 이내 던져버렸다. 뭔가 퍼즐이 나를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묘한 기분에 언짢았다. 순간 퍼즐을 맞추려는 나의 모습과 아이의 마음을 짚은 시간에 읽으려고 불같이 화를 내는 나의 모습이 흡사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어머니 독서회에서 이 모순점을 해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지시와 요구만 하는 엄마의 모습에서 독서회를 통해 혼자 아닌 다른 엄마들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딸의 마음 조각 퍼즐을 이해하기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처음 어머니 독서회에 참석하던 날 걱정과 설렘이 뒤섞이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걱정도 잠시 독서회에 참석한 어머니들의 밝은 모습과 유쾌한 목소리에 에너지를 공유하는 좋은 기분을 맛보았다. 어머니 독서회에 참석한 이유 등을 포함하여 자기소개를 하는데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독서를 하는 엄마 모습을 보여주어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하고 싶어서 참석한 사람, 아이 또래 어머니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얻고 싶어 참석한 사람, 다양한 독서를 통해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사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참석하였다. 첫 모임 후에 나만 해결하지 못한 퍼즐을 가진 것 같은 답답함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그 이후로 박웅현 작가의 “책은 도끼다”라는 도서를 시작으

로 본격적인 어머니 독서회를 경험하였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자 돌아가면서 자신이 느낀 바를 이야기했다. 어떤 분은 독서 후 느낌을 노트에 빼곡하게 적어 오신 분도 있었고, 페이지를 기입해가며 감명 깊은 글귀에 대해 낭독하고 좋은 이유를 설명하는 분도 있었다. 또한, 같은 문구에서도 생각하는 바가 정반대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며 모든 어머니가 함께 공감하며 찬성하는 부분도 있었다. 내가 독서회에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독서의 힘은 다양한 사고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나의 고정적인 생각의 폭을 넓히고 다른 사람의 사고를 받아들이는 넉넉함을 배우는 새로운 경험도 맛볼 수 있었다. 독서회의 시작은 늘 책과 저자, 줄거리 등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이야기가 무르익어갈 즈음해서는 누구랄 것도 없이 아이의 얘기와 접목하면서 중학생이 겪는 공통적인 고민과 해결 비법에 대한 얘기로 목소리에 힘을 가하였다. 그리고 고정욱 작가의 “까칠한 재석이가 열받았다”라는 도서에 관해서는 등장인물이 청소년이고 그들의 사회문제가 반영된 내용이라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읽고 토론하기에 더욱 좋았다. 청소년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과 주위 선생님과 부모님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독서회는 어느 때보다 토론의 열기가 뜨거웠다. 기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등의 다양한 도서를 선택해서 읽으며 독서회는 가족 독서회의 성향을 담기도 하였다. 우리 집에는 비교적 많은 책이 있다. 네 가족이 사는 집에 각자 자기 취향의 책들을 읽는 탓에 그 종류가 또 다양하다.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던 점이나 작가의 세계에 관해서 얘기할 때 논쟁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을 제외하곤 각자의 독서 세계에 대해서 간섭하는 법이라곤 없다. 이러한 집안의 독서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 독서회는 딸의 마음 조각을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공유할 수 있는 대화

주제를 제공하게 되었다. 어머니 독서회는 편식하듯 책을 읽는 나의 입장에서 처음에 생소하고 낯선 기분도 있었지만, 모두가 중학교 자녀를 둔 엄마라는 공통점으로 하나가 되어 독서에 대한 느낌과 감상도 결국은 아이의 성장과 연결되어 토론이 풍성해졌다. 평소에 딸아이를 바라보며 느끼는 나만의 고민이 아니란 것을 깨닫고는 크게 공감하고 위안을 받기도 했다. 또한, 새로운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는 엄마들의 노하우를 엿들으며 그야말로 퍼즐을 푸는 방법을 알아챈 듯 기쁜 마음이기도 했다. 특히 엄마들의 대화 속에서 그 어떤 독서의 주제나 대화거리가 나와도 결국 성적 이야기로 이어질 때는 모두가 쓴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어머니 독서회를 참석하면서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나만의 생각과 의견을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요구하던 모습에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독서회에 참석하고 온 날이면 하교한 아이에게 독서회 분위기와 얘깃거리로 대화를 시작했다. 사춘기 딸 특유의 어색한 표정과 말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독서회 분위기를 언급하면서 엄마와 딸의 느낌이 맞물려 감정 공유가 이어지는 짜릿한 공감을 느꼈다. 언제나 학습에 대한 점검과 확인만 하는 엄마의 모습에서 대화의 시선을 딸아이 또래로 옮겨다는 점에서 사실은 스스로 젊어지는 기분과 새로운 신선함에 울컥했다. 퍼즐을 맞춰가는 것은 일방적인 마음이 아닌 딸의 입장에서 마음조각 퍼즐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독서를 편식하듯 읽어가던 나의 습관에서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도서를 선택하고 날짜를 정해 읽고 토론하는 시간은 소중한 일과가 되었다. 나를 바꾸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과 연결해서 새로운 마음의 힘을 얻는 방법을 터득하였다. 아이를 대하는 법, 아이의 생각을 읽는 법, 요즘 또래의 관심거리



를 알아가는 법 등 다양한 사춘기 또래 세계를 이해하려는 내 마음이 열리는 기분이었다.

퍼즐을 푸는 시간은 자기 자신과의 계속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시간이라고 한다. 또한, 퍼즐을 풀어보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시행착오가 사고의 자기교정을 가능하게 해준다고도 한다. 이처럼 어머니 독서회는 나에게 딸아이의 마음 조각 퍼즐을 푸는 과정과 원리를 알려주었다. 딸아이의 마음일랑은 상관도 없이 손만 바쁘게 움직인다고 딸아이의 퍼즐 조각 마음을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다.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딸아이의 마음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퍼즐 조각 마음을 잘 관찰하고 바라볼 줄 알게 되었다. 즉, 어머니 독서회는 예측할 수 없는 마음 조각 퍼즐형 딸과 일방형 엄마 마음을 함께 풀어가기 위한 끝없는 커뮤니케이션의 멋진 소통의 장이었다. 특히,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 나와 비슷한 경험 속에 있는 어머니들의 생각이 함께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공감의 자리였다.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비소로 퍼즐이 완성되어 가듯이 어머니 독서회는 인생에서 귀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딸을 소중하게 바라보게 하는 마음 조각을 잇는 시간이었다.

이은성

## 도서관 가는 길

최현정 경기 과천시 갈현동

등에 멘 배낭이 꽤 무겁다. 모두 책의 무게다. 도서관 책으로 가득 채운 목직한 배낭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인생의 짐이 이다지도 무거웠다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했을까. 하지만 내가 짊어진 ‘책 짐’은 그 어떤 부담이나 책임도 아니다. 나를 귀찮고 수고롭게 하지는커녕, 내가 알지 못했던 세상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는 기쁨에 흠뻑 빠지게 해 준다.

철이 든 이후 내내 지적에 도서관을 두고 살아왔던 건 참 행운이었다. 물론 지적이 천리라 여길 수밖에 없었던 힘든 시기들도 있었다. 취업 후에 그랬고, 결혼 후에 그랬고, 출산 후에도 그랬다. 그럴 때면 나에게 다가온 새롭고도 낯선 환경들에 적응하느라 도서관이 천리 밖으로 밀려나 버렸다. 세상을 궁금해할 겨를조차 없이 숨 가쁜 일상을 살아내기에 바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나는 다시 도서관을 찾는다. 텅 빈 배낭 하나 어깨에 휙 둘러메고.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는 마을을 이룬 집들이 있고, 집들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던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다. 그렇게



내가 올려다보아야 할 거대한 풍경들이 있는가 하면, 내 키 높이에서 살랑거리는 낮익은 잡목들이 있고, 발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내려야 보이는 야생의 존재들이 또한 가득하다. 그 풍경들에 조용히 몰입하며 걷다 보면 내 머릿속은 세상을 향한 물음들로 가득 차게 된다. 그리고 비로소 내가 도서관으로 가는 중이라는 사실이 펍 기쁘고 다행스럽다.

한편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을 찾는 날이면 내 가슴이 가는 내내 걸 굽게 떨리곤 한다. 평범하던 바람 한 줄기에도 온몸이 자릿하도록 옷어대고, 보잘것없던 시든 나뭇잎 하나에 깃든 이야기까지 찾아내 소곤거릴 줄 아는 아이들 덕분이다. 저만치 달려가나 싶으면 이내 멈춰 서서 발밑에 고물거리는 생명과 재재거린다. 다시 가는가 싶지만 채 열 걸음도 못 가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발견해 낸 위대한 물건들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다. 15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한 시간이 다 되도록 걷고 있어도, 그렇게 도서관 가는 길이 하염없이 멀어지고 있어도, 나는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 가는 길이 참 좋다. 어느덧 내가 살면서 잃어버린 먼 야생의 모습들을 아이들에게서 발견해내며 가슴이 참 예쁘게 떨린다.

아이들은 궁금한 게 정말 많다. 세상을 알아갈수록 궁금한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 어떤 날은 도무지 쓸모를 모르겠다는 우리 몸의 작은 조직들에 관해 묻기도 하고, 어떤 날은 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상의 작은 반복들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간혹 내가 답을 찾기도 전에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던 내 어린 시절의 질문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기도 한다. 그 많은 질문들을 한껏 안고 아이들은 도서관으로 간다. 하지만 아이들은 답을 찾으러 도서관에 가는 것이 아니다. 도서관에 들어서는 순간 그 많은 물음들은 온데간데없어진다. 그리고 아이들은 다시 도서관에서 더 많은 물음들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다.

지난해 아이들과 나는 등지에서 떨어져 어미를 잃은 야생 까치 한 마리를 돌보아 준 적이 있다. 그런데 당장 무엇을 먹어야 하고, 지낼 곳은 어떻게 만들어줘야 하는지, 또 얼마나 돌봐주면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도무지 짐작되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아이들과 나는 우선 집에 있는 조류 관련 책들을 뒤적였고, 도서관에 가서 까치를 소개하는 책들을 검색하여 빠짐없이 꼼꼼히 읽어 보았다. 까치에 대해 알면 알수록 까치와 친근해지기도 했지만, 까치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채기도 했다.

돌봐주던 까치가 제법 자라서 제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올라 우리 곁을 떠난 지 2주쯤 지났을 때였다. 까치가 지내던 베란다 여기저기에서 딱정벌레들이 발견되었다. 바닥에 기어 다니는가 하면, 빨아서 널어놓은 옷가지들에도 붙어있고, 선반 구석구석에서도 까맣고 반들거리는 딱정벌레들이 심심찮게 발견되었다. 아이들이 딱정벌레를 잡아 바깥으로 내보내느라 며칠은 소동이였다. 도대체 딱정벌레들이 왜 베란단에 출몰하게 된 걸까? 그간 까치에 대해 제법 찾아보았던 아이들이 금방 답을 알아냈다. 까치는 먹이를 숨겨두는 습성이 있다. 그간 먹이로 주었던 밀웬(딱정벌레 애벌레)을 까치가 베란다 여기저기에 숨겨 두었다. 그 밀웬이 성충인 딱정벌레가 되어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책에서 얻은 깨달음이 내 눈앞에서 꼬물거리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신기했다.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을 이해하고자 우리는 책을 찾곤 한다. 하지만 책을 통해 이해한 세상 속에는 언제나 또 다른 질문들이 남는다. 그 질문들에 눈 뜨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경험으로의 발걸음을 내디딘다. 이렇듯 우리의 온갖 경험들은 책을 통해 무수히 많은 곳으로 옮겨간다. 그러다가 딱정벌레를 만나듯, 뜻밖이고 느닷없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하

지만 느닷없음은 곧 풍요로움이다. 갑작스러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감을 주었던가. 얼마나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되어 주었던가.

내가 책을 찾아 도서관으로 가는 길은, 혹은 내가 생명 가득한 삶을 찾아 걸어가는 인생길은, 어쩐지 ‘뫼비우스의 띠’와 참 닮아있다. 한번 뒤집어 이어보니 모든 게 끝없이 돌고 돈다. 세상을 묻는 질문의 끝에는 언제나 새로운 질문이 시작되고, 비로소 도착한 길 위에선 다시 출발을 준비하게 된다.

도서관에 도착하면 나는 배낭을 텅 비운다. 비웠다는 건 채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나는 씨앗이 되고, 거름이 되고, 햇볕이 될 책들을 고르고 골라 다시 배낭을 가득 채운다. 비웠다가 다시 채우고, 도착했다가 이내 다시 출발하는 그곳이 나에게서 바로 도서관이다. 불교에서 이르는 ‘윤회(輪廻)’라는 말이 생각한다. 수레바퀴가 돌듯 해탈을 향해 끝없이 돌고 도는, 결국 끝도 시작도 없는 인생 이야기가 생각한다. 그리고 보니 도서관은 나에게 무시무종(無始無終), 윤회를 위한 공간이었나 보다. 다시 사는 삶, 길 위의 길은 책 속에 있었다. 책으로 가득 찬 도서관은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바람이 참 잘 통하는 빈집 같다.

|동상

## 세상의 각막

견선희 경남 창원시 신월동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책을 한 아름 빌려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도서관 앞 빗바랜 벤치에 걸터앉아 설레는 맘으로 책장을 연다. 다정한 유월의 햇살이 온몸을 간질여주는 늦은 오후, 여기서 책을 읽는 이때가 내 하루 중 가장 평화롭고 충만한 시간이다.

그런데 어? 뭔가가 좀 이상하다. 아까부터 눈에 이물감 같은 것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갈수록 통증이 심해지면서 이제 책장의 글씨들이 부엌계 흐려 보이기 시작한다. 별일 아닐 거야, 눈을 살짝 감았다 떠본다. 웬걸, 시야가 더 흐릿해져 온다. 털썩 겁이 나 그 길로 허둥지둥 안과를 찾았다. 대기실에서 멍하니 차례를 기다리는데, 품 안의 책이 나를 걱정스럽게 올려다본다.

‘괜찮은 거겠지? 어서 나아서 나를 찬찬히 들여다봐 줘.’

‘응, 그럴 거야. 나도 어서 너와 만나고 싶어.’

이윽고 내 이름이 불리었고, 이런저런 검사 끝에 ‘각막궤양’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위장이 아닌 각막에도 궤양이 생긴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 신경 마비, 특정 바이러스, 세균 등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한데, 특히

곰팡이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가 잘 안 되고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안과에 와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세상에 각막에 곰팡이라니, 한숨만 나온다.

눈이 육신육신 시리고 자꾸 눈물이 나고, 제대로 눈을 뜨기도 힘든 상태로 꼬박 사흘째다. 우려했던, 곰팡이에 의한 각막궤양이라는 결과를 들은 오늘은 더욱 눈이 찌르는 듯 아려온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도대체 언제쯤 나아지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한참을 울적해 하고 있는데, 어느새 책꽂이에 가지런히 꽂힌 책들이 나를 바라봐주고 있다. 파스하다.

‘.....괜찮은 거니? 힘든 시간도 곧 지나가게 돼. 기운을 내렴.’

‘역시 나를 위로 해주는 것은 너희들이구나.’

정이 함빡 뻥 책들은 반질반질 손때 묻은 책등만 바라만 봐도 마음이 어느새 편안해진다. 오래된 친구는 말없이 그저 옆얼굴만 보고 있어도 마냥 좋은 것처럼.

그러다 책등 하나에 문득 눈길이 멎었다. 헬렌 켈러의 에세이집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다. 두 살 때 걸린 병으로 인해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았던 헬렌 켈러는, 만약 자신에게 유일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죽기 전에 꼭 사흘 동안만이라도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했다. 첫째 날은, 자신을 바깥세상으로 이끌어 준 설리번 선생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고, 다음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그리고 마지막 날은 현실세계에서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고..... 책을 꺼내 들어 가만히 어루만져 본다. 겨우 사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온갖 투정을 부렸던 나의 미움함이 부끄러워진다. 이제껏 아

무 불편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껏 책을 읽으며 살아온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만 여겨왔다는 생각이 든다.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 사흘 동안이나마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고 했던 헬렌 켈러가 지금 이렇게 내 곁에 서 있다. 이 책장을 넘기며 가슴이 부풀어 오르던, 하루하루 스치듯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배웠던 그 시간을 어느새 잊고 있었다. 책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책임기에는 이렇듯 완성이 없기 때문이다.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담금질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어이쿠, 각막혼탁이 생길 정도로 염증이 심해졌네요. 완벽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3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3주요?”

지난 사흘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데, 3주 동안이나 눈을 제대로 못 뜨게 된다고 생각하니 맥이 탁 풀렸다. 하지만 불평이 슬그머니 비집고 나오려는 내 마음 밭에는 이제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을 읽었던 그 시간이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다. 현실은 바꿀 수 없어도 현실을 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온 삶으로 증명했던 헬렌 켈러를 떠올린다. 비관과 낙심이 들어올 틈새가 없었던 삶을 살았던 그녀였다면 이 순간 뭐라고 했을까.

나는 충혈이 되어 발개진 눈을 가늘게 뜨고 달력의 3주 뒤 날짜에 크게 붉은 동그라미를 쳤다. 그리고 달력의 위쪽 여백에 힘찬 글씨로 적어 내려간다.

“3주 후, 눈을 환하게 뜨고 책을 맘껏 읽을 수 있다. 나는 얼마나 운이 좋은가!”

마치 희뿌연 간유리를 통해 이 세상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 3주의 시간을 그냥 흘러보낼 수는 없다고 다짐한다. 그렇게 사는 것은 이제까지 내 안에 머물러 주었던, 매 순간 나를 위로하고 응원해주는 책들을 실망시키는 일이다. 퉁퉁 붓고 어릿해진 눈 때문에 책 속의 활자를 읽는 것은 무리지만, 대신 마음속의 책들에게로 여행을 떠날 수는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니 기운이 나기 시작했다. 이제껏 책과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 그 따스한 기억을 한껏 밀어 올려 본다.

부모님의 이른 이혼으로 외로웠던 어린 시절, 그래도 내 곁에는 책이 있었다. 책은 내게 첫사랑 같은 존재였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지난날이 어땠을까 궁금해지듯이, 성장하면서 나는 내 첫사랑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다. 목판, 점토판, 나무껍질, 파피루스 등을 이용했던 고대부터, 필경사들이 활약하던 중세, 15세기경 인쇄술이 발달하여 일어난 지식의 혁명에 대해 처음 눈 떴던 순간을 생생히 기억한다. 특히, 한 권의 책을 얻기 위해 전문 필경사들이 몇 날 며칠을 책을 옮겨 써야 했던 중세시대 특유의 분위기에 나는 매료되었다. 중세의 책은 수작업이었던 만큼 고가의 귀중한 물품이었고,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이 성직자와 귀족 같은 특권층에게만 국한되었던 ‘호사’였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이 순간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지금, 애서가로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책 한 권을 소유하거나 빌리는 것, 손에 책을 들고 책장을 넘기는 것, 이 시대에는 대수롭지 않은 이 모든 동작들이 중세시대에는 극히 드물고 엄숙하기까지 한 특권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첫사랑이 계속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하던데, 나는 운이 좋았다. 사

회생활의 첫발을 도서관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낮에는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밤에는 야간대학을 다니는 꽤 고된 일상이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책 향기 속에 둘러싸여 있으니 마술처럼 힘이 났다. 간혹 사람들이 빌려 간 책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발견할 때가 가장 속상했던 기억이 난다. 많이 빌려 보고 오래되어 책장이 떨어져 나간 것은 책표지를 새로 만들어 입히고, 낙서가 발견되면 어떻게든 지우려고 애를 썼다. 파손되어 한쪽 구석에서 외면받던 책이 말끔해진 얼굴로 다시 사람들의 품에 안겨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른다. 지금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오면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종이로 책을 싸는 일이다. 모두가 함께 보는 책이니 최대한 깨끗하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다. 책을 반납하기 전, 책 포장을 조심스럽게 벗겨낼 때면 책이 나에게 소곤소곤 말을 거는 소리가 들린다.

‘소중하게 다루줘서 고마워. 앞으로 내 친구들도 잘 부탁할게.’

‘나야말로 고마워, 내게 와 줘서.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해.’

어느덧 3주, 나와 책이 함께했던 시간을 천천히 돌아볼 수 있었던 여행의 시간이 순조롭게 흘렀다. 충혈로 내내 발개져 있던 흰자위가 차차 원래의 뽀얀 우윳빛을 되찾아간다. 아무런 통증 없이 아침에 눈을 뜨고, 도서관으로 향하는 가로수 길에 능률하게 늘어선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을 오래오래 바라보고, 읽고 싶었던 사랑스러운 책들을 조금씩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숨 쉬듯 받아들였던 평범한 일상이 실은 크나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매일이다.

그런데 이 여정 속에서 어쩐지 내내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작년 이

맘때쯤, 도서관 입구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한 시각장애인 아주머니의 얼굴이다. 2층 점자도서실에 가신다는 말씀에 잠시 안내를 도와드렸고, 호기심에 살짝 책꽂이에 가지런히 꽂힌 점자책들을 둘러봤었다. 빈 책꽂이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부터 눈에 들어왔다. 도서관은 항상 다양한 책들로 넘치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은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내가 가지 않고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아채신 아주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점자책을 만드는 데 손이 워낙 많이 간다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다양하게 구비해놓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였다.

“읽었던 책을 다시 읽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우리도 비장애인들처럼 읽을 수 있는 책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아주머니와 헤어지고 나서도 그 마지막 말씀이 계속 뇌리에 맴돌곤 했다.

각막궤양이 완전히 나은 지금, 나는 용기를 내 점자책을 만들기 위한 첫 작업을 하는 중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도서 제작봉사’라고 하면 어쩐지 거창하게 들리지만, 그냥 나를 기쁘게 해 주었던 소설책 한 권을 선택하여 그것을 통째로 한글 파일로 입력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전달하는 것이다. 손가락이 자판 위를 날아다니는 젊은 친구들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아들에게서도 틈틈이 워드를 배우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연 정보화교실에서 연습을 거듭한 끝에 겨우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배웠는데도 아직 내 워드 실력은 부끄럽게도 ‘독수리타법’에서 조금 나아진 정도다. 하지만 느리고 서툴게나마 이 작업을 꾸준히 하는 이 순간이 참, 기분 좋다.

타닥타닥 자판을 두드리다가 잠시 눈을 감아본다. 슬며시 웃음이 나온다. 어렸을 적부터 특유의 잉크 향을 풍기는 책의 냄새가 그저 좋았기에, 사서로 일하던 내내 책의 그 냄새에 취해 마냥 즐거웠기에, 가끔 ‘나는 평생에 필경사였는지도 몰라’ 하는 상상을 하곤 했다. 중세시대, 어두컴컴한 수도원 구석에서 깃대로 만든 펜으로 양피지 두루마리에 책을 옮겨 쓰던 필경사라는 직업이 왜 내게는 그리 오래 각인되었을까. 하지만 지금, 내 손으로 이렇게 한 자 한 자 다른 세상으로 옮겨지고 있는 책을 보면서 이렇게 행복한 것을 보니, 난 아무래도 윤회를 제대로 한 것 같다. 조금씩 옮겨지고 있는 책이 정답게 나를 응원해주는 소리가 들린다.

‘힘들지? 잘하고 있어. 네 덕에 새롭게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니 설레.’

나는 씩 웃으며 대답을 대신하고 다시 ‘필경사’일을 시작한다. 심하게 손상되었던 내 각막에 다시 새 세포가 차올라 오롯이 누리게 된 이 순간이 감사하다.

각막은 태양빛을 통과, 굴절시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즉 아무리 빛이 가득 있어도, 각막의 도움 없인 이 세상을 눈에 담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책이란, 이 세상을 향한 거대한 각막 같은 것이 아닐까. 책이란 이름을 가진 이 아름다운 각막들 덕분에, 우리는 매번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른 삶들을 만나는 모험을 떠날 수 있다. 기꺼이 내 각막이 되어 나를 넓은 세상과 연결해준 고마운 책들을 생각하며, 이제 누군가의 자그마한 각막이 되어주고 싶은 꿈을 꾀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내 눈은 내가 읽은 점자책들 위에 경건하게 머물 것입니다. 그것들은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읽는 인쇄된 책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겁니다. 기  
나긴 밤과도 같았던 내 인생에서 누군가 읽어준 책과 내가 읽은 책은 인간  
의 삶과 영혼의 깊고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빛나는 등대였기 때문입니다.’  
- 헬렌 켈러,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중에서 -

| 동생

## 아이돌보미

손서희 대구 남구 봉덕3동

가슴 골짜기로 흐르는 물줄기가 서늘하다. 울타리도 이 정도면 자못 감  
옥이다. 하늘도 안다는 듯 진눈깨비가 내린다. 저 빗속을 우산을 받치고  
홀로 걸어 본 적이 내게도 있었던가.

연년생 두 아들은 나의 존재를 망각시켰다. 내가 없다. 엄마만 있을 뿐  
이다. 큰애는 유달리 순했다. 여복하고 남자애가 저래도 되나 걱정스러웠  
을까. 연이어 들어선 작은애는 그런 걱정의 뿌리까지 뽑으려는 목적을 가  
지고 태어난 것 같았다. 안든지 업든지 해야지 내려놓으면 울었다. 별장  
던 얼굴이 시퍼레지고 새까매지도록 울었다. 두 시간을 업어 겨우 재워 놓  
히면 곧바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이가 눈을 뜨고 있으면 마음이 파르  
르 떨렸다. 모든 일을 업고 했다. 요리, 설거지, 청소, 빨래, 심지어는 세  
수와 양치, 변기 위에서 보는 일까지도. 아이가 인내력 테스트지 같아 보  
였다. 샤워할 틈도 주지 않았다. 아빠에게도 가지 않았다. 오직 엄마의 품  
안에서만 숨소리가 편안했다.

남편은 하루 세끼를 집에서 먹었다. 직장이 집 가까이에 있었다. 두 아



이 돌보며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식사 준비를 해야 했다. 수고한다고 한마디만 해 주어도 가슴 속 생채기가 그토록 깊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남들은 셋도 넷도 잘만 키우더라. 둘 가지고 뭐어 그케셨노오?’ 출근을 해야 하는 남편을 배려하여 각 방을 썼다. 작은애 쪽을 보고 누우면 큰애가 울고 큰애 쪽을 보고 누우면 작은애가 울었다. 아침 해는 천 기저귀 산등성이 위로 떠올랐다. 먹을 새도 잠잘 시간도 심지어는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생각 보따리는 개켜 놓아야 했다. 펼쳤다가는 정신이 일탈해 버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두 아이가 걷기 시작하자 외출은 거의 불가능이 되어버렸다. 뒹뒹 걸으며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하나는 정차된 자동차 아래로 하나는 트럭 아래로 기어들어 갔다.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외출 후 귀가하면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다. 차라리 나가지 말자. 가끔씩 셋 중 누가 아프면 셋 다 병원으로 업고 안고 메고 가야 했다. 내가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으려면 아이를 안고 기계 위에 앉아야 했다.

작은애가 28개월 무렵 친구가 책 영업을 시작했다. 아동용 양서로 유명한 회사였다. 돈이 모이는 대로 책을 샀다. 두 아이의 걸음은 물론 팬티까지도 지인으로부터 물려 입히면서도 책은 새 책을 샀다. 육을 위한 옷보다 마음의 양식인 책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다는 걸 암암리에 인지시키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언어영역, 사회영역, 자연과학영역, 사회과학영역, 외국어영역 등 음식도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이듯이 마음의 양식도 편식하지 않도록 골고루 갖춰 먹였다. 아마 취학 전에 들어간 도서관만 도 수백만 원은 호가할 것이다.

남편은 시댁 쪽에서 네 형제 중 셋째지만 맨 나중에 결혼했다. 어머니는

다른 아들들의 아이들을 돌봐 주느라 지쳤다고 하셨다. “너그는 함부레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불러올릴 생각하지 말거라.” 결혼식 후 애초에 썩기를 박았다. 친정 쪽으로도 막내라 어머니의 칠순이 지난 이듬해에 결혼한 나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다. 어머니는 좌골 신경통을 앓았다. 언니들은 하나같이 직장생활을 했다. 그때는 아이 돌보미나 베이비시터 제도가 정착되기 전이었다. 어찌나 곤한지 애 봐줄 테니 삼십 분만이라도 마음 놓고 폭 자라고 하면 평생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니며 은혜를 갚겠다 싶었다.

귀구멍에도 해 뜰 날이 있다고 했던가. 우리 집에도 드디어 아이 돌보미가 들어왔다. 특히 ‘창작동화’라는 돌보미는 몇 트럭이라도 친구 삼게 해주려는 욕심으로 이웃에 빌리고 도서관에서 대출도 해다가 열심히 읽혔다. 다행히 아이들도 책을 좋아해 주었다. 책은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고 나에겐 위로자가 되어 주었다. 우리는 가고 싶은 곳을 시간과 돈의 제약 없이 마음껏 갈 수 있었다. 과거로도 미래로도 마음대로 떠날 수 있었다. 지구를 벗어나 다른 행성으로 우주여행도 갈 수 있었고 공룡시대로 돌아가 티라노사우루스와 초원을 달리기도 했다. 예쁜 돼지, 핑키부와 시장도 가고 귀여운 곰, 푸우와도 뒹굴었다. 지렁이, 쟁아와 함께 땅속 여행도 꼬불꼬불 떠났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며 실제로 연기도 했다. 예를 들어 알라딘의 마법 램프를 읽으면 알라딘처럼 옷을 입히고 소품과 램프를 준비하여 연기하며 책과 함께 놀았다. 그러면 아이들이 더 재밌어했다. 좀 더 자라선 책을 읽으면 스티커를 붙여 칭찬하고 상도 주었다. 아이들은 신나서 책을 더 많이 읽었다. 하루 종일 집 안에서 책을 통해 온 세계를 여행했다.

놀아도 책과 놀았다. 거실, 안방, 아이들 방, 화장실 등 집안 곳곳에 책을 두었다. 큰애는 자기도 자라면 엄마처럼 아이를 기르고 싶으니 자료들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두라고 하였다. 파스텔 톤의 그림이 아름다운 창작 동화를 온 거실에 펼쳐놓고 전시회도 하고 책과 장난감, 옷 등을 펼쳐놓고 시장놀이도 했다.

언제 어디서나 책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했다. 하하 호호 깔깔깔~~

책을 통해 빗속을 걷기도 하고 직접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간접경험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은 취학 전부터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났다. 의성어와 의태어를 넣어 정확한 문장으로 말했다. 책 영업을 하는 친구의 회사에서 어머니교육이 있었다. IMF가 남긴 것 중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질 준비는 미리 해야 한다는 의식이라는 것이다. 명퇴, 황퇴, 사오정, 조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졌다. 현재 직업을 잃으면 한 단계 낮추어 갈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한다. 시작이 막노동 수준이면 더 이상 가질 직업이 없다. 단지 돈 벌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돈은 따라오는 그런 직업을 갖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려면 어려서부터 다방면의 독서로 용량을 꾸준히 키워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인성도 훌륭하고 실력도 있는 인재가 되어 나라를 위해 큰일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책을 통해 불어넣었다.

그래서일까. 두 아들은 사춘기를 거의 겪지 않았다. 남자아이에게 유독 심하게 온다는 사춘기도 김정은이 무서워 못 내려온다던 중2 때도 감사하게 넘겼다. 아이들로 하여 비 오거나 흐린 날이 별로 없었다. 다독하면

서 사춘기를 잘 넘겼다. 그것은 독서를 통해 정체성이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직접 체험이 좋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인간은 시공의 한계에 부딪히는 유한한 존재다. 독서는 시공을 초월하는 간접체험의 산교육장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독의 가장 큰 선물은 역사사지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두 아들의 인성은 가히 상상을 뛰어넘는다. 큰애는 작년에 직업학교에 다녔다. 점심을 거르며 돈을 모아 내 생일 선물로 스카프를 준비했다. 버스 타고 지나는 길에 옛 도너츠란 간판이 있었다. 예전에 먹었던 것인데 꿀맛이었다고 했다. 바로 다음 날 하룻길에 환승할 버스가 없어 몇 코스를 걷고 걸어 사온 적이 있다. 작은애는 무거운 짐을 들렁들렁 잘 들어주고 쓰레기를 잘 버린다. 친구한테 배려심이 많아 인기가 좋다. 그 외에도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독서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며 인생의 나침반이고 마음을 깊이 만져주는 치유자다.

비가 사뭇히 내린다. 이제 빗속을 홀로 마음대로 걷는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와 함께 전화벨이 울린다. 우산이 있느냐는 아들들의 전화다. 아들들은 엄마를 이렇게 지극히 챙겨주도록 자랐다. 그러나 지금은 외출도 못 할 정도로 보살핌이 절실했던 그 어린 시절이 도리어 그립다. 이것이 인생사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가. 곁에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후회를 분만하지 않는 지름길인가 보다.

## 그날에 보리향기

신현량 경북 안동시 용상동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도마 안중근 의사께서 옥중에 남기신 말씀이다. 가로로 쓰인 궁서체의 글귀를 보면서 십오 년 전, 작은 도서관의 문을 열었다. 정면에는 어딘가에서 기증한 듯 큰 거울이 놓여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내 모습이 한눈에 비쳤다. 포대기로 아기를 들춰 업고 큰 아이의 손을 잡은 채 들어오는 모습은 시골 아낙, 그대로였다. 어촌 마을에 자리를 잡고 전업주부로 살아온 몇 년 동안, 당당하던 내 모습은 온데간데없어지고 검게 탄 얼굴의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죄송한데요, 독서회원 모집한다는 이야기 듣고 왔는데, 저, 그런데요..... 애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데리고 와야 하는데..... 안 되겠죠?”

말은 꺼냈으나 안 될 거란 뻔한 대답을 예상하고 금방 주눅이 들어버렸다. 괜히 말을 꺼냈나 싶어 어쩔 줄 몰라 하던 내게, 직원분이 다가왔다. 회원들에게 이야기해 보겠다고 연락처를 남겨두라고 했다.

도서관을 나오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결혼을 선택한 후 정착한 이곳에선 모든 것이 서툴고 낯설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관심을 가질만한 것도 없었다. 가까운 해변만 종일 걸어 다녔다. 하얗게 일어나는 포말을 보

며 ‘나도 파도처럼 저렇게 부서지고 말겠구나’ 생각했다. 결혼 전에 가졌던 열정이 아직 식지 않았지만 낯선 곳에서 어느새 엄마가 되어 있었다.

인생이 뒤엎켜버렸다. 이리다 한평생을 허비하는 건 아닌가 싶어 바다에 엎드려 책만 읽었다. 점점 사회로부터 격리되었고, 은둔형이 되어 집 깊숙이 숨어버렸다. 정작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삶의 경험과 깨달음은 온전히 내 것이 되지 못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책을 좋아하니 독서회라도 나가야겠다’고 결심한 건 남편의 권유 때문이었다. 도서관에서 독서회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도서관 문을 두드리기까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

며칠 동안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을 겪었다. 아기를 데리고 모임에 나가겠다는 발상이 어이가 없어 그만 포기해야겠다고 맘먹기도 했다. 혼자 가슴이 벌렁거렸다가 실망하기를 여러 번, 독서회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아기를 업고 학창시절 소개팅에 나갈 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독서회원이 되었다. 첫째, 셋째 주 금요일이면 큰딸을 유치원 차에 태워 보내고, 과제를 챙겨 도서관으로 향했다. 첫째시간은 읽은 책에 대해 토론을 하고 둘째시간은 과제로 써온 글을 읽으며 합평하는 모임이었다. 작은 마을이다 보니 모이는 회원 수가 예닐곱 명 정도였지만 열기만은 대도시 부럽지 않았다.

아기를 업고 문을 열지 못해 서성일 때 선뜻 다가와 준 회장님을 잊지 못한다. 일제히 나를 바라보던 회원들의 그때 그 눈빛도 잊지 못한다.

“어서 와요, 반가워.”

회장님의 소개로 보리향기 독서회원이 되었다. 회원들이 선택한 소설, 수필, 시를 읽으며 독서의 폭이 넓어졌다. 좋아하던 장르만 읽었던 내게 독서회 모임은 상식과 학문을 오가며 책과 가까워질 기회를 주었다. 책

을 읽는 내내 마음이 편해졌다.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생겼다. 황폐해져 가던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기를 데려와서 미안해하면 회원들은 ‘우리 명예회원’이라며 아기를 서로 돌아가면서 안아주었다. 둘째딸은 독서회와 함께 성장해 갔다. 독서회는 이름처럼 참을성 많고 순박한 보리향기가 은은하게 감돌았다. 책을 가까이해서인지 시끄럽지 않으나 정적이지 않고, 적당히, 적절히 고개 숙일 줄 아는 분들이었다.

처음으로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동네 언니들이 생겼다. 언니들과 책도 읽고 잡다한 수다거리도 함께 했다. 도시에서 온 티를 내듯 해변을 거닐고 커피를 마시대는 대신, 아이들과 도서관으로 발길을 옮겼다. 지도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하느라 밤을 새우며 글을 쓰기도 했다. 어린이처럼 칭찬 받고 싶은 욕심에 자꾸 글을 썼다.

그러다가 독서회에서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낭독회를 열어 책을 가까이할 수 없는 주민에게 책에 대한 흥미를 심어주기로 한 것이다. 관장님은 의욕이 대단하여 우리를 부추겼다. 그때까지만 해도 작은 어촌마을에서 주민들을 위한 낭독회를 연 적이 없었다. 문인들이 식당에 모여 자작시를 읽고 박수를 치는 정도였기에 전문적이지 않은 독서회원들의 낭독회는 많은 관심이 쏠렸다. 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부담이 되어 회원들의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독서회이니만큼 우리끼리 독서와 토론에 집중하여 그만 포기하자는 의견과 못하더라도 정성껏 준비하여 독서의 재미를 알리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조용히 있던 회장이 한 말씀 하셨다.

“우리가 왜 보리향기 독서회라고 이름 붙였는지를 생각해 봐요. 보리는 화려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향기가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말

이야. 바람이 조용히 부는 날, 보리밭 가운데 있으면 느껴져요. 장미처럼 화려하지 못해서 금방 알지 못하지만 온몸으로 전해지는 은은한 그 향기. 우린 그냥 평범한 아내이고 엄마야. 평범한 속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리 속에 감춰져 있던 그 향기, 그걸 보여주자는 거예요. 잘하자는 게 아니야. 독서를 통해 우리의 향기가 우리났듯이 우리 마을 곳곳에 그 향기가 퍼지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 숙연해졌다. 모두 전업주부였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 욕망이 아직 살아있는 주부였다. 남편한테, 자식들한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한 달 동안 낭독회를 준비하기 위해 매일 모였다. 관장님은 지하 소공연장을 통째로 내어주셨고, 시낭송을 두어 번 관람한 적 있는 정숙언니가 총책임을 맡았다. 독서회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회원이 많지 않으니 나도 동참해야 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을 토박토박 읽는 건 어렵지 않았으나 감정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처음 해보는 낭독이 낯설어 손발이 오그라들었지만, 관객이 없으면 어찌나 하는 걱정엔 잠을 설치기도 했다. 맹연습 중인 우리에게 수다스러운 경수언니는 대인공포증이 있다며 한 글자도 읽지 못하고 별별 떨기만 했다.

그날이 왔다. 가까운 학교에서 국화 화분을 얻어와 무대를 장식했다. 현수막 대신 A4용지에 프린트한 글자를 정면에 걸었고 풍선장식을 달아 아기자기하게 꾸몄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회원들의 모습처럼 잔잔하고 소박했다. 모두 수고하고 있을 때, 걱정스러워하던 경수언니가 정말 보이지 않았다. 연락이 되지 않아 애간장을 태웠다.

도서관 지하 공연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회원들의 가족, 이

옷들이 벌난 구경을 하러 모여들었다. 담담하던 회원들은 관람객을 보자 너무 큰일을 저질렀다며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다. 회원들의 입이 바짝바짝 말라갔다. 그때 경수언니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들어왔다.

“까짓것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내 미용실 다녀오느라 좀 늦었다.”

경수언니의 한마디에 회원들은 한바탕 웃으며 용기를 내었다. 그날, 보리향기 독서회가 저지른 큰일은 작은 마을의 오랜 가십거리가 되었다. 내 아내가, 내 엄마가 주민들 앞에서 한껏 차려입고 책을 낭독했던 일은 두고두고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회장님, 우리 이러다 유명해져서 군청에서 기념비 세워준다면 어찌지요?”

언니들의 너스레가 아직도 귀에 선하다. 처음으로 두드린 문을 활짝 열어준 독서회원들 덕분에 마음속에 품었던 날 선 가시들이 사라지고 나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게 되었다. 향을 썬 종이에선 향내가 난다고 했던가. 우리의 향기로 인해 지역 문인들은 매년 주민들을 위한 큰 규모의 시낭송회를 열고 있다.

평범한 주부들이 모여 이루었던 기적을 끝으로 우리는 흩어지게 되었다. 아이의 교육 때문에 도시로 나가거나, 남편의 직장을 따라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촌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있었던 그 날의 기억은 회원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빛나던 안중근의사의 명언처럼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가시가 돋는다던 회원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도 향기로운 독서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온다. 명예회원이었던 작은 딸은 책을 좋아하는 문학소녀로 자라고 있다.

그날에 보리향기처럼 누군가에게 삶의 향기가 되고 싶은 이유가 오늘, 낯선 곳의 문을 열게 한다. 그곳에 책 향을 나눠주러 간다.

|가작

## 내가 도서관에 가는 이유

김용선 경기 군포시 재궁동

얼마 전 엄마 생신을 기해 시골에 갔었다. 엄마는 오랜만에 만난 딸의 행색이 내심 걱정스러웠는지 같이 간 올케들의 눈을 피해 십만 원을 호주머니에 쑤셔 넣어 주셨다. 작지만 보태서 옷 한 벌 사 입으라고 하셨다. 원래부터 몸을 치장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모르실

리 없으시건만 그날은 내 모습이 유독 눈에 거슬렸던 모양이다. 그런데 나는 그 돈으로 옷을 사 입지 않고 책을 샀다. 딸이 변변한 옷 한 벌 갖추어 입기를 바라셨겠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나에게 책은 특별하다. 책을 소유한다는 것은 나에게 기쁨이다. 옷을 사는 것보다, 비싼 음식을 먹는 것보다, 책 한 권이 더 좋다.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는 글을 읽지 못하셨고, 엄마는 다행히 학교 문턱을 간신히 넘긴 했으나 글보다는 들로 나가 땅을 일구는 것이 더 능숙하신 분이시다. 그래도 자식은 배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시키셨다. 그러나 교육은 나의 지적수준을 높여 주었음 지는 모르나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기를 더 깊숙이 느끼게 했다. 어쩌면 내가 허세 아닌 욕심을 부리며 책에 집착하는 것은 글을 모르는 부모님



밑에서 글을 알아가는 자식으로 살아오면서 느낀 나만의 결핍은 아닐지.

나는 20대가 넘어 처음으로 동화책을 읽었다. 왜냐고? 우리 집 형편에 학교를 다니는 것만도 감지덕지, 책은 사치고, 동경의 대상일 뿐이었으니까. 한동안 허기진 배를 채우듯 책 읽는 포만감에 빠져도 보았다. 좋은 책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주어지는 대로 읽었다. 단지 책이어서 좋았을 수도 있었다. 서점에서 책을 사와 밤을 새워 책을 읽은 날은 뭔지 모를 뿌듯함에 스스로를 대견스러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허기진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결핍은 여전히 나를 책 주위에 맴돌게 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보다 책을 사서 읽기를 원한다. 어릴 적 책으로 받았던 상처는 고스란히 집착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나는 도서관에 간다. 단지 책을 읽는 목적만은 아니다. 책을 통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한 장을 열기 위해서다. 혼자만의 독서는 나를 편협한 생각에 가두어 두는 듯했다.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라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했다. 내가 매주 세 번 정도 도서관을 찾는 이유다.

먼저 월요일은 아트플랜이라는 이름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장소는 도서관 세미나실이다. 화실에서처럼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 미술 수업을 할 수는 없지만, 도서관의 제한된 특성에 맞게 빔 수업과 미술재료를 간소화해서 수업을 한다. 벌써 2년째 진행형이다. 도서관에서 하는 활동이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럿 거쳐 갔다. 하지만 그림만을 잘 그려 보겠다고 모임에 들어왔던 이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났다. 하지만 꾸준히 뭔가를 하는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도 능가할 수 있다고 했던가? 학창 시절 미술 수업이 전부였던 나에게도 조금씩 진전된 모습을 보여 올해 초, 도서관에서 전시회도 열었다. 큰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일

주일에 한 번뿐인 수업이지만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하나 쌓은 실력이 밑거름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는 재미도 있다. 그림만으로는 볼 수 없었던 화가들의 삶, 같은 시대에 살았더라면 친구 삼고 싶은 이, 절망적인 삶 속에서 탄생한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애잔함, 나는 그 시간을 통해 현실의 친구와 과거의 친구를 동시에 만나는 호사를 누리보곤 한다.

두 번째는 화요일 명작독서회다. 혼자만의 독서는 어떤 책이 좋은지, 또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사냥감이 옆에 있으니 낚아채듯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나 역시 나름 많은 양의 독서에도 불구하고 충족되지 않는 허기진 마음뿐, 만족스러운 책 읽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도서관의 권장 사항이기도 했지만, 책을 제대로 읽어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몇 사람이 모여 독서회를 만들게 되었다. 시작은 연령대도 다양한 삼십대에서 팔십 대로 이루어졌다. 책을 통한 만남이기에 가능한 조합으로, 삶 그 자체가 책인 분들과의 모임이다.

이제 독서 모임을 시작한 지도 5개월 남짓, 방향을 잡지 못해 우왕좌왕하던 시간을 뒤로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가고 있다. 책 선정은 명작이라고 일컫는 작가들의 작품을 읽는 것으로 시작했다. 혼자 책을 읽는 것보다 진전은 없었지만 좀 더 깊이 있고, 폭넓은 책 읽기가 되었다. 좋은 문장이나 단락을 발췌를 해서 낭독을 하기도 하고, 작품을 쓰게 된 작가의 삶과 작중 인물들에 관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묘한 매력 속으로 빠져들기도 하는 시간이었다. 어떤 때는 내가 알지 못했던 좋은 작가와 작품을 대면하는 황재를 얻기도 해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한 모임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까뮈, 발자크, 슈테판 츠바이크 등 지중해와 유럽 쪽 작품과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읽으면서 재미있게 책을 통한 자유여행을



즐겼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선 살아가지 못했지만, 책을 통한 만남은 일방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정을 나누기에 충분하다는 느낌이 든다.

세 번째로 목요일은 문학회 모임이다. 문학을 사랑하고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시, 소설, 수필로 장르를 나누어 회원들의 작품을 합평하는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글을 쓰는 이도 있고, 그냥 수업만 경청하는 이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글을 쓰고 싶다는 욕구에 못 이기는 척 글을 쓰기 시작한다. 그런 중에 숨은 잠재력을 발견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회원도 있으니, 여러모로 괜찮은 모임이다.

가정과 직장 생활로 지친 몸을 이끌고 도서관을 드나드는 것이 사치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조금씩 지친 마음을 회복해 가고 있다. 바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다. 내가 예전에 느꼈던 것과는 달리 풍족한 삶 속에서 느끼는 결핍이지 싶기도 하다. 그러나 외면할 수 없다면 스스로 그런 요인들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책을 통한 치유는 여러모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개개인의 다른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 차이를 극복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 하나만 사이에 두고 있으면 각각의 다름은 또 다른 배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깨달았다. 책을 읽으며, 아니 책을 읽을 수 있으면서 가지게 되었던 내 삶의 결핍,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선물이었다. 앞으로도 도서관은 책으로 상처 받았던 나의 허기진 마음을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태아가 뱃속의 양수 속에서 최고의 편안함을 유지하듯이 나는 도서관에서 내 마음의 안정을 찾았으니까. 그것이 내가 도서관에 가는 이유이다.

|가작

## 예기치 않은 바람- 구원

김은형 대구 수성구 시지동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빨리 더 읽고 싶어요.” 몇 주 전부터 그동안 읽어 왔던 <세계 문학 산책> 4권을 마친 기념으로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우리 모두 책과 사랑에 푹 빠져 버린 듯하다. 한 달에 한 번 하던 독서모임 ‘느티나무 정원’을 예정에 없이 연거푸 3주째 계속하고 있으니 말이다. ‘열하일기’ 낭독을 통해 그 시대의 인물들과 삶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과 우정이 더 자라고 있는 걸까?

나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 독서 모임을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간다. 4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7명 대구의 시지 아줌마들이 밤을 환히 밝히면서 늦깎이 학생들 보다 더한 열정과 기쁨을 맛보고 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함께 읽고 있는 책은 소설가 이문열이 편집한 『살림』 출판사의 <세계 문학 산책>이다. 책은 모두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작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편들을 뽑아서 주제 중심으로 나누어 만든 책이다. 벌써 4권을 끝내다니 감회가 새롭다. 한 권의 책이 끝날 때마다 책거리 식으로 뭔가 다른 재미있는 일을 하자고 해놓고선 딱 한 번 아는 교

수님을 모셔 와서 강의를 듣고 그 이후론 한 번도 색다른 일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요즘엔 정말 재미있는 ‘열하일기’를 하고 있어서 그동안 못했던 것이 아쉽지만은 않다.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사건이 요즘 나에게 더할 수 없는 삶의 희망을 가져다주는 책모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기적처럼 여겨진다.

2013년 4월, 남편의 학업 때문에 미국에서 2년 여간 체류하게 되었던 우리 가족은 얼마 남지 않은 미국생활이 아쉬워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다. 그 날은 비가 오락가락 내렸지만 우리는 아이들과 요리조리 비를 피해 가며 놀이공원에서 놀다가 해 질 무렵 돌아왔다. 놀다 온 피로감이 극심해서였는지 아이들과 나는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자고 있었고, 남편만이 조심스레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자다가 뭔가 이상해 순간적으로 눈을 떴는데 숨을 쉬기가 곤란하고 허리와 다리가 무척 아팠다. 큰 소리로 남편을 불렀는데 그는 차 문밖에서 울면서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먼저 남편에게 나를 조이고 있던 안전벨트를 풀게 하고, 정신없이 뒤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부터 안심시켰다. 어느새 왔는지 구급대원들이 차에 끼어 쥘 내 내 다리를 빼서 편 후 우리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었다.

남편은 장 파열로 인해 바로 그 날 응급 수술에 들어갔고 나는 다음 날 왼쪽다리 대퇴골절로 인한 수술을 받게 되었다. 다행히 아이들은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를 맨 덕분에 하루 병원에서 자고 별 탈 없이 퇴원을 해서 이웃집에 가게 되었다. 한 병실에서 남편과 나란히 누워 있던 그 일주일일이 왜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는지, 비싼 병원비 때문에 남편은 바로 퇴원을 하고 나는 재활병원에 가서 열흘을 더 있었지만 오래 있지는 못했다.

그동안 함께 정을 나누었던 한인공동체 분들과 미국 현지 분들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남은 삼 개월을 집에 갇혀서도 잘 보냈지만,

마음 깊은 곳의 고독과 눈물은 다 위로받을 수 없었다. 몸의 부자유는 생각했던 것보다 마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수시로 우울해지고 현재의 삶이 너무 외롭고 갑갑하게 느껴졌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함께 다쳐서 고생하고 있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내색하기도 어려웠다. 그 와중에 다치지 않은 줄 알았던 딸도 다리 수술을 하게 되어 우리 집은 그야말로 야전 병원을 방불케 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좁은 방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일뿐이었다. 그나마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책을 읽는 일이었다. 오래전 공공도서관 재고세일에서 사두었지만, 영어라는 이유로 처박혀 있던 책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다 내 눈에 띄게 된 한 권의 책, 그 책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생수업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엘리자베스 퀴블로스(Elisabeth Kübler-Ros)박사의 자서전적인 책 “The wheel of life: Memoir of living and dying”이라는 책이었다. 온 가족을 함께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사고체험 때문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에 천착해 있었다. 이 책은 이런 나의 감정을 위로해줌과 동시에 삶의 비극성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책 표지에 그려져 있던 호랑나비가 내 삶에도 사뿐 내려앉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후로 내세의 삶, 안락사에 관련된 책들을 몇 권 더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다 휠체어를 타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립던 곳이었지만 다리가 편치 않아 바로 직장에 복귀할 수 없어서 다시 6개월의 휴가를 더 내고 쉬게 되었다. 시간이 너무 무료하고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마음이 잡히지도 않았다. 하는 일이라곤 규칙적인 운동과 소소한 집안일 몇 가지였기 때문에 시간은 많았지만, 여전히 내 맘은 어둠

속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외로운 나를 방문하러 온 지인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좋아하는 책을 함께 읽자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지인의 도움으로 첫 모임을 셋이서 하게 되었다. 우리는 당시 유행하고 있던 인문학 독서모임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처음 오신 분이 너무 부담스러웠는지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 우린 다시 둘이서 논의를 하면서 인문학이 어렵다면 일단 사람들을 책 읽자고 모아서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정하자고 하고 두 분을 다시 초대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었던 나는 이미 친구들과 독서모임을 하고 있다는 분을 소개받아 모임에서 읽고 있는 책과 진행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었다. 새로운 분들을 초대해 조언대로 설명하고 책을 권유했더니 흔쾌히 두 분이 함께 하시고 싶다고 하셨다. 그 이후에도 한 분, 한 분 더 늘어나서 지금은 7명이 함께 하고 있다.

그 누구도 독서모임을 해 본 적도 없고, 아이들 키우느라 모두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함께 미지의 세상을 열어가고 싶다는 열망으로, 그렇게 2013년 늦여름에 우리의 독서모임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독서모임에서라도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누구엄마라고 부르는 대신 나이와 상관없이 '00씨'라고 이름을 부르기로 했다. 또한, 그 누구의 이야기도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기로 했다. 수다는 우리 힘이지만 우리가 독서모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반드시 발제를 하고 그 발제를 토대로 만들어진 질문을 토의하고 넘어갔다.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개인사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 못다 한 수다는 카톡에서 이어가지만 아직 한 번도 맘을 상해본 적은 없다.

이렇게 나에게 힘이 된 독서모임을 돌아볼 때 오래전 김수영 시인이 절망이라는 시에서 “바람은 댄 데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라고 읊조렸던 것이 생각난다. 가장 절망의 순간에 나에게 다가온 책 속의 벗들, 그리고 함께 책 읽는 벗들이 이제는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 나의 구원이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되어가는 독서모임을 꿈꾸며 오늘도 나는 ‘열하’를 함께 건너기 위해 기분 좋게 땀 흘리고 있다.

## 내 인생의 지침서

김지선 부천시 원미구 중1동

얼마 전 친정 부모님의 이사를 돕기 위해 짐 정리를 하던 중, 책장에 먼지가 쌓여 있는 책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중에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써온 일기장, 고등학교 때 만든 학급일기, 독후감이나 글짓기 등으로 뒀던 상장들이 있었다.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도 해도 나의 꿈은 큰 책방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하루 종일 맘껏 읽고 싶은 책들을 읽고 누군가와 토론하고, 추천도 해주고 나만의 생각을 글로 쓰는 것들을 좋아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업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난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 생각했고, 책을 읽을 이유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입사 4년 차가 되었고, 전공도 아닌 분야로 취업한 탓에 난 항상, 스스로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으며, 그것이 곧 내게 화살이 되어 스트레스로 돌아왔고, 힘겹게 회사생활을 버텨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문득 지하철에서 문에 기대서서, 한 손은 지팡이를 짚으시고, 다른 한 손은 책을 들고 집중하며 읽고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냥 서있기도 힘들어 보이시는데, 저토록 열심히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무작정 나도 책 한 권을 사야겠다는 생각에, 퇴근길에 곧장 서점으로 향했다. 그리고 책을 고르던 중 그 저 책 제목과 뒷편에 쓰여 있는 글귀가 맘에 들어 책 한 권을 선택했다. 그것은 '당신은 꿈꾸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 앞에 놓인 오직 한 번뿐인 오늘을 살아가는 법! 빛나는 삶으로 이끄는 101가지 지혜의 샘'이란 글귀였다. 웬지 이 책에는 내가 원하는 답이 있을 것 같았고, 다 읽고 나면 현재 나의 삶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강한 용기가 생길 것 같기도 한 강한 느낌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손이 갔다. 그렇게 내가 선택한 책은 파울로 코엘료 작가의 '흐르는 강물처럼'이란 책이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책을 산 다음 날부터 출근길이 여느 때와 사뭇 다르게 느껴졌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책을 읽는 순간, 그 속에 빠져들었고 작가의 글에 공감하며 큰 깨달음을 얻기도 해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고, 위안을 얻어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건, 모든 건 그대로였는데, 출근길이 즐거워졌고, 회사생활이 이전과 180도 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난 콤플렉스로 인해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었는데,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들과 마음을 열고 어울릴 수 있게 되었으며,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하던 내게 갑자기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회사생활이 즐거워졌다. 그렇게 난 다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책에서 위안을 받고,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으며 전쟁터 같은 회사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책에서 용기를 얻고 위안을 얻어 다시 힘을 내며 회사생활을 잘 이겨냈다고 생각했고, 결혼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기쁨은 잠시였다.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곤 그때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2년 전, 4월의 벚꽃이 피고 있던 따듯한 봄날이었다. 일과 육아를 병행

하는 잘 나가던 워킹 맘이었던 나는 자상한 남편과 함께 사내커플로 모든 직원들의 부러움을 사며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었을 때 암 선고를 받게 된 것이었다. 그것도 간과 폐로 전이가 된 상태라서, 수술해 봐야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의사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나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하룻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며, 난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 혹여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건 아닐까? 다른 사람과 차트가 바뀐 건 아닐까? 등등.....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수술날짜가 점점 다가오면서 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에 힘들었던 회사생활에서 견뎌낼 수 있게 해주었던 그 책이 문득 생각났다. 그리고 집에 있던 그 책을 다시 한 번 읽기 시작했고, 신기하게도 몇 년 전에 읽었던 그 느낌과는 또 다른 느낌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책에 쓰여 있는 파올로 코엘료 작가의 이 글귀가 더욱더 내 마음에 와 닿았다. ‘두려워해도 됩니다. 걱정해도 됩니다. 그러나 비겁하지는 마십시오, 두려움과 마주하고, 근심의 순간을 뛰어넘으십시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는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용감하십시오, 의미 있는 것들을 위해 투쟁할 만큼 용감하십시오, 남들이 아닌 바로 나에게 의미 있는 그것을 위해.....’ 그리고 난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비록 수술이 두렵고, 수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나는 아직 모르지만, 나에게서는 강하게 버텨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친구, 친척, 지인들 등등, 그래서 난 강해지기로 마음먹었고, 2살 난 딸아이 곁에 살아 있을 수만 있다면, 뭐든 견딜 수 있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난 7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이겨냈고, 머리가 다 빠지고 체중이 10킬로 나 줄었으며, 후유증으로 걷지 못해 휠체어 신세도 지게 되었다. 9차레나

되는 끔찍한 항암치료도 버텨냈다. 그리고 기적처럼 난 건강을 되찾았고, 또 한 번 내 인생은 바뀌었다. 항암병동에서 만난 많은 분들과 생활하면서, 암 선고를 받기 전에 난, 남들과 비교하며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아이에게 더 좋은 장난감을 사 주기 위해 그런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전혀 달라졌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벌써 2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7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현재의 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하루하루를 내가 좋아하는 일과 해보고 싶던 일들에 도전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되면, 어린이집에서 4살 난 딸아이를 데리고 함께 걸으며, 조잘조잘 떠드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힘든 암 투병을 이겨 낼 수 있게 도와준 내 주위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받은 따듯한 위로와 용기를, 언젠가는 나도 나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다는 꿈도 갖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간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 줄 수는 없지만, 나에게 책은 앞으로도 인생에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지혜를 배우고 용기를 얻어, 조금 덜 후회되는 길을 가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영원한 지킴서가 되어 줄 것이다.



## 앉은뱅이 서재

김현숙 대구 동구 신서동

망설임이 길었다. 지극히 사소한 일도 미적대는 내가, 보란 듯이 작정을 해야 하는 일 앞에 섰다. 헤어지는 쪽으로 마음을 먹고 나니 지난 시간 가족들과 아웅다웅 벌여온 말다툼이 눈에 밟힌다.

방 한 칸짜리 신혼집에 각자의 살림살이를 부리던 날 무엇보다 처지가 곤란해진 것은 책이었다. 책을 침대 삼아 쓰게 생겼으니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했다. 결혼 전부터 모아온 남편의 정기간행물과 개인사가 남은 각자의 전공서적은 체쳐놓고 서로 겹치는 책부터 우선 속아내기로 했다.

하지만 그때 자신의 책이 이 집에 있어야 하는 빈틈없는 남편의 주장과 책마다 쏟는 그만의 애착심에 주눅이 들어 내 책이 주로 버림을 받았다. 나는 누렇게 변한 그의 책을 야금야금 버리면서 마음을 달랠다.

작은 서재가 생기고도 책의 형편은 여전했다. 일 관계로 매달 두세 권의 책이 새로 들어오고 간서치인 남편 덕에 생긴 책들이 서재의 반을 차지했다. 여기저기서 얻어오고 주워온 탓에 해마다 아이들의 책도 그만큼 쌓였다. 하지만 점차 그것들은 모셔야 할 대상이 되었고 핏기 없는 지식으로 남아돌았다. 흠집 없이 지키는 데만 목을 맨 탓에 서재는 울동성을

잃고 정물(靜物)이 되었다.

좁디좁은 골목의 막다른 집. 지금은 그 골목도, 굽은 길 끝에 몸을 숨긴 마당도, 끝까지 전환되기를 거부했던 아버님의 신념까지도 모두 밀려나고 겨우 번지 하나만 남았지만, 그곳은 영원한 내 정신의 근원지이다.

그곳에 집을 지을 당시 아버님은 그다지 넓지도 않은 마당 가운데에 당신의 뜻대로 화단을 만들고 영역이 없는 화단의 흙을 통해 이 집이 밖으로 뻗어 나가기를 소원하셨다. 흙을 놀릴 수가 없었던 어머님은 화단에 꽃이며 채소를 욱심껏 심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님은 ‘사람이 꽃에 매인다.’며 염려를 하셨다.

‘지국장님, 지국장님.’ 하면서 구독료 대신 늙은 호박전이며 동치미를 챙겨 신문지국으로 심부름을 다녔던 새색시 시절부터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그저 담담하기를 부탁했던 어머님의 마지막 모습까지, 그곳은 한 장의 사진처럼 내 머리와 가슴에 콧 찍혀있다.

신문지국을 이웃으로 모신 덕에 그 시절 아버님은 지방지 1부를 포함해서 중앙지 2부까지 탐닉하는 호사를 누리셨다. 아버님의 앉은뱅이책상은 마르지 않는 정보의 바다가 되었고 그 바다는 높은 파도에 한 번씩 흔들리긴 했지만 범람하는 일은 없었다.

아버님은 화단이 내다보이는 마루에 앉아 신문을 펼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 취미로 교육관련 기사가 실린 간행물을 모았고 기획기사, 영화관련 기사, 바둑기사 등을 스크랩하면서 아버님만의 특기를 개발하셨다. 해학이 깃든 만평을 골라 신간소개 기사와 함께 냉장고 문짝에 붙여두는 일은 나를 염두에 둔 아버님의 배려였다.

이 스크랩의 좀 특별한 점은 아버님의 정서와 위트가 담긴 주제가 붙어있다는 것이다. (만약 너라면, 단절감에 시달릴 때, 손자가 그리울 때,



마누라 나는 이게 먹고 싶소) 하는 식의 분류에서는 아버님만의 독자적인 분별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스크랩북은 아버님의 지극히 사적인 작업이지만 그 당시 우리 가족들에겐 한 권의 시집이었고 요리책이었으며 살아 숨 쉬는 공적자료집이었다.

깨알같이 박힌 신문 한자에 멀미를 하면서도 나는 아버님의 가위질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 일이 돌아가신 어머님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해드릴 수 없는 음식을 먼저 기사에서 찾을까 겁도 났지만, 무엇보다 아버님이 한꺼번에 허전해 하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었다.

아버님은 평생을 교육자로 사셨지만 돌아가시는 날까지 흔한 서재 하나 두지 않으셨다. 햇볕이 들어찬 마루에 나무책상을 가져다 놓으면 그곳이 곧 공부방이고 지식 공간이었다. 그 낡은 나무책상은 젊은 시절 아버님의 열정이 흡수한 지혜와 퇴임 후 마주 앉은 사색에서 얻은 체득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그것은 당시 내 관심사의 전부이기도 했다.

우리 집에 처음 서재가 생긴 날 아버님은 그 앉은뱅이책상을 가져다주셨다. 금방 입힌 옷칠이 반질반질했다. 무표정으로 서재를 훑는 아버님의 눈엔 이미 모닥불이 타고 있었고 뒷짐을 짊 손가락은 까닥까닥 춤추고 있었다. 그날 아버님은 경계가 없는 책을 통해 이 집이 밖으로 더 확장되기를 주문하셨다.

오늘 나는 아버님의 그 주문서를 찾아들고 개인사나 추억거리에 묶여 있던 집착의 끈부터 잘라냈다. 먼저 아버님의 분류방법을 빌려서 두고 읽거나, 버리거나, 이웃과 교환할 것 등으로 책을 구별해 나누고 책의 운명이 결정될 때까지 보관할 책장을 따로 만들었다.

서재에 부적처럼 붙어있는 각종 전집류와 현모양처의 길을 지향했던 실용서적에 미련을 걷어내고 마을 도서관으로 보낼 아이들의 창작동화집과

청소년 권장도서에 앉은 먼지도 닦았다. 애착을 두고 있던 큰아들의 책을 선별해서 박스에 나눠 담고 '몸이 독립했으니 이제 스스로 네 지적 세계를 구성할 때가 왔다. 너의 지적 독립을 허락한다.'라는 메모를 보태서 책 주인에게 부쳐버렸다.

그날 저녁 나는 베란다 창고에 모셔둔 앉은뱅이책상을 들어냈다. 고이 모신 덕에 도드라진 상처는 없었지만, 두부처럼 눌린 먼지에 무심한 주인장의 마음보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들러붙은 먼지를 박박 문질러 닦고 또 닦았다. 배움의 테두리를 제한하고 고정하려 했던 오죽잖은 내 태도가 묵은 먼지와 함께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면서.

## 우리가족 낭독 모임

박영화 대구 달서구 유천동

안개가 자욱한 어느 주말 아침 8시부터 식탁 앞에 네 사람이 웅기웅기 모여 앉아 읽는 책 소리는 마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곡과 같다. 거슬러 올라가 작년 겨울 어느 날 아늑한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조용한 골목카페에서 지인을 만났다.

그녀는 20년 이상 테니스 클럽활동을 함께한 친한 언니다.

커피 향 가득한 그 골목카페에서 독서를 테마로 하는 모임에 참여하자 는 제의를 받았다. 난 19살 때부터 줄곧 테니스에만 매달려 동적인 운동 만 하다가 이제 중년을 훌쩍 넘어 정적인 뭔가를 찾고 싶을 즈음 이 제의 는 너무나 절묘한 기회였다.

중·고등학교 시절 한때 책 읽기를 좋아했고, 시를 사랑하던 문학소녀 의 꿈을 상기시키며 나의 가슴은 그 시절로 돌아가는 듯 벅차오르기 시 작했다.

참여한 독서 모임은 매달 새로운 책을 공동 구매해서 매주 한 번씩 커피를 마시며 독서와 토론을 하는 모임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낭독”에 관한 책의 저자 김 작가를 만나면서 묵독에서

낭독으로, 새로운 낭독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 다. 낭독의 방법은 무조건 소리 내어 읽어라. 혼자서 읽기 어려운 두꺼운 책이나 고전 책같이 읽기 힘든 책들만 골라서 읽어라. 그리고 여럿이 돌아 가면서 낭독을 하게 되면 책을 완독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두엽이 활성화 되어 뇌세포가 살아나고, 뇌세포가 살아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치매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등이 골자다.

묵독은 대충 읽어 내려가는 경향도 많고 그래서 완독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낭독은 글을 놓치지 않고 푼박푼박 소리 내어서 읽어야 하는 특성상 묵독과는 천지 판판이었다.

집에서 혼자 소리 내어 매일 30분씩 읽었다. 한 달이 지나자 어둔했던 발음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속도나 호흡에도 리듬이 생겨나는 기분이었다.

이것이 “낭독” 저자가 말한 두뇌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 낭독의 효과 가 발휘되고 있는 것일까?

그때부터 나는 상상을 했다. 우리 가족이 모여 낭독하며 토론하는 아름 다운 광경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어떻게 가족들을 설득해서 낭독할까 고 민에 빠졌다. 각자의 성향과 성격이 다르기에 선불리 말을 꺼냈다면 처 음부터 실행도 못해보고 낭패를 당할 것이 뻔하였다. 일단 일대일 공략 법을 생각해 본다.

요즘 한창 사업에 바쁜 신랑, 근엄함과 카리스마가 있어 붙은 별명 이 염라대왕이다.

나 혼자 한 달간을 낭독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귀동냥했을 것이 다. 신랑에게 질문을 던졌다.

우리 가족 모두 모여서 함께 낭독을 하면 참 좋겠지요?

응, 그야 좋긴 한데 하며 대충 얼버무리고 자리를 피하는 느낌이었다.

신혼 때 일이다. 식사 중에 밥숟가락을 든 채 책만 보기에 보던 책을 빼  
아 버렸더니, 다혈질 신랑이 식탁 위에 있던 김치 그릇을 천장으로 던  
지자 김치가 천장에 달라붙어서 닦는 데 애를 먹은 에피소드도 있었다.

그때는 이미 독서광으로 일 년에 백 권 이상 책을 읽지 않았을까? 요즘  
엔 휴대전화기로 자나 깨나 폰 속에서 묵독을 한다.

그런 신랑이 가족이 모여 낭독하자고 제의하는데 옆방으로 도망을 가  
다니 역장이 무너진다.

그리고 우리 집엔 연년생 딸만 둘이다.

큰 공주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체력과 운동신경이 좋다는 이유로 테  
니스 선수를 시작했다.

운동을 마치고 지쳐 집에 돌아온 딸에게 가끔이라도 책읽기를 권했다.  
그 당시 책 한 권 읽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든 것 같았다.

오죽했으면 책 한 권 읽는데 오만 원 준다고 했을까? 그 당시 오만 원  
을 쥐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했다. 이전 어엿한 숙녀가 된 큰  
공주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어느 날 가족 낭독에 대해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얘기하면서, 덧붙여 언니가 응하면 동생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겠느냐  
하면서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책을 그냥 보는 것도 귀찮은데 소리를 내서 읽어요? 싫어요! 하면서 단  
번에 거절당했다.

이제 막내 공주에게 희망을 걸어본다.

설명할 힘도 없어 거두절미하고 가족이 모두 모여 낭독을 하려고 하는  
데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더니 단칼에 거절당했다.  
그리고 본인은 스스로 책을 알아서 틈틈이 읽고 있는데 난데없이 낭독이  
라니요? 하며 불멘소리를 한다. 사실 막내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만화방,

서점 단골이다. 학교 갔다 오는 길엔 항상 옆구리에 책을 끼고 다녔고, 고  
등학교 댄 학교에서 다독상도 받았으니 큰소리칠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강한 제의엔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가족 모두에게 거절당하고 나니 허탈감과 배신감에 화가 치밀기 시작  
했고, 흥분이 극에 도달하자 책상 위에 있던 책들을 마구 방바닥에 던져  
버렸다.

내가 상상했던 꿈과 희망이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었다.

속상하고 답답한 나머지 한없이 소리 내어 울었다. 딸들도 덩달아 따라  
온다. 순식간에 울음바다를 이루고 “엄마 다신 안 그러겠어요” 하는 소리  
가 귓가에 들려왔다.

나는 간절히 기도했다. 가족이 화합해서 낭독할 수 있게 희망과 지혜를  
달라고. 그러던 어느 날 막내 공주와 다시 대화를 시도했고 낭독의 필요성  
에 대해서 차분한 말투로 설득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막내 너만 참여해  
주면 모두 동참할 거라고 했더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역시  
대화의 소통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그날, 유난히 창밖의 별들이 반짝이고 빛난 이유는 막내 공주가 징검다  
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일까?

어차피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듯 모처럼 가정에  
도 소낙비가 지나가고 무지개가 떴다.

추운 겨울밤 군고구마를 먹으며 우리 가족 모두가 모여 앉았다.

드디어 옆라대왕이 슬슬 나서더니 감투를 정해 주었다.

엄마는 총대장, 큰 공주는 차 담당, 막내 공주는 팀장, 신랑은 경비 담  
당,

팀장은 매주 한 번씩 우리 가족 카톡방에 낭독공지 글을 올려야 하고 큰

공주는 시작 전 미리 차를 준비한다. 책 선정은 가족 모두가 함께 선택하고 시작하는 날 기념으로 경비 담당 신랑이 치킨 한 마리를 쓰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씨름해 오던 “가족 낭독 모임”이 탄생했다.

처음엔 낭독의 입문과 효과에 관한 책 두 권으로 시작했다. 한 달 동안 소리 내어 두 권을 낭독한 뒤에서야 가족들의 눈빛에서는 여유로운 자세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처음의 딱딱하고 어색한 분위기에서 이젠 스스로 즐기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얼마나 기다렸던 일인가? 매주 휴대폰에서 ‘카톡 카톡’ 소리가 울러 퍼진다. 막내 공주가 보낸 낭독공지 문자다.

‘낭독모임공지’

금주 낭독모임은 0월 00일 토요일 오전 0시경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변동 사항 발생 시 사전에 공지 부탁드립니다.

겨울이 지나고 우리 가정에도 봄날이 왔다.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가족 모임에서 엄마가 좋아하는 시집을 낭독하는 제의가 들어왔고, 동네 서점으로 함께 나들이 가서 각자 한 권씩 원하는 시집 4권을 구입했다.

문득 다산 정약용의 시 구절이 떠오른다.

“은 세상에 무슨 소리가 가장 맑을까. 눈 쌓인 깊은 산 속의 글 읽는 소리로세.”

우리 가정에 글 읽는 소리로 낭자하던 중 이웃에서도 슬슬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오월 어느 날 이웃과 동네 어귀에 있는 카페에서 독서 얘기로 대화를 나누던 중, 막내 공주가 보낸 카톡 공지를 보여주며 가족 낭독 모임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 가족들을 꼭 한번 초대해 달라고 제의를 받았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시간의 변화 속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가는 우리 가족들, 이제는 먼 미래를 꿈꾼다.

훗날 딸들이 출가해서 새로운 가족이 생겨나면 자연스럽게 참여자가 늘어날 것을 상상해본다.

낭독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각종 인문서의 완독은 물론이고 가족 모두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진 지금, 소통의 즐거움과 가족 사랑을 느끼게 되고 자신과 가정에 나아가 이웃과 사회로까지 가족 낭독 모임이 파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 나의 지나친 꿈일까?

## 허기진 내 영혼

박지수 경북 영양군 영양읍

가슴에 논바닥 갈라지듯 “영혼에 허기”를 느꼈던 난 틈틈이 책을 읽어도 성이 차지 않았다. “주독야독”에 내가 요래 본격적으로, 맛이 간 건 우리 아이들 다 커서 나가고부터였다. 절간같이 우리 집에 고요가 시작될 때부터, 봄바람 빨랫줄에 빨래 살랑거리듯 책장은 한 장 한 장 넘겨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십여 년은 책 속에 묻혀 살았는가 싶다. 내 입에 밥 퍼 넣는 시간도 아까운데, 때마다 밥 타령하는 남편이 더 미웠다. 어디 멀리 가서 아무도 모르는 도서관 옆에 나 혼자 방을 얻어놓고 배부르도록 책 좀 실컷 읽고 싶었다. 별거를 할까 이혼을 할까 하고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한 적도 있다. 언제나 그랬지만 지금도 도서관에 와서 책을 고를 땐 가슴이 설렌다. 이 책 속엔 저자의 어떤 깊은 사상이 녹아든 무한한 세계로 나를 끌어줄까 하고, 난 영양도서관을 보면 고마워서, 너무나 고마워서 절이라도 꾸뻑하고 싶다.

늘 아들들만 우선이었고, 같은 자식이라도 편애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 잘난 전통, 유교사상. 그 시대가 요구하는 여자들의 삶을 책을 읽고 서야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고, 가슴에 쌓인 응어리도 풀어지게 되었고, 남

존여비사상이, 왜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앞장서 무너뜨렸으며 가부장제, 호주제가 폐지되고 남녀 평등주의로 가고 있는지, 6.25전쟁 직후에 태어난 나는, 우리 한국이 왜 그토록 못 먹고 못 살았는지. 유럽이, 미국이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사는지. 작은 우리나라도 오천 년 역사인데, 온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가장 강국이란, 미국이 어떻게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되는지, 내가 궁금한 건 뭐든 독서로 풀어가고 있는 중이다. 만약 내가 독서를 하지 않았다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먼 나라로 가셨지만, 지금도 나는 엄마를 원망만 하고 살 것이다.

1954년에 태어난 나는 10남매 중 다섯째 딸이다. 늘 아들들에 밀려 공부할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공부가 하고 싶었다. 내 가슴 저 밑바닥에는 딸로 태어난 설움과 응어리만 점점 쌓여갔다. 낱아달라고 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닐 것이다. 어느 날인가부터 세상에 던져진 천덕꾸러기 내 신세가 한없이 가엾고 슬펐다.

나는 동아전과를 가지고 공부해 보는 게 소원이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갖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사주지 않았다. 초등학교 6학년 어느 날, 수업시간에 양복 빼입은 신사가 교실로 들어섰다. 동아전과와 표준수련장을 꺼내 든 신사는 그 책들이 공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곤 삼 일간 여유를 줄 테니 필요한 학생들은 부모님 설득해서 책을 받아 가라고 했다.

엄마가 안 사준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얼른 뛰어나가 동아전과와 표준수련장 두 권이나 받아들고 들어왔다. 그렇게나 갖고 싶었던, 내게는 보석보다 소중한 책이었다. 집에 들어가니 엄마가 이불까지 덮고는 끄끄 앓고 계셨다. 다음 날 아침에 엄마가 내 책 보따리를 확 빼앗아 내 던지며 “학교 가지 마.” 하고는 동생을 내 등에 업혔다. 또 다음 날 아침



에도 엄마가 짜증섞인 목소리로 책 보따리를 뺏어 내던지며, 오늘은 일하는 눈에 새참을 내오란다. 삼 일째 되는 날 아침, 하는 수 없이 무거운 책 두 권을 책보자기에 넣었다. 책을 돌려주기엔 너무 아쉬워, 울면서 학교에 갔다. 수업시간에 그 신사는 책을 들고 머뭇거리고 있는 내게 이틀간 더 시간을 주겠다고. 좋아 죽는 줄 알고 필쩍 뛰었다.

또 무거운 책 보따리를 허리에 둘러, 십리 길을 걸어 집으로 오는데 엄마가 저기쯤에서 포대기로 동생을 들쳐 업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막내 남동생이 아파서 병원엘 간다고 집 잘 보란다. 아픈 동생이 걱정되기보다는, 미운 마음이 더 들었다. 왜 하필이면 지금 아파서는…… 집에 와서 숙제를 하는데 오늘 배운 산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다. 푸는 방식도 답도 모르겠다. 엄마한테 어떻게 조르면 책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느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놓치고 말았다. 전과를 보면 방식과 정답이 나와 있을 텐데. 뒤져볼까 말까 몇 번을 고민하다가 혹시 못 살지도 모르는데. 손때를 묻힐까 봐, 책 주인이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아, 결국 한 장도 들춰보지 못한 채 숙제를 했다.

별도 없이 킁킁한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엄마는 돌아왔다.

아버지가 엄마와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자는 척하고 들으니 내일 이른 새벽에 우시장에 소를 팔러 가신단다. 내가 아는 우리 오빠는 공부하고는 적성이 안 맞는 사람이다. 당시엔 중학교에 가려면 시험합격을 해야 진학할 수 있었다. 도시에 있는 일류도 이류도 아닌 삼류 중학교에도 일, 이차다 낙방하고는 논 팔아 뭉치돈 들이밀고 뒷문으로 들어갔는데 또 뒷문으로 나왔다고 한다. 가만히 들어보니 뭉치돈 만들어 어디다가 들이밀고 또 오빠도 밀어 넣을 참이다. 나는 샘이 나서 분통이 터졌지만, 내가 아무리

화난 척해도 씨알도 안 먹혔다. 당장 죽는다 해도 별로 아쉬워하지도 않을 것 같다. 아버지도 걱정이 깊은 듯, 식구들은 하나같이 서로 눈치만 볼 뿐 쥐 죽은 듯 조용하기만 하다. 엄마는 우리한테 저승사자 같았다. 막내 남동생만 아프다고 계속 업고 있었다. 말할 분위기도 아닌 것 같아 내 속은 점점 더 타들어 갔다.

책을 돌려줘야 하는 마지막 날 아침이었다. 학교 가려고 책을 모두 책보자기에 싸고는 아픈 남동생을 품에 안고 누워 있는, 엄마의 베개 머리맡에 가만히 앉았다. 지각할 거라 생각하고 눈치를 보고 말하려는데, 논 팔아 뭉치돈 묶어, 밀어 넣었는데, 뒷문으로 빠져나온 오빠 때문인지, 아픈 남동생 때문인지, 엄마가 울고 있었다.

엄마에게 결국 책 사달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늦은 시간에 허겁지겁 뛰어 학교 운동장에 들어서니 종 치는 소리가 났다. 얼른 교실에 들어가서 첫 교시 책을 꺼내놓고 선생님 들어오시길 기다리는데 내 옆에 짝이, 글썽 둘째 시간이란다.

소중한 그 무엇을 놓친 듯, 빼앗긴 듯, 나는 그렇게 책을 돌려주고 말았다. 서러운 마음에 당장에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축 처진 채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며 책을 읽으라고 하셨다. 한 글자 읽으려고 입을 떼는 순간, 목구멍까지 차있던 설움이 왈각 눈물로 쏟아졌다. 꺾꺾 울면서 책 읽는 나를 보고 선생님은 그만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면서 반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책 내용에 감명을 받아 우는 것이라고. 마침 책 내용이 효심이 깊은 딸이 아픈 엄마를 걱정하는 내용이었다.

그날 학교에서 돌아와 집 마당에 들어서니, 어디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학교 가고 싶어, 친구들과하고 고무줄놀이하고 싶어, 내 등에서 안 울

고, 잘 노는, 동생 엉덩이를 손톱으로 꼬집어 올려놓고는, 엄마 치마폭에 내려주던 동생도, 이젠 우리 집 어디에도 없었다. 숙제하는 데 방해한다고 발로 훅 밀어제쳤던 동생도, 하필, 지금 아파서, 책 못 산다고, 미워하던, 막내 동생이, 다시는 볼 수 없었다. 문틈으로 살짝 보인 방 안에서 엄마는, 막내 남동생 옷을 가슴 가득 끌어 앉은 채, 열 손가락으로 방바닥을 긁어대며 목울음으로만 꺾꺾거리고 있었다.

그토록 갖고 싶었던 동아전과와 표준수련장. 그렇게나 소원했지만 학교를 마칠 때까지 그 책들은 끝내 내 손에,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 상급학교도 몇 번 시도해봤지만 요기서 땡이다. 하지만 난 공부가 재미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도 나는 이해를 못한다.

지금은 어떨까? 자기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걸로 안다. 숙식을 제공하는 직업학교도 능력껏 갈 수 있고, 우수학생은 지자체와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나 국가에서 등록금 용자도 받을 수도 있다. 졸업하고 사회 나와서 자기가 벌어들인 돈이 없어도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한다는 것은 공부하기 싫은 핑계일 것이다.

나라살림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요즘 세대들, 특히 가방 들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나는 살짝 배가 아프다. 나는 왜 요즘 시대에 태어나지 못했는가 하고 말이다. 요새는 흔해빠진 참고서와 문제집이지만 나에게는 그조차 쉽사리 허락되지 않았다. 그토록 갖고 싶었던 동아전과와 표준수련장. 아직도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내 두 눈엔 눈물이 난다.

내가 죽어, 만약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난, 꼭 공부에 승부를 걸어 보고 싶다.

가작

## 빛을 갇는다

박혜자 부산 강서구 명지동

생각과 행동이 느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짓는다는 소식에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동네 곳곳에 붉은 글씨의 결사반대 현수막이 걸렸다. 과부와 고아와 힘없는 자의 편에서 그들을 도우려 했던 정의의 사자 ‘돈키호테’ 생각이 났다. 돈키호테가 현수막을 봤더라면 칼로 내리치며 반대를 하는 사람들과 한판 싸움을 벌였을 것이다. 나는 돈키호테만큼 정의롭지도 용기 있지도 못했다. 그렇다고 방관자일 수도 없었다. 나는 다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흥얼거리며 사람들 주위를 맴돌았다.

따뜻한 바람이 불자 뽕뽕 얼었던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 너그워졌고 학교도 완공되었다.

결사반대 현수막이 있던 자리 근처에 ‘주민들과 소통하는 학교, 주민들에게 학교 도서관을 개방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아파트 게시판마다 학교 도서관을 개방한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도서관을 개방한다는 글보다 더 크게 내 눈에 들어오는 글이 있었으니 그것은 도서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글이었다.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했다. 언제부터 봉사할 수 있느냐는 말에 당장이라고 말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꾹, 하고 웃는 소리가 났다. 도와야 할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상대를 향해 달려드는 돈키호테는 그것이

풍차든 호랑이든 가리지 않았다. 오직 도와야 할 대상만 생각했다. 내가 돈키호테의 그림자를 따라 걷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셋째 딸로 태어난 나에게 아버지는 은혜 ‘혜’에 아들 ‘자’, 혜자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내 이름에는 은혜로운 자식이 되어 남동생을 보게 해 달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하지만 나는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유난히도 나를 냉대하셨고 아버지는 대놓고 쓸모없는 계집애라고 부르셨다. 남동생이 아니라 여동생을 본 것이 이름값을 못한 내 탓처럼 느껴졌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우울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말이 없어졌고 누가 내 이름만 불러도 깜짝 놀라서 얼굴이 발강게 달아올랐다. 남의 눈치를 살피고 주눅이 들어 친구들과 잘 사귀지도 못했다.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에 가는 것만 빼고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꽃이 흐드러지게 핀 햇살 좋은 날이었다. 원고지를 앞에 두고 하늘 구경을 했다. 칠판에는 ‘나무’라는 시제가 적혀 있었지만, 하늘에서 눈을 땔 수 없었다. 나도 구름처럼 자유롭게 떠다니고 싶었다.

수업을 마치는 종소리에 정신을 차린 나는 빈 원고지를 낼 수 없어 우리 집 벽에 걸려 있던 시를 따라 적기 시작했다. 푸시킨의 삶이었다.

‘생활이 그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적어낸 푸시킨의 시를 보고 선생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는 내 책상 위에 선생님이 삼국유사를 놓으며 말씀하셨다. “너 고전읽기 대회 나가보지 않을까?”하고.

대회가 있는 날이면 버스를 타고 읍내 학교에 갔다. 책에서 읽은 내용이

문제로 나왔기에 문제를 푸는 것은 그다지 힘들지 않았다.

문제를 풀고 나오면 선생님이 애썼다며 등을 두드려 주셨다. 왜 그리 눈물이 나오던지 나는 눈물을 삼키느라 애를 써야 했다. 터져 나오는 눈물을 꼭 참으며 선생님 뒤를 따라가면 선생님이 짜장면을 사 주셨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나도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나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때만은 나는 쓸모없는 계집아이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었다.

사촌 언니가 물려준 교복을 입고 중학교에 입학했다. 이름값도 못했기에 중학생이 되는 영광과 호사를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었다. 그런데 꿈에도 그리던 중학생이 되었고 장학금을 받아 별문제 없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직장의 배려로 야간대학도 다녔다. 기막힌 행운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세상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은혜는 꼭 갚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은 설거지였다. 설거지라면 대회에 나가도 상을 받을 자신이 있었다. 무료급식소에서 설거지한 지 이십 년이 되어가지만 나보다 빨리 그리고 깨끗이 설거지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빛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카드만 주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신용사회에서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은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교문을 들어서자 운동장 한 편을 차지한 노란 통학버스 세 대와 막 등교를 한 아이들이 보호자의 보호 아래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비틀거리며 힘겹게 현관을 향해서 걷고 있는 아이, 연신 침을 흘리는 바람에 턱받이가 흥건히 젖어 있는 아이,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연방 흔들거

리는 고개를 바로 잡으려고 애쓰는 아이, 괴성을 지르며 달려가는 아이.

과연 이 아이들이 도서관에 올 수 있을까.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리를 흔들며 뒹굴었다.

내 걱정은 정말이지 쓸모없었다.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걱정을 한방에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걸 도서관에 들어서면서 알았다.

아이들에게 도서관은 놀이터였다. 책이 있는 곳이고 책을 빌릴 수 있는 곳이고 책을 빌려주는 선생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앞쪽에 반별로 도서대여증이 꽂혀 있고 뒤쪽에 교직원과 주민들의 도서대여증이 있었다. 아이들의 도서대여증에는 사진이 붙어있고 그 밑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이들은 우르르 몰려와 자신의 반에 꽂힌 도서대여증을 모두 빼서 한 장 한 장 넘기며 서로의 도서대여증을 찾아주었다. 도서대여증에 붙은 사진을 보며 즐거워하고 도서대여증에 적힌 이름을 큰소리로 읽으며 행복해했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나 이외의 주민봉사자는 구할 수 없었다. 내가 월요일 오전과 목요일 오후를 맡고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나섰지만, 봉사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나는 틈만 나면 도서대여증에 붙어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이름을 외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아이들의 이름을 외울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면 아이들은 입을 벙긋거리거나 소리를 지르며 화답해주었다.

2층 도서관에서 계단을 올라 3층으로 가면 커피점이 있었다. 자활센터인 커피점은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실습실이었다. 봉사자들에게는 공짜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쿠폰이 있었지만 나는 사용하지 않았다.

내가 커피를 마시러 가면 희영이는 “도서관선생님, 도서관선생님,”하며 반겨 주었다. 내가 천 원짜리 한 장을 내밀며 “희영 바리스타님, 녹차라떼 주세요.” 하면 희영이는 계산표에 적힌 녹차라떼 옆에 온 팔에 힘을 주고 ‘1,000’을 정성스레 적었다.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 되면 앞다투어 도서실로 왔다. 그리고는 어른들이 읽는 매우 어려운 책을 빼 와서는 빌려 달라고 했다. 그때마다 나는 아이의 이름과 책 이름을 크게 불러주었다. 빌린 책을 금방 반납하러 오는 아이들도 종종 있었다.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일은 아이들에게 놀이였기에 나는 아이들과 하는 놀이를 즐겼다.

마음은 열리고 애쓰는 만큼 열렸다. 오전시간이면 유모차에 아기를 태운 새댁들이 책을 빌리러 와서 아기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책을 빌리러온 아이들이 아기를 만지면 엄마들은 살짝 얼굴만 찌푸릴 뿐 크게 싫어하지 않았다. 주민과 소통하는 학교가 도서실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어디서나 튀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막 걸음마를 떤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날씬하고 예쁜 엄마는 틈만 나면 놀이터 삼아 도서실로 와서 아기를 맘껏 뛰어놀게 했다. 도서관에서 저래도 되나 싶어 말리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아이들 곁으로 다가와 준 그 예쁜 엄마가 고맙기도 하고 행여나 기분이 상해 아이들을 나쁘게 말할까 걱정이 되어서였다.

그런데 급기야 일이 터지고 말았다. 아기가 책장에 부딪혀 팔꿈치가 살짝 까진 거였다. 아기는 도서관이 떨어져 나갈 듯이 울었다. 예쁜 엄마는 마치 도서관이 아기를 다치게 하기라도 한 것처럼 화를 냈다.

교장선생님이 달려오고 공부하던 아이들도 달려왔다. 교장선생님은 아기의 팔꿈치에 연고를 발라주며 정성을 다했다. 예쁜 엄마는 학교가 아

기를 다치게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날씬하고 세련된 옷을 입은 예쁜 엄마가 낡고 헤져서 너털너털해진 옷을 입은 초라하고 볼품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

예쁜 엄마는 도서실과 복도를 오가며 우는 아기를 달랬다. 보다 못한 내가 나서려고 하자 교장선생님이 내 팔을 잡았다. 소통은 한 쪽만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그 소통을 받아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크리스마스이브였다. 교장선생님이 산타복장을 하고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에게 과자 한 봉지씩을 주셨다. 나도 한 봉지를 받았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자를 혼자 먹을 수 없어 가족들과 나눠 먹었다. 우리 가족은 과자를 먹으며 멋진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일로 알고 읽고 감동하고 감탄하는 문학이 진정한 문학이라고 했다. 도서대여중에서 자신의 사진을 찾아 이름을 읽고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아이들은 도서관 속의 멋진 책이었다.

봄이 왔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교육청에서 도서사서를 지원해주었다. 책을 빌리러 가는 일 외에는 도서실에 갈 일이 없어졌다. 아이들을 만나려고 쉬는 시간에 도서관으로 갔지만, 아이들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다.

나는 학교에서 주는 감사장을 받았다. 감사장은 내가 세상에서 받은 은혜의 빛을 조금은 갚았다는 사면장이었다. 앞으로도 나는 빛을 갚는 일에 정성을 기울일 것이다.

세상에 감동과 감탄이 널려 있다. 나는 새로운 감동과 감탄을 찾아 보호자의 손길이 아쉬운 아이들이 있는 공부방으로 독서지도 재능봉사를 시작했다.

나의 빛 갚음은 오늘도 진행 중이다.

가작

## 책을 통해 만나는 마음

변선희 대구 북구 침산동

매주 화요일 오전이면 8명의 아이 엄마들이 모여 독서치료 모임을 한다. 독서치료는 단순히 책을 읽고 토론이나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며 스스로를, 혹은 독서치료를 함께하는 대상을 치유하는 책읽기라고 할 수 있다. 자전거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과 자전거를 타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나는 아주 좋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는 않지만 걸어 다닐 때와는 또 다른 자유로움과 상쾌함을 느낀다. 자전거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독서토론이라면 자전거를 타는 것을 독서치료라 할 수 있다.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신 것도 아닌데 이 특별한 책읽기 모임은 2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늦은 나이에 아들 쌍둥이를 가진 기쁨도 잠시 출산 후 얻은 병과 한꺼번에 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에 지쳐갈 무렵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냈다. 몇 년 동안 거의 집에서 지낸 탓인지 마음도 우울하고, 동네에 교류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터라 오전에 젊은 엄마들을 만날 기회를 찾아보았다. 대구 북부도서관에서 하는 독서심리지도 강좌가 눈에 띄었다. 그게 뭐하



는 수업인지도 모르고 오직 젊은 사람들이 듣는다는 이유로 신청했다. 이후 그 수업이 내게 가져다준 것은 전혀 뜻밖의 것이었다.

책을 읽을 때 비판적으로 읽는 습관이 있던 나는 수업에서 정해진 동화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었다. 뼈뚫한 시선으로 책을 읽고 강의에 들어갔는데 수업내용은 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책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었다. 어떤 책에서도 나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슬한 감정들을 드러내고 정화할 수 있었다. 내 문제를 객관화하고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어떤 책도 유익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훌륭한 수업이었다. 두 학기에 걸쳐 이 수업을 들었던 몇 사람이 시간이 맞지 않아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 아쉬운 마음에 시간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자고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바쁜 마음을 가라앉히고 느긋한 시선으로 일상을 바라보려는 마음으로 그 모임 이름을 “늘보회”라고 했다.

일주일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책을 선정하고, 발제와 발문을 준비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모임이 이루어졌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커다란 의미가 있었지만, 또 각자 자신의 순서가 되기 전에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소중했다.

내 경우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가족 이야기를 입 밖에도 낼 수 없었는데 마음 나누기를 하면서 조금씩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급기야 내 순서가 되었을 때 볼프 에를브루흐의 “내가 함께 있을게”와 마이클 로젠의 “내가 가장 슬플 때”를 얘기 나눌 책으로 정했다. “내가 함께 있을게”는 오

리가 죽음과 함께 지내다 조용히 죽음을 맞는 이야기이고, “내가 함께 있을게”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쓴 책이다.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자고 꺼낸 책들이다. 분노나 육아의 문제를 다룬 적은 많았지만 이런 주제는 무겁고 피하고 싶을 수도 있었는데, 이미 마음을 많이 연 상태여서 그런지 큰 거부감 없이 마음 나누기를 할 수 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언니 얘기를 하자 가슴속에 단단하고 묵직한 무언가가 물결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뿐만 아니라 일상에 덮고 지냈던 할머니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드러내며 슬픔을 나누는 친구도 있었다.

무슨 해결책을 바라고 책을 읽거나 마음을 나눈 것은 아니었다. 그저 마음속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꺼내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심오하지 않은 비교적 간단한 동화가 그 이야기를 나오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마음속 어두운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 그 문제가 나 자신과 분리되고 객관화될 수 있다는 것, 여러 명 앞에서 얘기해도 눈이 마주치는 단 한 사람의 공감만으로도 위안이 된다는 것, 이 모든 게 신기하고 놀라웠다.

모든 삶에는 기쁨과 슬픔이나 분노가 혼재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을 드러내면 그런 감정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서서히 엮어질 수 있고, 반대로 깊이 감추면 감출수록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처음 모임에 나갈 때만 해도 어둡고 무거웠던 마음 탓인지 시를 읽어도 아무 감흥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가을날 떨어지는 잎을 보고 ‘삶을 마치면서도 저 잎은 어떻게 저렇게 가볍게, 심지어 즐겁게 떨어지는가’하는 생각마저 하게 되었다.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리는 것처럼 가볍

고 상쾌해졌다. 이런 변화는 오직 마음을 열고 얘기를 나눈 “늘보회” 식구들 덕분이다. 지금은 사정이 생겨 이 모임을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 독서모임을 통해 가벼워지고 이렇게 글도 쓸 수 있게 되었다.

늘보회가 2년을 넘어가면서 모임 식구들이 타성에 젖지 않기 위해 독서 치료 자체에 대해 공부를 해보려고 고민하고 실천 중이다. 이 모임은 단순한 책읽기나 토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치유하고, 가족과 이웃의 관계를 치유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책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와 관계없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때 모든 책이 유익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고마운 만남이었다.

|가작

## 나도 이제는 한국 아줌마예요

부자유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부자유입니다.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태어난 내가 한국의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혼까지 결심하고 안양에서 새 동지를 트게 되었을 때 무지갯빛 사랑만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었습니다. 한국 남자의 여자로서 해야 할 어려움은 곳곳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내가 선택한 인생이다!’ 난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며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장벽은 소통하지 못하는 언어에 있었습니다. 한 마디는 쉬운 듯했지만 문장을 이해하고, 말하고, 쓰기까지의 시간은 너무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하여 내가 앞으로 한국에 살면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지요. 베트남, 내 고향이 그리워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늘 안아 주며 다독여 주는 남편의 말 한마디,

‘김부연. 너는 할 수 있어. 네 곁에 든든한 내가 있잖아. 하면 되는 거야.’

처음이 어려운 거지. 아자!’

그 말이 힘이 되어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수없이 나 자신에게 용기를 주며 방 안에 갇혀만 있던 나 자신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 저에게 책도 많이 사주었습니다. 책을 사주며 매일매일 읽으라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자신이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난 남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매일매일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 정말 한국말이 어렵다는 느꼈습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공부 했습니다. 내가 언어를 알아야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남편이 사준 책이랑 동화책을 다 읽으면서 공책에 수도 없이 써가며 공부했습니다. 어떤 때는 손가락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나는 이제 한국말을 완벽하게 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2학년이 됐는데 전국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책 읽는 엄마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 모습은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책을 무척 좋아합니다. 입학할 때부터 매일매일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우리 아이들한테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큰 아이가 책을 좋아하다 보니 우리 막내도 올해 세 살 되었는데 책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난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책을 읽어 줄 때마다 아이들이 옆에 앉아서 책을 보고 듣고 그 모습을 보면 매우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나는 이제 생각합니다.

‘책은 인생에 있어 나침반처럼 좋은 길을 가게 이끌어 주는 것이구나. 라고.

가작

## 인문학으로 밥하기

신 현 대구 달서구 진천동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제이다, 그것이 투명인간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가치가 있고 그렇게 실제 자체인 것이다. 투명인간, 그것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현상일 뿐이지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은 될 수 없지 않은가?/

치이- 치이익-

밥술의 밥이 붉은 전등을 깜빡이며 잘 익어가고 있다는 것을 소리로 알려준다.

언제부턴가 밥을 하는 사이사이 싱크대에 기대어 책을 읽거나 식탁에 앉아 독서노트에 글을 쓰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못해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사각사각 연필이 소리를 내며 글자를 만들어 내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존재, 가치, 실제’라고 적혀있는 단어들을 응시하며 입술을 움직여 소리 내어 읽어본다.

“존. 재/ 가. 치. /실. 제”

7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삼십 대 여자의 입에서 흔하게 쓰일 말은 분명 아니기 때문인지 내가 생각하고 쓰고 읽었지만, 단어가 주는 낯선 느낌이 차갑게 다가온다. 하지만 내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 끝

내 붙들고 있어야 하는 단 하나의 글자라도 되는 듯 절대적 단어로 각인되기도 하는 기분이다. 어느 책에서 보니 살면서 중요한 고요가 머리 위를 지날 때가 있다는데 그때가 지금의 순간은 아닌가 싶어 머리를 가지런히 다시 매만져 본다. 그리고는 펜을 들어 조금 전보다 좀 더 눌러서 다음 문장을 써 내려간다.

/자본이 나를 투명인간으로 만들더라도 세상이 나를 투명인간으로 보더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그래도 버젓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손을 내밀고 사랑을 노래하는 시를 쓰고, 살아 있기에 행할 수 있는 노동을 하고,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 책을 읽고 사이사이 존재가치에 대해 사유하고 사유하겠다. 왜 굳이 그러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답하겠다. 존재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제 그 자체이다./

마침표를 찍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잠시 생각을 해본다.

‘존재가치의 증명, 그것은,’

‘그것은.....’

독서노트를 응시하고 있다가 눈의 피로를 느껴 노트를 덮고 시계를 본다. 시계는 새벽 5시 26분을 지나가고 있다. 피로감에 잠시 눈을 감는다. 눈을 감으니 금세 짙은 어둠이 들이닥친다. 하지만 이내 다정한 벗님들의 밝은 얼굴이 그 짙은 어둠을 뚫고 내게 빗처럼 미소를 띠며 나타나니 어둠은 힘을 잃고 밝음으로 교차한다. 벗님들은 지금의 나처럼 이른 새벽부터 이달의 동아리 선정도서인 ‘투명인간’을 읽으며 밥을 하는 사이사이 열심히 독서노트를 채워가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꿈나라에 있을 아이들과 남편을 깨우기 위해 입을 맞추며 사랑의 빛을 나누고 있을까? 알알

이 반짝이는 금 구슬의 빛 주머니라도 가진 것인지 언제나 밝음으로 무장한 7명의 벗님들. 나에게 ‘리더’라는 호칭을 주고 ‘인문학적 그림책 읽기의 즐거움’이라는 동아리를 도원 도서관에서 함께한 지 어느새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 짧지도 길지도 않은 1년의 시간 동안 내 삶의 많은 것들이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 변한다는 건 어쩌면 두려운 것인지도 모른다. 안정적이고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낯설고 경험해 보지 못한 곳으로 넘어가는 과정과 같으니 말이다. 하지만 내게 있어 그 변함은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기쁨의 원천이고 서로가 서로를 고양하는 사랑의 투쟁과 같은 것이니 외려 기쁨 중의 기쁨이 아닐 수 없다. 내가 만든 동아리 모임을 통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삼사십 대 보통의 엄마들이 인문학적인 통찰력을 깨닫기 위해 두꺼운 철학책과 함께 어려운 인문서 읽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육아서 및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엄청난 양으로 많이 읽고 탐색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렇게 자신과 아이의 고유한 무늬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모두를 사랑하며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 우리는 ‘평범한 날들이 평범하기에 특별하다’라는 책의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경험 속에서 직접 깨달으며 보통의 멋진 오늘, 오늘들을 보내고 있다. 또 아이를 키우는 교육에서도 길들이는 방식이 아닌 길러내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세상이 원하는 답이 아닌 아이가 원하는 답을 아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고 정해놓은 틀 속에 아이를 끼워 넣으려 하기보다 아이가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 책과 함께 자연과 함께 사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런 우리 동아리 모임이 평범할지 모르나 모임을 이루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존재들은 비범하기에 모임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크거나 작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어제보다 더 나은 자신으로 책과 함께

매일매일 성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한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느껴지는데 며칠 전 동아리의 벗님들 중 한 분과 주고받은 sns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다.

“좋은 하루 보내고 있나요? 오늘 요리 수업을 배우는 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난번 동아리에서 읽은 그 책이 매우 좋아서 꼭 읽어보라고 추천했어요. 그러면서 신현씨 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지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어떠한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느 사람과 다른 답들을 줘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 동아리 모임에 들어갈 수는 없느냐며 다들 관심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중 한 분이 묻더라고요. 신현씨는 책도 많이 보고 아는 것도 많으니 혼자서 책 읽고 혼자 즐기며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텐데 돈도 주지 않는 그런 모임을 굳이 스스로 만들어서 혼자 어렵게 공부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의 대가도 없이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알려 주고 자료를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지. 한마디로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꼭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듣고 보니 저 역시 그 부분이 궁금해지고 그래서 또 새삼 고맷습니다. 바쁘지 않을 때 답장 바라요. 좋은 날 보내시고요”

제법 긴 글을 읽으며 그분의 진심과 동아리 모임에 대한 사랑과 나에 대한 애정이 깃든 궁금증들이 느껴져서 나 역시 진심과 애정이 깃든 긴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우린 저마다 하나의 우주와 같다고 지난번에 이야기 한 적 있지요? 우주는 엄청나게 크고 또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존재가치의 중요함을 조금도 모르고 사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 넓이와 깊이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 그런 걸 모른 채 평생을 그냥 살아간다는 건 좀 무서운 것과 같은 거예요. 찰나의 소중한 시간

을 영원할 줄 알고 그냥 허비하고 사는 건데 당연히 무서운 거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그냥 생긴 꼴대로 만 살다가 죽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냥 돌처럼 살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우주로 태어날 때 모두 다 한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이유 말이지요. 그런데 그건 나 혼자만 잘 살기 위해 태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만 잘살면 죽을 때 엄청 후회가 될 테니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잘살았다는 어떤 증명이나 증거 같은 게 전혀 없다는 걸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니까요. 여기서 증명, 증거라 함은 내가 이 세상에 잠시 살았었다는 것. 즉 내가 태어난 이유와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와 증명들은 내가 주장한다고 또는 증거를 남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 다음 세대 혹은 나를 나로서 기억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히 회자하여 기억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낱 먼지와도 같은 존재이기에 그 누구처럼 나라를 구하거나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하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나는 나라를 구하거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것들의 시발점은 바로 옆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내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 단 한 순간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존재라는 자각을 매일 깨어있는 정신으로 하고 있다면 내 옆에 있는 남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싶어져요. 그러면 나의 아주 미약한 이 도움으로 인해 남은 좋은 영향을 받고 그 좋은 기운을 남의 아이에게 전해주어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밑거름이 되게 하지요. 또 오늘처럼 남의 주변인들에게 좋은 책을 추천해주면서 나의 이야기를 회자하면 남의 주변인들 또한 다른 주변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그 영향으로 그의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 그렇게 남의 아이와 함께 그



모든 아이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하는 거랍니다. 그럼 그중 어떤 아이는 세계를 바꾸는 인물이 되기도 하고 나라를 구하는 인물이 되기도 하는 거지요. 그럼 내가 님을 위해 행했던 미약한 도움들이 나 비효과가 되어 엄청난 결과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겠지요? 작지만 행동으로 하는 타인을 향한 작은 도움의 일들이 지나고 난 후에는 곧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구한 일이 된다는 거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 세상을 구하는 건 구한 사람의 이름만 다를 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구한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랍니다. 작지만 옆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도움과 나 혼자만 잘살면 된다. 라는 이기심, 그런 것들을 버리고 타인을 향해 기꺼이 양팔 벌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도움을 주고 또 함께 나눌 때, 따뜻하고 소중한 기운들이 모여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나는 믿어요. 비록 돈을 쥐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내 배를 불릴 일은 아닐지라도 그 일이 이토록 엄청나고 또 소중한 것이라는 걸 잘 아는데 어찌 그것을 돈과 빚대어 저울질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향해 가는 길은 이미 있는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걷다 걷다가 뒤돌아보면 뒤에서 묵묵히 따라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지금 당장은 모든 일이 불분명하지요. 하지만 그래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미약한 그 일. 그 일이 어떤 단 한 명에게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이윤과 이득,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하는 거지요. 그때에 비로소 우린 위대한 일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한 발을 내딛는 것과 같은 게 되는 거랍니다. 쓰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질문에 만족하는 답이 되었길 바라요. 즐거운 오늘 보내세요.”

답장의 전송 버튼을 누르며 이러한 질문과 답들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도움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같이 어울려 지금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아

주 기쁘고 또 특별하게 느껴졌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은 경쟁을 부추긴다. 그 세상 속으로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쏟아져 걸어가기 바쁜 세월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모두가 가는 맹목적인 그 길에서 자발적으로 빠져나와 단독적으로 걷고 싶다. 그리고 타인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함께 나누는 것을 멈추지 않고 싶다. 그 일이 끝내 눈에 띄지 않는 일이 다 하여도 그것이 내 존재 자체의 부정은 아니니 말이다. 내가 오늘 아침, 지금 이 순간 엄마로 아내로 가족을 위해 밥을 짓는 일 또한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대단한 일은 결코 아닐 것이나 내가 지은 이 밥이 가족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고 오늘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게 하니 밥을 짓는 사소한 행위가 끝내는 한 생명을 생명답게 살리는 대단한 일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듯 밥을 짓는 것도 세상을 짓는 것도 작지만 사람의 가치 있는 사랑의 행동들이 더욱 많은 것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저 해 나가고 싶다. 그래서 내 아이가 살아가는 다음 세상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차별과 차이,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우리 동아리 방에서 어제보다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공부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빛 주머니를 지닌 7명의 벗님들과 함께라면 분명 가능하리라고 믿는다.

나는 덮어둔 독서노트를 다시 펼쳐서 남겨둔 한 문장을 확신에 찬 필체로 눌러 쓴다.

/존재가치의 증명, 그것은 사랑, 사랑, 그리고 사랑./

마침표를 찍으니 밥이 다 지어졌다고 소리를 크게 낸다.

빼이-빼이-빼이익-

## 도서관 할머니

신현주 서울 도봉구 창4동

20년도 훨씬 전의 일이었다. 그때 나는 커다란 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니던 작은 아이였다. 그날따라 유독 후덥지근한 날씨에 온몸은 습습하고,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다. 수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학교 종이 울렸다. 집에 갈 시간이다. ‘우산도 없는데 어떡하지?’ 꽃집 때문에 바쁜 엄마는 오지 못할 게 분명했다. 이미 친구들은 하나 둘씩 집으로 가고 없었다. 발을 동동 굴리던 나는 일단 학교 건너편에 보이는 작은 건물 1층으로 몸을 피했다. 그곳은 조그마한 도서관이었다. ‘도서관’이 어떤 곳인지 몰랐던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비에 섞인 낯선 책의 냄새가 확 몰려옴과 동시에 할머니 한 분이 나를 향해 걸어오셨다.

“밖에 비가 오는구나. 많이 젖었니? 일단 수건으로 좀 닦으렴.”

엄마는 모르는 사람과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웬지 그 할머니는 나를 해칠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직 책밖에 없었다. 꽃집에 있는 꽃

이 그려진 책, 내가 좋아하는 인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귀여운 책들뿐이었다. 나보다 훨씬 큰 책장이 온통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신기한 듯 바라보는 내게 할머니는 책 한 권을 건네주셨다.

“이 책 읽어봤니? 재밌는데..... 읽어줄까?”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나는 할머니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다. 그 날은 내 인생의 첫 도서관에서 책을 만난 날이었다. 그 풍경은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이후에도 틈날 때마다 도서관에 들르곤 했다. 책을 읽어주시는 할머니가 참 좋아서 학교에서 장래희망을 적어 낼 때 ‘책 읽어주는 할머니’라고 쓰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해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동안 나는 한동안 그 꿈을 잊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 도서관은 여전히 따스하고 편안한 곳이었기에 몸과 마음이 지친 날이면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가 자주 가던 도서관은 숲 속에 자리 잡은 도서관이었다. 그곳에 갈 때마다 봄에는 벚꽃이, 여름에는 초록 나무가,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겨울에는 하얀 눈이 반겨주었다. 책을 읽으러 가는 길 중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었다. 그렇게 도서관을 다니던 어느 날, 우연히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전혀 모르는 아이들 앞에서 잘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섰다. 그때 문득 어린 시절에 만났던 도서관 할머니가 떠올랐다. 도서관과 책이 우리를 이어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옛날의 따스한 기억이 나에게 용기를 주었고, 아이들과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 ‘어떤 책을 읽어줄까? 이 장면에서는 표정을 어떻게 해야 하지?’ 별별 고민을 하느라 밤에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다행히 나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이야기가 시

작되자 아이들은 책 속 이야기에 푹 빠졌다. 뒷이야기가 궁금해 죽겠다  
아이들의 표정이 매우 귀여워 계속 읽어주고 싶은 걸 참느라 혼이 났다.

계속 책을 읽어주다 보니 아이들과 더 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날씨 좋은 봄날에는 식물도감을 만들고 책 속 보물찾기를 하며 뛰어다녔  
다. 한여름에는 ‘숲 속의 그 녀석’이라는 그림책을 읽고, 숲 속으로 소풍을  
떠났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오소리, 늑대, 여우, 곰 등 책 속 주인공이 되  
어 열띤 연기를 펼쳤다.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가을에는 단풍잎으로 책갈  
피를 만들고, 아무도 없는 캄캄한 겨울밤에는 도서관에서 ‘군고구마 잔치’  
를 읽으며 노릇노릇 군고구마를 구워 먹었다. 설날이 다가오자 설날에 관  
한 책을 읽어주고 직접 떡국을 만들어보기도 했다. 훗날 이 아이들은 숲  
을 뛰놀던 발의 촉감으로, 친구들과 함께했던 웃음소리로, 책장마다 풍기  
던 냄새로 도서관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도서관을 할머니의 목소리로 기  
억하는 것처럼 말이다. 도서관 할머니가 뿌렸던 씨앗이 나의 마음에 심어  
져 이렇게 다시 아이들에게로 퍼지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보냈다. 그러  
는 동안 아이들은 훌쩍 자랐고, 나는 책을 읽어주는 일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어찌면 비가 내리던 그 날, 나에게 책을 읽어주었던 그 할머니는  
내가 이런 시간을 보낼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나에게 책을 읽어주며  
스스로 더 행복해하던 할머니의 미소가 생각난다.

나는 이제 어린 시절 꿈꾸던 장래희망을 이룬 어른이 되었다. 하나 더 욕  
심을 부려본다면 호호 할머니가 되어서도 지금처럼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도서관 할머니가 되는 것이다. 그 날을 위해 나는 오늘도 ‘흠흠’ 목소  
리를 가다듬고, 도서관을 누비며 아름다운 그림책을 찾아 떠난다.

|가작

## 두 사람의 책장

안재의 인천 남구 문학동

2014년 11월, 우리 부부는 서울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 몇 명만 초  
대해 간소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영등포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짐을 정  
리하면서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것은 바로 두 사람의 책장을 합치는 일이  
였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나름대로 추려온 책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책들  
이 있을지 기대되었습니다.

각자의 책 꾸러미를 펼쳐보니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과 생각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두 사람의 책장 안의 책들처럼 우리는 비슷한 듯 다르고, 다  
른 듯 닮아있었습니다. 책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몰랐던 지난날들  
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책 꾸러미에서 먼저 이룬 서적부터 꺼내 정리합니다.

남편은 음악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공연하러 다니다  
가 어떤 계기로 예술경영을 공부하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습니다. 저 역시 어떤 계기로 공연계에도 발을 붙이  
게 되었습니다. 어찌면 만날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는 남편과 저는 한 공

연기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짧은 연애만으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음악, 그리고 예술경영에 관한 책들을 차곡차곡 정리합니다. 그 외에 여행과 영어책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연주 공연을 다니던 시절, “음악이 좋기도 했지만 여러 곳을 여행할 수 있어서 더 좋았다”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종종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이젠 저도 함께 떠날 여행이겠지요.

그리고 제 책들도 남편이 아직 몰랐던 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저는 이 책들을 읽으며 만난 사람들과 나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줍니다.

\*

저는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은 아이였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엔 음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커서는 방송에 관심을 가졌고, 무대에서는 배우의 꿈도 가져보았습니다. 한때는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모험가가 돼보고 싶었고,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상담사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음악이 좋아서 이론과 악보를 열심히 봤고, 무대에 서 보고 싶어 대본을 찾아 읽기도 했습니다. 상담사에 마음을 뺏겼을 때는 심리학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책은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항상 좋은 면만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가끔은 싫어지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동안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다가 제가 선택한 것은 결국 영화와 공

연이었습니다.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나니 해야 할 일이 보였습니다. 저는 곧장 생각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팀을 꾸렸습니다. 우리 팀의 이름은 ‘낭비’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당장 무언가를 이뤄내자’가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해내기 위해 ‘짧은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아낌없이 쓰자’는 것이었습니다. ‘낭비’는 듣기에 좋은 이미지를 주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목표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청춘의 생산적인 낭비.

우리는 작품 활동도 열심히 했지만, 별개로 책을 읽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없다면 창조는 물론 아마추어 이상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경험과 배움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보면 지루하고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할지도 모르는 독서와 토론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의도하고 잘 됐던 것은 아닙니다. ‘낭비’안에는 감독도 있었고, 배우도 있었고, 뮤지션도 있었고, 기획자도, 직장인과 대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책을 읽어도 각자의 시각과 생각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종 자연스레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별것 아닌 사소한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심각한 주제가 되기도 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가 하려는 일들의 아주 기초적인 공부는 물론, 고전과 인문학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서로의 책을 교환해 읽고, 생각을 나누면서 인생 전반을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감독은 어떤 사람인가’와 같은 직

업적인 이해부터 시작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인지까지 각자 인생에 대해 나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거치고 나니 우리는 좀 더 견고한 생각과 자신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없어진 것이 그 증거입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 ‘낭비’는 각자 흩어져 갈 길을 갔지만, 그때 함께 읽고 나눴던 책과 생각들이 저에게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생각 없이 지나쳤던 누군가의 책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책을 읽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 책을 저 혼자 읽었다면 다른 누군가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내 생각만으로, 혹은 타인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답답하고 무지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남편과 책장을 합치는 즐거움도 몰랐을 것입니다.

\*

이제 소설책을 정리합니다.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은 분류해 책의 키순으로 꽂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 사랑 때문에 현대소설은 작가별로 다시 정리합니다.

남편은 즐거운 듯이 제게 〈상실의 시대〉를 읽으라고 추천합니다. 예전에도 몇 번이나 추천하기에 저도 이미 여러 번 읽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새 잊어버리고 또 추천합니다. 제가 남편 앞에서 그 책을 읽어야 남편이 기억해 줄까요? 제가 이미 〈상실의 시대〉를 여러 번 읽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남편에게 책을 추천하기로 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어떤 시상식 기사 중에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의 원점은 ‘프란츠 카프카’의 〈성〉이라는 작품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를 좋아한다면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도 좋아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 책 중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을 남편에게 추천해 줍니다.

이제 책장 정리가 끝났습니다. 정리해 놓고 나니 책들이 생각보다 많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닮은 듯 다른 것은 우리를 위한 말인가 봅니다. 이 책장 안의 책들처럼 우리는 많은 것이 다르고,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각자가 살아온 방식과 품어온 생각과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부딪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각각 개인이 아니라 한 부부로서 서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지내온 서로의 인생과 꿈을 존중해주고, 앞으로 함께 할 시간은 서로 배려해 주면서 지내기로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채워가야 할 이 책장이 1년 뒤,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 기대됩니다.

이제 우리 두 사람의 책장입니다.



## 아주 자그마한 꽃향기

오경희 대구 중구 남산동

‘통장 잔액들끼리 짝짓기해서 번식했으면 좋겠다.’ 아홉 살이 되는 예쁜 조카의 스마트 폰에 올라와 있는 글귀이다.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하는 그 아이가 어디선가 읽은 글이거나 기발한 생각일 것 같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아이의 꿈은 말 농장 주인이다. 제주도의 조랑말에서부터 이름난 경주마의 이름과 수억 원대의 몸값까지 줄줄 늘어놓는 그 작은 입이 설 새 없이 오물거린다. 어느 날, 친정집 마당 대추나무 아래에 파란 기와집이 한 채 생겼다. 시골 오일장에서 데려온 강아지의 집이다. 나뭇잎이 흔들릴 때마다 ‘누룽지네 집’이라고 쓰인 종이 문패가 강아지의 눈동자 속을 들락날락했다. “할머니, 우리 아파트에서는 누룽지를 키울 수 없으니까 할머니가 좀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 대신 제가 주말마다 와서 운동도 시키고 잘 돌볼게요.” 어미 개가 되면 새끼도 많이 낳을 것이고, 그러면 그 새끼들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망아지를 사겠다는 녀석의 야무진 설명에 친정엄마 마음은 벌써 초원을 달리고 있었다. 아홉 살 아이의 꿈보다 매주 손녀와의 만남이 더 기쁜 엄마의 설렘은 내 가슴에 머문 아주 자그마한 꽃

향기를 흔들어 깨운다.

내 아이 어릴 적,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책 읽어 주는 엄마’로 위촉되었다.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있는 동화를 알기 쉽게 뜻을 풀어 읽어주고, 아이들의 생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어 달라는 교장 선생님의 당부가 네모난 도장에까지 가득했다. 목격한 내 마음은 아랑곳없이 ‘○○초등언어창의력계발연구회’라고 쓰인 교재 표지에는 개구리 세 마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해 여름 ‘재미있는 이야기 나라’에서 만난 다섯 명의 아이는 아주 자그마한 꽃향기로 다가와 내 마음의 꽃밭을 곱게 단장해 주었다.

일주일에 두어 번, 우리 집 거실은 작은 교실이 되었다. 아이들이 오는 날이면, 콧잔등에 팜방울을 매달고 뛰어올 녀석들을 위해 간식부터 챙겼다. 떡볶이 두어 접시와 김밥 몇 줄이면 되는데도 마음은 늘 바빴다. 표현이 솔직한 광육이에게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가볍게 화장도 해야 하고, 교재도 머릿속에 넣어 두어야 했다. 오늘은 또 어떤 낯선 질문이 내 뺨을 물들게 할지 기다림마저 설레었다.

현관에 작은 신발들이 소복했다. 맨 마지막에 들어온 예지가 신발을 말끔히 정리하고 와서 앉았다. 애어른 같은 그 아이에게 유독 마음이 많이 갔다. 그날은 할아버지와 소녀가 등장하는 ‘아주 자그마한 꽃향기’라는 제목의 동화를 읽어줄 차례였다. “할아버지라는 낱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이나 모양을 말해보자.”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예지가 손을 들더니 “뽕빠레 아이스크림이요.”라고 했다. 순간 아이들이 와르르 웃었다. “선생님, 예지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가 봐요.” 다섯 녀석이 입을 모아 재재거렸다. 유난히 수줍음이 많던 그 아이의 오른손을 번쩍 들게 한, 할아버지와 뽕빠레의 사연이 몹시 궁금했다.

아이는 검은 비닐봉지에 들었던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아이스크림을 사 오셔서 저는 밥도 안 먹고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할아버지는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간다고 하셨는데, 열 밤이 더 지나도 오시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엉덩이에 주사 꽂 맞고 올 테니 잘 놀고 있으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네 살이었대요. 다정하게 웃으며 나를 꼭 껴안아 주시던 할아버지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웬지 그 아이스크림만 보면 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턱을 고이고 앉아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이 예지 곁으로 무릎걸음을 옮겼다. 왈카하던 아이들의 목소리에 한줄기 소나기구름이 지나고 있었다.

무지개가 떴다. 팔빙수 한 그릇을 후딱 비운 아이들의 얼굴이 눈부셨다. 예지의 등을 쓰다듬으며 ‘재미있는 이야기 나라’ 열네 번째 이야기를 펼쳤다. 탁자 위에는 아이들의 눈동자가 구름처럼 흐르고 내 목소리는 아이들의 마음속을 향해 천천히 노를 저었다.

“선생님, 어제 우리 외식했어요.” 묻지도 않은 어제 일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맡은 작은 이 역할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걱정스러웠다. 염려했던 마음은 굳어져 있었다. 아이들 간식 부담이라도 덜어 주고 싶다면 먹을거리를 보내오는 어머니들도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놀라운 표현이 가슴을 달뜨게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나라’라는 워크북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 속에 숨어 있는 수많은 나라를 만났다. 동심 속에 피는 꽃은 향기도 다르고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도 달랐다. 하나의 사물을 앞에 두고 수없이 이어지는 다른 느낌과 색다른 표현이 그저 놀라웠다. 하나의 이야기에 속한 여러 감각 체험을 해 나가는 동안, 아이들은 자기 생

각을 주고받으며 커다란 그림을 함께 그려나갔다.

고개만 끄덕이며 앉아 있던 아이가 이야기의 중심에서 또랑또랑한 목소리를 들려주던 그 기억 속의 하루가 책장 속에서 빠주룩이 고개를 내민다. 책 읽어주는 엄마 위촉장을 받던 날, 책 머리말에서 읽은 글귀가 어느새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 오롯이 녹아 있었다.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이고,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라고 한다. 그해 여름 아이들과 함께한 이야기 여행이 내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더 찬란하고 소중하다. 내 마음 밭에서 무르녹던 그 꽃향기들이 바람에 인다. 그 리움은 소리로 오고 빛과 맛으로도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그 아이들이 문득 보고 싶다.

# 책, 너는 내 꿈

우순옥 대구 달서구 대천동

아이 셋을 기르면서 나는 내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다. 둘째를 낳고 직장을 그만두었기에 거의 10년을 누구누구의 엄마로만 불렸다. 나도 나의 모습에 어울리는 이름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셋째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서 조금의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자 무언가 다른 활동을 해보고 싶어 하던 차에 달서소식지를 보고 달서독서대학 기본과정을 이수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독서'라는 말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다. 기본과정을 끝내고 심화과정으로 독서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도서관 관계자들이 수료자들에게 동아리를 결성해 활동해 보라고 권유해서 뜻이 맞는 몇몇이 모여 독서동아리를 결성했다.

처음에는 동아리를 만들어 무슨 활동을 할지도 모르면서 시작한 것 같다. 일단은 우리가 공부했던 독서심리상담 이론공부를 하고 그림책을 함께 보며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연구도 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했다. 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에게 독서활동 지도를 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공부와 봉사를 병행해 나갔다. 아동센터 수업은 공부했던 것과

는 다른 어려움이 많았다. 역시 이론과 실재는 다르다는 것을 알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책에 흥미를 갖기는커녕 책을 또 하나의 수업의 연장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미숙한 우리가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디 서부터 고쳐나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구청에서 하는 동아리 지원 사업 공고를 보게 되었다.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에게 딱 필요한 사업이라 응모하여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우리 동아리는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종이접기를 배우기로 했다. 나는 손끝이 아무진 편이 아니라 종이접기를 배우는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배우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14주 동안 꾸준히 노력한 덕분에 동아리 구성원 전부 종이접기 지도자 과정을 이수했다.

이즈음 동아리가 단체 재능기부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허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의욕과 용기만 가지고 시작한 일이다. 사실 우리도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였다. 달서구청에서 우리 동아리를 초등학교와 연계시켜 창의체험 수업시간에 독서 재능기부활동을 하게 되었다. 덜컥 수업을 맡아놓고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준비에 들어갔다. 우리 동아리의 멘토를 자청하신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의 이영미 선생님이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책들을 가지고 오셔서 지도해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셨다. 우리 동아리가 봉사할 목적으로 길을 찾으니 작가이자 독서활동 관련 학부모 강사인 선생님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책을 선정하고 시간을 배정해 시연도 해보고 독후활동을 어떻게 할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했다. 이렇게 떨리는 가슴으로 시작한 초등학교 재능기부 수업이 3년

책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좀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을 경험시켜 주고자 우리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수업이 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나은 수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 수업 일지를 작성하여 잘한 점, 잘 못된 점을 되돌아보고 있다.

5학년, 6학년 수업을 할 때 아이들에게 즐겨 읽어 주는 책이 있는데 『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이다. 1930년대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행한 Pack Horse Librarians 정책을 책으로 엮은 이야기인데, 도서관이 없고 학교 가기 힘든 산골짜기 아이들에게 말이나 노새를 타고 가서 책을 빌려주러 다니는 사서의 모습을 그린 그림책이다. 이 책에서 ‘칼’이라는 소년은 아버지를 도와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책에는 관심도 없고 아직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아이였다. ‘칼’이 책 아주머니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깊은 산골짜기까지 책을 전달하러 오는 모습에 감동받아 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책 아주머니의 헌신에 자신도 무언가 보답하고 싶다고 하니 책 아주머니가 ‘칼’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한다. 칼이 책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올 때면 교실의 아이들 누구랄 것도 없이 눈빛이 반짝이고 얼굴에는 미소가 번진다. 간혹 탄성을 저도 모르게 지르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 아이들 모습을 보는 일이 얼마나 내게 기쁨을 주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 책의 힘이고 이야기의 힘이다. 내가 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누리지 못할 행복이다. 교실에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이런 책 아주머니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학교에 재능기부수업을 하게 되면서 나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책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보고 어루만지면서 좀 더 소통해보고 싶

어서 요즘 청소년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꿈을 가지게 되니 공부가 힘들지 않고 즐겁기만 하다. 좀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나와 BOOK소리(BOOK으로 소통하는 우리) 동아리를 함께 하는 동료들이 있어 행복하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 가까이 있어 더욱 행복한 날들이다. 나는 책을 통해 얻은 지혜와 사랑의 힘을 나 한사람 이상의 행복을 위해 쓸 것을 기꺼이 맹세한다.

## ‘천향고’, 그 인연을 찾아

우순자 대구 달성군 옥포면

‘팽팽히 맞섰다. 굳게 닫힌 문은 때가 아니니 기다리라 말한다.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 고작 한 시간 때문에 각을 세우고 있다. 전망대를 보고 설악산을 가기로 했는데 가루비로 인해 패가 갈렸다. 기다려서라도 보자와 기다린들 이런 날씨는 볼 수 없다며 그냥 가자는 쪽과’

통일전망대는 9시에 개방한다. 차 두 대로 왔으니 망정이지 한 대였다면 어쩔 뻔했는가. 천 리나 되는 먼 이곳을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각진 상태에서는 남편과 함께 움직여야 할 것 같았다. 친구 여섯 명을 남겨둔 채 우리 여덟 명은 그곳을 떠났다. 그들이 기다렸다가 보고 내려올 동안 우리는 가 볼만한 다른 곳을 찾아야 했다. 이 첩첩산중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정표였다. 이정표를 보고 갈만하겠단 싶으면 들리자고 의견을 모았다. 십 리쯤 달렸을까, 건봉사 13km라는 이정표가 눈에 들어왔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을 내려올 때 보았다.’는 고은 선생의 시처럼 전망대로 올라갈 때는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보지 못했음이다. 통도사, 봉정

암, 상원사, 법흥사, 정암사, 도리사 그리고 내가 사는 옥포의 용연사와 함께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8대 적멸보궁에 속하는 고성외 건봉사가 아닌가. 어제 강원도 거진으로 올라올 때 차내에서 누군가가 고성군에 입성했다고 했을 때, 천 리 길에 지쳐 목적지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좋아만 했다. 무조건 건봉사를 가야 한다. 해설사로 활동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나에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지난주에 책장을 덮은 유월 독서토론토록인 ‘천 년을 훑치다’의 무대가 된 곳이기 때문이다. 팔공산 부인사에 봉안되었던 초조대장경은 불심으로 거란을 물리치고자 만든 경판으로 해인사의 대장경판보다 200년이나 앞섰다. 그 경판이 거란의 침입으로 소실된 줄로만 알았는데 일부가 건봉사 중턱, 천 년 동안 향기가 나는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천향고’라는 동굴에 있다고 작품은 말한다.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봉안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8대 보궁에 속하는 건봉사에 가서 부처님의 기를 받고 가자고 했더니 다들 이견이 없었다. 이런 일석삼조가 어디 있단 말인가. 독서회 카페에 작품 속의 무대를 다녀왔다고 글을 올리다면 모두 부러워할 것이다.

매월 둘째 화요일은 독서토론회 날이다. 독후감 준비와 작가소개는 순번을 정해 담당케 하고 회원들은 각자 책을 읽고 와서 두 시간 동안 열띤 토론에 들어간다. 올해 근무일이 화요일로 배정되면서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달에는 근무 날을 바꿀 기회가 찾아와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보지 못하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듯이 참석할 수 없을 때는 토론 책을 애써 구해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사흘 남았다. 친구에게 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전화하니 아침나절에 다른 회원이 가져갔다고 했다. 친구는 분량이 만만치 않다는 말과 함께



해설사로 활동하는 내가 좋아할 내용이라고 했다. 해설사라면 당연히 읽어야 한다는 말로 들렸다. 친구의 말이 아니라도 오랜만에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다.

독서회에 이름을 올린 지 스무 해가 되었다. 만며느리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답답한 마음을 풀어놓지 못해 많이 앓았다. 만만한 곳이 친정이라고 하지만 쪼르르 달려갈 수 없었다. 한동네에서 자란 딸의 친구를 당시 사위로, 당신의 친구를 사돈으로 맺을 수 없다고 한사코 반대하셨는데 힘들다고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는가. 아이를 꼬드겨 차를 몰고 무작정 집을 나섰다. 창문을 열었다. 차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패를 던진다. 경주와 포항, 부산 중에 마음에 드는 곳을 택하라고. 그러나 차는 패를 잡도록 기다려주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내려 곧바로 시내를 향해 질주했다. 습관이 무섭다고 하더니 나도 모르게 근무지인 사무실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일주일 내내 그 속에서 북적거렸는데 그곳으로 갈 수는 없었다.

아이들은 어디로 가느냐고 재차 물었다. 그때 전광석화같이 떠오른 것이 두류공원이었다. 출근하면서 그 앞을 무심코 지나갔을 뿐 마음자리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답답한 마음을 풀 곳은 빈 사무실이 아니라 바로 이 공원이었다. 핸들을 돌렸다. 멀지 않고 온종일 놀 수 있는 곳으로 이만한 곳은 없을 듯싶었다. 놀다가 심심하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볼 수 있으니 교육적으로도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 그렇게 첫발을 디디 도서관과 인연을 맺었다.

장서고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밝은 곳에 있다가 들어가서인지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재채기에 서든두 개의

눈이 일제히 내게로 쏠렸다. 그 눈들은 잘못 찾아온 곳이라고, 여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아느냐고 묻는 듯했다. 초롱초롱한 눈을 감당하기가 버거웠다. 그렇다고 물러설 수 없었다. “독서회원이 되고 싶어 왔어요.” 시골에서 갓 전학 와 새 친구들에게 인사하는 아이처럼 토박토박 천천히 말했다.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이 토론 도서였다. 알리사가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좁은 문’인 하나님 안에서 제롬과 하나 되기를 원했다면 나는 많고 많은 활동 중에 독서라는 좁은 문 안에서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했다. 그때 맺은 독서회와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앞으로도 인연의 끈을 놓을 수는 없으리라.

초조대장경을 훑치기 위해 각축을 벌이던 무대에서 내려온 지 일주일 이 지났는데도 수레바퀴 소리는 여전히 귀에 쟁쟁하다. 봉서루에 올라 온 무에 안긴 산자락을 휘휘 둘러본다. 바람이 일어서는 소리를 수레바퀴 소리로 착각했나 보다. 바람이 운무를 거두어 산 너머로 달아난다. 금강산 건봉사, 이곳이 설악산이 아니라 금강산자락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청아한 목탁소리가 사시예불을 알린다. 출렁이던 물결이 잠잠해지듯 마음에도 조금씩 고요가 깃든다. 법당을 향해 두 손을 모으니 귀에 익은 목 소리가 말한다. 천 년 동안 향기가 나는 ‘천향고’는 동굴이 아니라 천 년을 이어가며 정보와 지식을 전해줄 책 향기가 나는 도서관이라고. 그 소리는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 삶을 그린다

이경희 대구 달서구 본리동

흰 도화지 위의 흐릿한 스케치는 지나온 내 삶의 자국이다. 백옥같이 하얀 세상에 발 디딜 때에 설렘과 기쁨보다는 불안과 긴장 속에서 점 하나를 찍었다. 그 점들은 나의 의식에 모여들며 선을 이루었고, 점차 곡선과 직선이 어우러져 수많은 형체를 채워 나갔다. 점이 어떻게 모이느냐에 따라 부드러운 곡선이 되기도 했고, 칼날 같은 직선조차 나의 시행착오로 생겨나기도 했다. 때로는 신들린 듯한 손길로 서슴없이 그려갈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방향의 갈림길에서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렇게 나의 인생도화지는 요철 같은 질감에 마찰력을 일으키며 마음의 형체를 찾아 수많은 선을 쏟아내었다. 각다분한 인생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생이라 했던가. 살아갈수록 내 삶의 그림은 어둠이 찾아오고 있었다.

도저히 앞으로 나가지 못할 어둠이 극에 달할 때가 있었다. 이명과 청각장애라는 병이 오면서 쓰린 운명에 직면해야 했다. 먹물을 쏟은 듯한, 이제는 더는 그릴 수도 채울 수도 없다며 인생 그리기를 포기하려 했다.

사람들과 호흡하며 살아야 하는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는 철저한 고립에 시달렸다. 대화에 낄 수 없는 고적감은 나를 우울증에 빠뜨렸고

마음은 수시로 외딴 섬에 가두었다.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 나는 이방인처럼 떨어져 나왔고, 소리에 대한 예민한 반감에 스스로 자격지심이 움뻛다. 그러다 아예 마음의 독을 쏟아버리고 호기심 어린 마음을 내던져 버렸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라 여기며 세상으로부터 마음의 빗장을 닫아걸었다.

내 안의 정체 모를 소리가 혼란스러운 그림처럼 마음을 어지럽힐 때, 천명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잦아들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내 존재조차도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아는 나이기에 작은 끈나풀 하나라도 잡고 싶었다. 그즈음에 나에게 다가와 준 것은 바로 '책'이었다.

마음의 손을 잡아주고 나를 끌어준 책은 어둠던 나의 외로움까지도 안아주었다. 책은 참 따뜻했다. 생명을 키우는 햇살을 머금은 '책'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비로소 끝이 보이지 않던 절망적인 삶에 따뜻한 색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둠던 스케치를 어루만지며 따뜻한 색이 올라오자 그림은 살아나기 시작했다. 어쩌면 원망과 원한으로 줄다리기하던 마음은 처음부터 색이 비집고 들어올 수 없도록 공간을 내어주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책은 여러 가지 색을 품고 있었다. 때로는 따뜻한 감성의 빨간색으로 때로는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바다색으로, 감성을 적시는 갈색으로, 향기를 품은 보라색으로. 그렇게 나는 점차 여러 가지 색을 내 몸에 천천히 스며들게 하였다.

책으로 엮어진 나의 몸은 이제 더는 외롭지 않다. 점차 내 삶은 알록달록한 색으로 가득 찼고, 이제는 쓸쓸하고 어두운 그림은 그리지 않게 되었다. 항생제가 들어간 약봉지 대신 책을 들었던 삶이 내 그림에 희망과 믿음을 주었다. 의사도,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다며 세상을 원망했을 때, 그 색은 나에게로 와서 어깨를 내밀어 주었다. 슬플 때 기댈 수 있고, 힘

들 때 팔을 걸치게 해 주었다. 무겁다 힘겹다 뿌리치지 않고 나를 지탱해 주었다. 친구처럼, 선생님처럼 때로는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천천히 다가와 내 삶에 무지개 같은 색을 입혀주었다.

흙탕물처럼 혼란스럽던 마음이 책을 통해 정화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책 속에서 얻은 한 줄 한 줄의 감동들이 내 머리와 가슴을 통해 곰삭아져 일상을 건강하게 발효시켰다. 겉돌지 않는 숙성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맛있었다. 잘 익은 마음은 나를 현실에서 긍정으로 바라보게 했고, 생각할 여유를 주었고, 철이 들게도 했다. 어느덧, 좋아하는 색을 즐기며 살아가니 그 색은 내 삶에서 데칼코마니가 되어 있었다. 책에서 얻은 지혜로 또 다른 외로움에 시달리는 누군가에게 조언과 희망을 다지게 해주니 말이다.

대중 속에 철저한 고립을 맞볼 때, 다가가고 싶어도 여린 내 마음이 먼 발치를 서성일 때, 책은 나를 외롭지 않은 세계로 데려다 주었다. 고요 속에서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침묵 속에서 나의 잃어버린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내게 큰 웃음을 주진 못해도 잔잔한 미소를 머금게 해주었다. 어쩌면 이제 다시 어둠이 내린다 한들 마음엔 이겨낼 자양분이 생겼다. 그 자양분으로 싹이 되고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리라.

어린 시절, 나에게 책은 아버지의 권위만큼이나 함부로 가까이할 수 없는 묵직한 존재였다. 갈색의 옷을 입고 금빛 테두리를 걸친 명작들은 나의 호기심을 두드리진 못했다. 무료함과 쓸쓸함이 찾아와도 나는 책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 유리 책장 속의 장엄한 책은 함부로 가까이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며 삶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 생각했다. 내게 외로움과 절망감이 찾아왔을 때 책은 그때를 기다려 나에게 다가와 주었다. 서로의 적절한 출타동시였다. 세상의 두꺼운 벽을 깨고 싶을 때 책은 갑갑

한 마음의 껍질을 쪼아주었다. 시나브로, 어두운 스케치만으로 인생 그림이 끝났을지도 모를 빈약한 삶에 풍성하고 생기 있는 색이 찾아와준 것은 고진감래의 인생교훈인지도 모르리라. 늦게 만난만큼 마음이 더 빨리 가까워졌고, 더 많은 애착을 쏟으며 오롯이 몸과 마음을 적시는 기쁨을 매일 느끼며 살았다.

이제, 따뜻하고 온화한 그림을 그리게 되자 나는 사람들과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어쩌면 어두운 내 그림이 타인의 그림과 비교되는 게 싫었던 것인지도 모르리라. 좋은 색을 접하고 나자 나의 마음은 지난 날에 보지 못한 선한 사람들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책은 사람을 모으는 자석 같은 힘이 있다. 나도 그들도 마음으로 안아주고 보듬어 주면서 타인에 대한 두려운 허물도 서서히 벗겨낼 수 있었다.

수년간 내 그림을 지켜보던 남편 또한 자기만의 색을 찾아 도서관으로 향한다. 책의 온기를 손으로 느끼며 사색하는 행복하고 편안해 보이는 삶이 남편에게 스며들었나 보다. '역사'의 색을 찾아 느린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다. 끝자락에서 느낄 행복감과 성취감이 주는 마음은 곧 아이들에게로 스며들리라.

내 그림이 완성되는 날, 멋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고 나와 인연이 된 모든 이에게 따뜻한 감흥을 불러주고 싶다. 오늘도 어떤 색으로 인생 그림을 그릴지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무지갯빛이 드리워진다.

# 바다는 4월이 아프다

이예리 대구 남구 대명9동

텅 빈 거리에는 생기를 잃어버린 여름만이 떠돌고 마스크로 신뢰를 가려버린 몇몇 이들의 걸음도 숨이 가쁘다. 모두가 입을 맞춘 것처럼 뉴스는 연일 메르스 소식을 보도하고 난데없이 죄인이 되어버린 환자와 가족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보다 사람들의 눈총과 악플이 더 두렵다. 피고와 원고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사건을 마주하며 나는 1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누구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날, 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날. 그 차갑고도 뜨거운 아픔을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이 모아냈다. 함께 울고 함께 뛰며 304개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아 우리에게 전달했다. 유가족들은 진실의 등을 켜 채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절대 잊지 말아 달라고..... 나라가 잃어버린 청춘보다 더 큰 희망으로 살아달라고. ‘금요일엔 돌아오렴’ 제목만 읽어도 큰 눈물방울이 손등 위로 투둑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책을 좋아하는 남편조차 나를 다그쳤다. 좋은 글, 예쁜 글도 많은데 왜 하필 그 책이냐 했다. 아마 임신 31주를 갓 넘긴 나와 아기의 마음을 염려해서였을 것이다.

책이 출간되었다는 소식은 한참 전에 접했다. 결혼도 하기 전이니 올해

초쯤이었던 것 같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책을 읽기 위해서는 출간 후 몇 개월은 기다려야 한다. 음성 지원이 가능한 독서 파일로 만들어지기까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음성도서관에 등록된 이 책을 보며 반갑다고도 슬프다고도 할 수 없는 묘한 마음이 일었다. 선뜻 책을 읽지 못한 것은 남편의 말 때문도 태교 때문도 아니었다. 좁아터진 내 마음에 감히 담을 수 없는 아픔과 진실의 무게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책을 읽어가기 시작했다. 훗날 내 아이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노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뭇까지 더 밝고 씩씩하게 세상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해주리라는 다짐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읽어갔다.

2014년 4월 16일. 그날 바다는 말이 없었다. 전날 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닻을 올린 배 한 척은 수백의 청춘을 싣고 구멍 난 양심으로 두려운 항해를 시작했다. 적재량의 두 배 이상의 화물을 등에 올린 배는 안개 가득한 밤바다는 무사히 지났지만, 물살이 괴물 같은 맹골수도는 결국 건너가지 못하고 침몰했다. 한참 임용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던 터라 뉴스를 종일 지켜볼 수는 없어서 오전에 나왔던 전원구조 속보를 보고서야 도서관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저녁때까지만 해도 설마설마 그랬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든 손 한번 못 쓰고 속수무책으로 바다에 사람들을 몽땅 내어줄까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감은 점점 불길해지고 있었다. 이틀, 사흘이 지나도 처음 구조된 사람들 이외에 다른 생존자는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에어포켓에 대한 허무맹랑한 가설만이 전설 속 먼 이야기처럼 떠돌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 답답했다. 돌아오지 못한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던 아버지의 울음이 명치끝에 걸려 종일 나를 뒤흔들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빼앗긴 채 하염없

이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의 눈빛이 내 곁에 와 앉는 것만 같았다. 한 가족의 슬픔에서 그치기에 이번 참사는 묵묵히 버티고 선 바다보다 더 거대했다. 내 방 침대 위에도 책상 위에도 피아노 의자 위에도 뒤엎킨 슬픔이 뒹뒹 떠다니는 것 같았다. 그저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평범한 일상이 죄스러워 울었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기도했다. 나뿐만이 아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아파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을 홀로 떠안은 세월호는 바닥까지 가라앉았고, 금요일이 여러 차례 지나갔지만 수많은 아이가 돌아오지 못했다. 당시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팽목항을 찾아갈 용기도 없었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터라 경제적인 여유도 내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저 마음으로 수차례 울며 기도하기를 반복할 뿐이었다.

책 속에는 슬픔과 희망이 반반씩 길을 나누어 걷고 있었다.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들은 기울어져 가는 배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엄마 아빠에게 천사 같은 아이들이었다. 왜 하나같이 그렇게도 순하고 착한 아이들을 잃어야 했는지..... 책을 읽는 내내 몇 번이고 억울한 마음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 차마 잊을 수 없어서 그냥 함께 살아간다는 승희 엄마, 아이를 위해 도둑질 빼고 다 하며 열심히 살았다던 소연이 아빠. 이들에게는 잃어버린 아이들이 슬픔이기도 했지만 삶의 희망이기도 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진실들이 유리알처럼 박혀 있었다. 선생님 말씀에 잘 따르라고 했던 마지막 대화가 엄마 아빠에게 울무가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으랴. 유가족들은 아이들을 먼저 찾아 팽목항을 떠나는 일이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었다고 말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실종자 가족들은 유가족이 되는 것이 소원이라 했다. 일곱 달을 눈물로 기다린 실종자 가족들은 결국 수중 수색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를 기다렸다는 듯 세월호 참사는 TV에서, 인터넷에서, 우리의 시야에서 점점 사라져 갔다.

하루아침에 꿈같은 일이 꿈처럼 일어났지만 결국 모두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시퍼런 바다에 몇백의 청춘을 가뒀버린 나라는 여전히 말이 없고, 자식을 먼저 보낸 엄마 아빠는 잔잔한 파도에도 가슴이 무너진다. 왜 살아남은 자는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날 새 없이 죄스러워져야 하는지..... 왜 미안해야 할 사람들이 더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지..... 누구도 답을 해줄 수 없는 질문들만 남았다. 인양하는데 얼마가 든다더라.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라더라. 이리저리 항간을 떠도는 계산법 보다 사랑하는 내 아이 책가방이라도 하나 걸옷이라도 한번 품에 안아보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우선일 수는 없는 건지.....

몇 차례 읽다 쉬다를 반복한 끝에 13명의 인터뷰를 모두 읽을 수 있었다. 이들의 삶을 읽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시비의 판가름도 올곧은 정치적 신념을 갖는 일도 아니다. 그저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는 것. 힘에 부치는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내 주는 것. 살아가다 생각하면 잠시 멈춰 서서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다 아주 가끔은 즐거운 일을 만나 소리 내어 웃어보기도 하고..... 정답이 없는 수수께끼에 '함께'라는 정답을 달고서야 겨우 마음이 놓인다. 잊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내 뒤편으로 남겨진 세상을 깨끗하게 걸어가야겠다. 두 눈을 감고 걷는 발걸음에 때로는 위험과 장애물이 걸리는 순간도 있겠지만 나는 그때마다 청춘들이 남기고 간 삶의 무게로 이겨낼 것이다. 두서없고 모자란 이 글을 통해 부족하게나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깨소금 신희일기 말고 독서일기

이인경 대전 서구 변동

남 : “인경씨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여 : (수줍은 듯) “저요? 음..... 독서예요.”

남 : “아, 책을 많이 읽으시는구나.”

여 : (물론 땡이다!) “네 자기 전에 늘 책을 봐요. 이젠 뭐 습관이에요.”

소개팅에 나가게 되면 늘 하고야 마는 진부한 이야기. “취미는 어떻게 되세요?”라는 질문에도 생각도 없이 대답하고 마는 “독서지요.”라는 말.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자. 정말 독서가 나의 취미인지. 미안하지만 아니올시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나의 취미는 텔레비전 보기이다. 그것도 열렬히! 솔로였던 시절 퇴근 후 내가 먼저 켜는 것은 전등버튼도 아니요, 밥숟가락도 아니요, 바로 텔레비전 리모컨이었다. 리모컨은 나의 분신이요, 나의 세 번째 손이었다. 옷도 채 갈아입기 전에 나는 나의 세 번째 손을 움직여 리모컨 버튼을 꼭 눌렀다. 누르자마자 내 눈앞엔 신세계가 펼쳐졌다. 텔레비전 채널은 어찌나 많은지 버튼을 돌리고~ 돌리고 돌려봐도 끝없는 프로그램들이 나를 유혹했다. 드라마, 요리, 뷰티,

다큐멘터리, 영화 채널까지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졌다. 장시간 텔레비전 시청에 눈물이 질질 나도 내 세 번째 손은 바쁘기만 할 뿐이었다.

그렇다면 책을 전혀 안 보는가? 혹시 집에 책이 없는가? 그런 것은 아니다. 한때 내 별명은 ‘문학소녀’였다.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시가 나오고, 구르는 돌만 봐도 문장을 읊어대곤 하던 나는야 ‘문학소녀’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문학부였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까지 문학 동아리에서 괴테와 헤르만헤세, 도스토예프스키를 부르고 다녔다. 친구들은 이런 내게 “재는 책을 진짜 많이 보나 봐?”, “나중에 작가가 되려고 그러냐!”하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집 책꽂이에는 두꺼운 고전들이 쌓여갔고, 어느덧 나는 자연스럽게 문학소녀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 책들의 대부분은 앞의 몇 장만 꼬질꼬질 되었을 뿐 영 진도를 못 나갔다. 책 제목과 저자의 이름은 알아도 내용은 전혀 모르는 이상한 독서만 할 뿐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독서 목록만 가득 찰 뿐이었다. 쌓아놓은 책만 보면 ‘그래도 언젠가는 읽겠지, 뭐.’하며 천장에 굴비를 걸어 놓듯 매일매일 그렇게 꿀꺽꿀꺽 침만 넘기는 시간이 지나갔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러저럭 독서를 했지만, 그나마도 자기 계발서나 연애, 뷰티, 인간관계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전부였다. 그 책들이 모두 영양가 없는 책들이라 치부할 수 없었지만, 책을 읽고 나면 뭔가 깊은 독서바다에 빠져들기보다는 얕은 어린이용 독서 풀장에서 개헤엄만 잔뜩 치다 온 그런 기분이었다. 집안 곳곳 책을 질질 흘리고 다녔지만 읽지 않고 모셔두기만 해두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만 갔다.

여자가 가장 여유로워지는 시간은 언제일까? 아직 긴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여유로웠던 시간은 신희

여행 기간이 아니었나 싶다. 공교롭게도 신랑과 나는 문화유적을 탐방하거나 미술관을 관람하거나 하는 일에 도통 관심이 없었다. 둘 다 좋아하는 것은 그저 여유롭게 걷고, 차 마시고, 책(!)이나 보는 것이다. 그래서 신혼 여행지도 휴양지로 정했고, 몇 권의 책도 여행지에 모셔갔다.

신혼여행 며칠 동안은 책의 의미조차 잊고 있었다. (당연한 일 아닌가? 신혼여행인데!) 신랑이 낮잠에 푹 빠져 심심하던 여행의 어느 날, 그날 오후! 여행용 가방에 모셔 왔던 책이 생각나 꺼내 들었다. 촉촉이 떨어지는 빗방울,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 이국에서만 느껴지는 낯설지만 새로운 기분 좋은 공기에 취해 나도 모르게 리조트 긴 의자에 누워 책을 펼쳐 들었다. 책은 평소에도 좋아했던 작가의 신간이었다. 첫 장을 넘기고, 두 번째 장을 넘기고…… 정말이지 나는 화장실 한 번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책을 다 읽었다. 아니 읽어냈다. 책을 보면서 탄생각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터치하거나, 텔레비전 리모컨을 누르거나 하지 않고, 오로지 책과 나와 맨얼굴을 내밀며 만났다. 오랜만에 깊은 독서의 바다에 빠져 인어공주가 깊은 바다를 헤엄치듯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부끄럽지만 삼십오 년이 넘는 인생 동안 이처럼 깊고도 깊게 책을 읽어 본 적은 없었다.

신혼여행 후 한 여름밤의 꿈(!) 같았던 독서시간을 잘 누리보자 생각했지만 역시나 작심삼일에 그치기 일쑤였다.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하루 동안 책을 읽어 낸다는 것은 엄청난 절제가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자기 전 책을 들고 몇 장 읽으려 하면 잠은 왜 그렇게 쏟아지는지, 퇴근 후에는 다시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기 바빴다. 독서일기를 써 보자고 마련한 노트에 낙서들만 잔뜩 있을 뿐 그럴싸한 독서는 한동안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아기를 가지려고 휴직을 한 후 다시 책과 만나는 시

간이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했다. 신혼 초만 해도 노트에 '남편 사랑해', '결혼은 안 미친 짓이다.' 같은 어이없는 낙서만 해대던 내가 이제는 조금씩 독서 목록이나 독서 감상문도 쓴다. 깨소금 신혼일기 대신 독서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은 짧은 감상평 위주로 독서노트를 메워가고 있지만, 훗날에 모든 것들이 나의 자산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읽고, 생각하고, 끼적이기'를 반복하고 있다. 내가 독서일기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훗날 태어날 나의 아이를 위해서이다.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할 땐 허구한 날 텔레비전만 보는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책도 읽고 사색하는 우아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이다. 책을 사랑하는 우아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독서 체질로 변화시켜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오늘도 인터넷 서점을 둘러보며 어떤 책들이 나왔는지 클릭해 보았다. 시장에서 생선이나 야채를 고를 때보다 더 신중해 매의 눈이 되어버리는 나. 이런 내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난다. 시장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곳이라면, 서점은 내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는 곳이기에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아직은 서점보다는 시장을 더 사랑하는 나지만 이제는 서점도 자주 자주 들러 내 영혼의 배고픔도 채워 줘야겠다.

아가야, 기다려라!

책 읽고, 많이 생각하고, 좋은 글을 쓸 줄 아는 우아한 이 엄마와 함께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그 시간을. 우리 함께 책 한 권 진지하게 읽어 보자꾸나!

## 도서관이 있는 풍경화

이정미 대구 달서구 본리동

‘한적한 숲길을 따라, 푸른 바람 소리 느끼며, 느리게 걸어 발걸음이 멈추는 곳에. 백설공주가 찾았을 법한 일곱 난쟁이의 집 같은 작은 도서관 건물이 있다. 그 도서관 옆 낡은 나무 벤치 하나. 그리고 그 벤치와 시간을 함께한 것 같은 새하얀 세월의 눈이 내려앉은 머리에 하늘빛 모시 저고리, 방금 삶아 널은 아기 기저귀같이 새하얀 모시 치마를 입은 할머니가 무릎 위에 세월의 무게만큼의 책을 올려놓고 쉬어가고 있다.’

이것은 내가 그린 도서관이 있는 풍경화 속 모습이다. 바로 우리 동네, 여기 내가 그린 풍경화 속 도서관, 벤치 그리고 그 할머니가 있다.

그 할머니를 만난 것은 내가 임신을 하고, 심한 입덧으로 직장을 관두던 즈음의 일이다. 퇴직 후 갑자기 늘어난 자유시간이 한동안은 휴식으로 모자란 하루하루였지만, 곧 자유시간은 무언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불안감으로 바뀌어 갔다. 입덧도 조금씩 찾아들고 나는 태교와 임신, 육아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늘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한 달에 네댓 권의 책은 읽던 나였기에 자연스럽게 동네 도서관을 향했다. 처음 접하는 임신과 육아에 관련한 수많은 책 앞에 서자, 나는

마치 무식자가 된 기분이 들었다. 이내 나는 나의 무식함을 채우기 위해 하루 대출 권수인 5권을 대출대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제법 부른 배에 책 다섯 권을 들고 집까지 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도서관을 나와서 몇 발짝 가지도 못해서 나는 도서관 옆 낡은 벤츠에 책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좋을 때다. 그때가 제일 좋을 때다!” 문득 들리는 말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머리가 새하얀 할머니 한 분이 벤치 끝쪽에 앉아서 다리 위에 책 한 권을 올려둔 채, 한 손에는 돋보기를 들고 나를 바라보며 세상 부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가 어색해서 어색하게 웃어 보이고는 책을 집어 들어가던 길을 재촉했다. “세상 공부 많이 해요. 책 안에 세상만사 다 있어. 사람 인생 백 년이라고 해도 이 세상 다 못 가보고, 못 보고 산다네. 인생 미리 안다고 도움될 거는 없어도 알고 보면 우리네만치 힘든 세월이야 살겠수? 뱃속에 애기한테 세상 이야기 많이 들려주소.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고, 다 모르고 가려면 얼마나 무섭고, 이수분지 모른다.” 점점 멀어지는 할머니의 말소리는 나의 느린 걸음걸이에 맞춰 내 귀에 마지막 한마디까지 모두 들어왔다. 그것이 할머니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 이후 나는 거의 보름에 5권의 책을 빌려와서 읽었고, 마치 그 할머니는 그 도서관의 동상처럼 그 벤치에 늘 그림처럼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다. 몇 번 할머니를 보았지만 나는 귀찮게 말을 섞고 싶지 않은 맘에 서둘러 그 앞을 지나갔다. 하지만 왜였을까? 그 할머니에게 관심이 갔던 것은..... 늘 정갈하게 차려입은 모시 저고리 치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연세에도 늘 도서관을 지키는 모습 때문이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거의 만삭이 되어 예정일이 다가올 즈음 나는 출산에 대한 두려움에 잠을 이루기도 힘들 정도였다.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본격적

으로 출산에 관한 정보가 필요했다. 정보를 얻으려 뒤뚱 걸음으로 찾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나오는데 배가 갑자기 당기기 시작했다. 나는 쉬어가기 위해 도서관 옆 그 벤치로 가 앉았고, 어김없이 그 벤치 다른 끝에는 그 할머니가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다 문득 할머니가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슬쩍 곁눈으로 본 할머니의 책은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활짝 펼쳐진 책장 덕분에 제목은 보이지 않았다. 단숨에 궁금증 때문이었을까? 나도 모르게 먼저 책 제목을 물었다. “..... 재미없는 책이야.....” 하시며 할머니는 책을 덮어 제목을 보여주셨다. ‘죽음이란 무엇인가’란 제목이 웬지 괜한 질문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게 하였다. “이제 곧 낳겠구먼. 배가..... 좋을 때야. 좋은 책 빌려 가는구먼.” 할머니는 내가 벤치 위에 내려놓은 책 제목을 보시고 말을 이어가셨다. 나는 어색하게 웃어 보였고, 내가 시작한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며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머리를 열심히 굴렸지만, 쉽게 뭉친 배가 풀리지질 않았다. 영락없이 그 벤치 위에서 할머니와 어색한 합석을 해야 할 판이었다. “할머니 혹시 매일 여기 오세요? 제가 올 때마다 계시는 것 같아서요.” 어색함을 깰 겸 평소 궁금한 이야기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왔다. “늙은이가 할 일이 있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지.” “아..... 예.....”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책 위에 올려진 할머니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주름과 굳은살로 가득 차고,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없는 할머니의 손을 본 순간 나는 조금 놀랐지만, 태연한 척 시선을 돌렸다.

“나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일찍 시집가서 애 낳고 어렵사리 사느라고 이래 좋은 세상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다 아ни가. 돈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책도 빌리 보고..... 내 진작 알았으면 젊어서

도 여기서 살았을 텐데..... 누가 졸업장 안 주면 어땠노? 여기 책 다 읽었으면 그 졸업장 갖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알텐데..... 그땐 시간이 없었지..... 내 몸이 잘리 나가도 모르고, 힘든 세월 보냈지..... 처자는 이 좋은 세상에 좋을 때다!”

팬스레 할머니의 손을 봤나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며 “할머니 그래서 여기 책 다 읽으시게요?” 분위기를 바꿀 겸 껌싸게 나도 모르게 또 질문을 툭 던졌다.

“또 시간이 없네. 내 나이 92..... 다 읽고 싶어도 또 시간이 없어.....”

하시며 씩씩히 웃으시는 그 모습이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측은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이제 죽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으니 남은 인생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는 알거 같네. 그렇게 죽을까봐 무섭더니, 미리 공부하니 준비하게 되네..... ”

바로 그때 미리 연락해 둔 친정엄마가 저 멀리서 나를 부르며 걸어왔다. 나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엄마를 향해 걸음을 옮겼고, 그것이 우리의 제대로 된 대화의 전부였다. 그 이후 몇 주 후, 나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도서관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육아에 매진하며 백일 동안 집에 갇혀 생활해야 했다. 백여 일이 지나고 나의 첫 외출 장소는 이제 막 눈을 마주치고 꼬물거리는 아들을 위한 육아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줄 책을 빌리기 위한 도서관이었다. 거의 5개월 만에 찾은 도서관은 이제 한겨울이라 무언가 달라 보였다. 책을 빌려 나오며 이상하게 뒤돌아보게 만든 기분은 늘 누군가 있던 벤치가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였다. 그 이후로도 자주 도서관에 갔지만 봄이 오고 여름이 다시 오고 가을이 와도 벤치에 할머니는 다시 볼 수 없었다. 아들이 돌을 치르고 아이와 아장아장 걸어서 도

서관에 가서 책을 함께 고르고 빌려 나와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아 책을 펼쳐보다 할머니와의 대화가 문득 떠오르며, 할머니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어렴풋이 지금 알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생명의 탄생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한 세상 보여주기를 위해 도서관을 찾고 있고, 우리의 먼 미래일지도 모르는 벤치 할머니는 누구나 준비해야 하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는 것..... 우리네 인생살이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기에 두렵지만, 이곳에 오면 우리가 다 겪어보지 못할 수많은 경험과 이야기들이 우리의 두려움을 인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꿔 준다는 것을 말이다. 할머니는 누군가가 인증해주는 공부만 중요시하는 나와 우리 세대에게 스스로 책 속에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참 공부의 의미를 알려주려 한 것은 아닐까. 나는 아마도 그 할머니 나이가 될 때까지 오래도록 도서관을 찾을 것 같다.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내가 그리는 도서관이 있는 풍경화 속에는 벤치 위에 세월의 무게만큼의 책을 무릎에 올린 한 할머니가 있다.

|가작

## 목소리로 읽다

이정화 경북 안동시 옥동

소파 위에 널브러진 아들, 요즘 자주 보는 초한지를 읽느라 한쪽으로 떨어진 다리를 건어 올리는 걸 잊은 듯하고 방 안에서 부스럭부스럭 선생님이 내어주신 숙제를 하느라 부산을 떠는 딸은 이제 제법 글자란 걸 쓰기 시작 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 집에 이런 광경이 펼쳐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 좋은 것만 보고, 듣고, 먹으며 키운 예쁜 첫째 미정아, 처음이란 설렘 반 두려움 반 나름대로 육아 책을 정독하며 사랑을 듬뿍듬뿍 주며 부족한 것 없이 최고로 키우고 싶었던 미정아.

그 아이가 20개월이 되도록 서지도 걸지도 말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너무나도 큰 절망감에 아이를 안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다 받은 지적 장애 판정.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이럴까 너무나도 큰 충격에 정신 줄을 놓고 아이를 끌어안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울기를 수차례, 엄마의 울음에 덩달아 울먹이는 아이의 곁에 질린 눈을 바라보며 한 가지 만 생각했다.

말하고 걷게 하자!!!! 엄마가 하게 해 줄게!!!



그렇게 시작한 언어 치료! 언어적 자극을 주는 데 책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아 하루에도 수십 권 책을 주저리주저리 읽어 주는데도 아이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TV에 빠져들기 일쑤였다. 그런 아이를 보며 나 역시 지쳐갔다. 글을 모르는 아이에게 목소리로 책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내용의 전달뿐만이 아니라 그 속의 감정과 소통하고 책 속으로 아이를 이끈다는 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코끼리를 설명하는 것만 같았다. 아이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내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여러 역할을 소화할 만큼 다양해졌으며 그에 걸맞은 표정과 행동, 눈빛까지 변하기 시작했다. 간간이 돌아다니는 구연 동영상이나 아이가 빠져드는 만화 캐릭터를 연구해 혼자 따라 해 보기도 하고 쓱스러움이나 사투리는 저 멀리 보내 버리려고 거울을 보며 표정을 살피고 휴대폰 녹음기로 나의 부끄러운 목소리를 담아 들었다. 그런 나의 부단한 노력에 정확한 발음과 조금은 편안한 표정으로 점점 변해 갔다. 눈빛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던가. 마음가짐까지 긍정적으로 변해 가려고 노력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읽고 연습하는 나에게 신랑이

“이제 나도 외우겠다. 목선다니까 적당히 해~”

걱정이 되어 한 이야기겠지만 조금은 서운했다.

나는 계속 뭘가가 부족한 것만 같았고 그렇게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찌릿한 연애 소설을 좋아하던 내가 흥부와 놀부에 열을 올리며 이솝이야기에 빠진 엄마가 되어있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고 점점 엄마의 책 읽는 목소리를 따라 귀를 열기 시작했다. 아이와 매일 눈빛을 주고받으며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자기 전, 기상 후 항상 책을 가지고 와 읽었고 방 구석구석 아이의 손이 닿는 곳마다 책을 던져 놓았다. 그러길 3년 나는 우

리 아이가 처음 책장에서 꺼내온 ‘아기 돼지 3형제’ 책을 잇을 수가 없다.

아기 돼지들을 외치며 후~ 후~ 늑대처럼 입김을 불어대던 그 모습에 가슴 벅찬 감동과 책을 읽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뻗속까지 느끼게 되었다. 점점 말이 늘기 시작한 아이는 걷는 것도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책 속 아이들을 모방하며 그 아이들과 같이 자라주었다. 아이가 6살이 되던 해 완벽하진 않지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혼자 숟가락질을 하고 혼자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정말 우리에게겐 행복하기 그지없던 시절, 그때 나는 우리 둘째를 만났다.

장애인 아이를 둔 부모에게 둘째는 모험과 같은 아이였다.

첫째의 장애 원인을 모르는 상황에서 둘째를 가졌을 때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했다. 혹시 둘째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낳는 그 순간까지 걱정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만난 둘째 아들. 첫아이 때 알지 못한 상 받는 아이를 둔 부모의 기쁨을 알게 해준 녀석이다. 태교부터 책으로 시작한 둘째는 늘 읽어줘서인지 7살이 되도록 한글에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래서 퀴즈처럼 시작한 책 읽기.

오늘은 책을 읽으며 ‘가’를 누가 많이 찾나 해보자.

다음날은 ‘나’자가 몇 개인지 세어 볼까?

밤마다 이리길 3개월 만에 한글을 다 깨쳐 버린 멋진 녀석, 그렇게 둘째는 한 달에 책을 100권도 넘게 보는 다독이가 되었다. 그런 아이에게 온이한 성격과 영특함은 덤처럼 따라왔다.

주위에서 책을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비법이 뭐냐고 찾아오는 엄마와 아이들에게 한 권 두 권 책을 읽어 주기 시작했다.

너무 재미있어하는 아이들을 보며 본격적으로 구연이란 걸 배워 봐야겠다는 생각에 복지관 무료 강의를 듣고 구연동화 지도자 3급 자격증을 땀다.

3급이 뭐냐고 1급은 되어야지 할지 모르지만, 아침 시간 쪼개 가며 결석한 번 없이 오후에 큰아이 치료실 세 군데 데리고 다니며 정말 열심히 배워 딴 자격증이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처음 자격증을 따고 작은 도서관 구연 봉사를 시작했다.

유치원 아이들 책을 읽어 주며 첫째, 둘째를 도서관에서 키웠고 둘째가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책 읽어 주는 어머니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며 아들 녀석들의 반 친구들 이름도 알게 되고 독후 활동으로 아이들의 관심사나 성향도 알 수 있는 나에게는 핑도 알도 먹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봉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복권 같은 셋째가 생겼다. 불어 오르는 배를 안고 본의 아니게 임신과 출산을 알게 한 봉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녀석과 같은 피아노학원에 다니는 혜림이가

“나는 학원 마치면 영민이 엄마 또 본다 ~~”(둘째 녀석의 이름은 영민이)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에 부러운 듯 쳐다보는 친구를 향해 아들이 나지막이

“나는 매일 보는데 크크”

함박 웃는 그 모습에 내가 봉사 활동하길 잘했구나. 한없이 뿌듯하고 뿌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 녀석이 내 볼에 자기 볼을 묻으며

“엄마가 내 엄마라서 참 좋아”라고 이야기할 때면 가슴 가득 하트가 충만해지는 걸 느낀다. 한낱 작은 글자들이 모여 글이 되고 그 글이 모여 책이 되고 그 책을 마음을 다해 읽어 주는 것 나는 그것밖에 한 것이 없는데 내 아이들은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내가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하다.

이제 갓 백일이 지난 우리 셋째 딸 유빈이, 언니, 오빠 덕에 책 속에 사는 이 아이는 또 어떤 기적을 보여 줄까?

내 삶은 불안의 연속이었다.

장애를 가진 첫아이가 그랬고 장애인 누나를 가지게 될 둘째 아이가 그랬으며 인생의 절반을 살아버린 나에게 온 셋째 아이 역시 나에게겐 그러했다. 잘 키울 수 있을까? 행복하게 자라 줄까? 내가 오래 살 수는 있을까? 불안과 걱정으로 허우적거리며 고비를 맞을 때마다 책은 해결책을 찾아주고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내 삶의 다리와 같았던 책! 한 권 한 권 읽어 가며 육아의 다리도 건너고, 건강의 다리도 건너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다.

어느 인문학 강의에서 인간의 일생에는 주어진 소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아이가 때맞춰 걷고 말하고 시기가 오면 결혼해 자식을 낳는 것과 같은 내 인생의 소명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책을 읽게 하는 일인 것 같다. 내가 책이 놓아준 길을 걸어왔듯이 우리 아이들도 그 길을 따라 바른 인성과 예의를 알고 삶을 탐구해 가리라.

나는 오늘도 구석구석 흩어진 책들을 모아 정리한다.

며칠 뒤면 또 구석구석으로 흩어질 책들에 감사하며.

## 보람줄

이정화 경남 창원군 성산면

황량한 코끼리 등짝 같던 겨울 산이 이제 갓 연두색 싹을 틔우며 마음을 녹이는 계절이다.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다시 악수를 청하는 듯했다. 손 전화기에 불이 반짝이는 걸 보고 문자를 열었다. 문자로서는 꽤 긴 글이다. Y는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인연에 연연하여 오래 끌어안 듯 종양조차도 오랜 시간 끌어안고 있었던 모양이다.

Y와 나는 오래전 인연을 맺었다. 스무 해가 열추 되었다. 고만고만한 아이 둘씩 달고서 책임임을 했다. 수다가 이리저리 지향 없이 널브러지는 걸 다잡아 보자고 책임기를 시작했었다. 덕분에 아이들도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며 놀이와 책임기로 하루를 소일했다. 도시의 중심부와 변두리를 쏘다니며 박물관과 들판을 누볐다. 소복하게 쌓인 눈 위에 누워 눈 천사를 만들던 일, 박물관에 갔다가 전철에서 아이를 잃어버려 발을 동동 굴리던 일, 읽은 책이 마음에 꼭 들어 인형극으로 각색해서 아이들 학교로, 유치원으로 공연하러 다니던 일들이 생각난다. 함께 먹은 밥그릇 수도 셀 수 없고, 함께 나눈 이야기도 시냇물처럼 끊이지 않고 흘러갔을 것이다. 이젠 밥벌이 따라 서로 다른 공간을 채우고 살아온 지 십여 년이 훌쩍 지

났다. 말라가는 꽃에 물을 주듯 근근이 관계를 이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Y 덕분이란 걸 인정한다. 수많은 일상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처럼 새나가 버리고 간신히 굵은 덩어리 몇 개의 추억으로 Y와 내 인연은 실낱 같이 이어져 온 것이다. 그런 Y가 큰 수술을 앞두고 정리하듯 내게 서운한 마음 남기지 않으려고 용기를 내었나 보다. 늘 내게 먼저 소식 전할 때만 해도 인연이 여기까지라고 여기는 걸 자기가 억지로 연을 이어가나 생각한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서운한 마음도 컸으리라. 그래도 수술하기 전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문자를 보내온 것이다. 종양 떼어낼 때 섭섭한 마음까지 순하게 이별하게 해달라고 차 한 잔 앞에 놓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다고 했다.

어린 시절 하룻길에 갑자기 내리는 비를 맞은 적이 있다. 천천히 걸으면 살살 내리던 비도, 뛰기 시작하면 더 많이 내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어느새 앞에 오는 비까지 맞아가며 물에 빠진 생쥐 꼴로 불안한 중년에 다다랐다. 나는 무엇이 그리도 바빠서 길들인 것에게 책임도 지지 못 했을까? 어린왕자가 꾸짖는다. 우리에게 수많은 영감과 조바심을 주던 아이들도 독립했건만, 몸에서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언제나 청춘인 줄 알고 거침 없이 앞만 보고 달렸다.

한 사람의 이야기는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저마다 책 몇 권의 서사를 담고 있다. 목차는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뉜다. Y와 나는 중년기를 열심히 달리다가 돌부리에 걸리고 만 것이다. 때마침 인생의 보람줄을 책갈피에 끼우고 쉬어 가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도 바쁘게 살아왔을까? 한 번 펼치면 덮지 못하는 재미난 책과 같은 인생이어서 그랬던가. 읽다가 쉬고

다시 읽다가 쉬어도 되었을 것을, 하루하루를 책장 넘기듯 휘리릭 넘기며 여기까지 왔다.

레비스트로스는 말했다. “문자는 인간에게 복지를 가져다주는 동시에 본질적인 것을 앗아간다.”라고. 책읽기를 통해 쌓은 지식의 총량은 늘어간다. 그럴수록 보람줄로 책을 덮고 사유하는 동안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지 못했다. 독단은 큰 벽을 쌓게 했다. 지식의 비만이였다. 그 시절, 결혼 생활의 부적응과 육아의 고단함을 책읽기로 외면하려 한 내 모습이 떠오른다. 자꾸만 책 속으로 파고든 것은 외로움과 우울함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다. 가슴은 메마르고 머리만 큰 괴물이 되어 신념을 가장한 독선은 나와 남에게 생채기를 입혔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그 순간 상대는 그릇된 것이 되고 만다. 책 속의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쏟아내기만 했지 공감은 부족했다. 젊다는 것, 그 독선은 양날의 칼로 시퍼렇게 날아서 있었다. Y의 부러움 섞인 지지는 사회 활동의 순기능을 낳았지만, 내가 옳다는 역기능을 주기도 했다.

책읽기에 빠졌던 지난날의 당돌한 신념이 부끄럽다. 속도전 하는 책읽기는 경박하다. 보람줄에 표시해 둔 부분을 고뇌하다가 똑 닮은 이야기로 가지를 치면 생각은 묵직한 깊이와 확장을 경험케 한다.

책읽기는 나눔이라는 생각이다. 쓰기와도 한 몸인 성싶다. 책을 읽고 모임을 하면서 생각을 나누고 사유를 키우는 일, 그것이 보람줄이 아닐까. 책 속에서 읽어낸 성찰이 지혜가 된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야 어렵듯이 알 것만 같다. 책읽기를 통해 얻은 지식이 느낌과 이해를 만나면 통찰과 예측을 할 수 있는 지혜로 몸을 바꾼다.

보람줄은 마치 명상과도 닮았다. 명상으로 생각을 비우듯 마음을 비우고

비웠을 때 저 깊은 가슴속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삶의 언어가 된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괴물의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그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니체의 『선악을 넘어서』 가운데 나오는 한 구절이 나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 한고비마다 삶의 보람줄을 내리고 여백을 그려 본다.

지난 삶을 보람하며 갈피마다 떠오르는 그림들을 떠올린다. 숨을 헉헉대며 산을 올랐던 환희심, 같은 책을 읽고 나누었던 비판과 공감의 황홀한 일체감, 맛있는 음식을 한 가지씩 만들어 함께 먹었던 이웃들과의 동질감, 몸이 아파서 잘 먹지 못했지만, 그 덕분에 몸은 가벼워지고 음식을 꼭꼭 씹어 먹게 된 성취감, 돌이켜보면 한 장 한 장 수많은 다채로운 삶의 경험이다. 한 땀 한 땀 고운 색실로 세상의 꽃을 그려내는 바느질쟁이 Y는 이제 다시 바늘에 실을 꿰면 어떤 욕망도 내려놓고 오직 바느질을 할 것이다. 바늘구멍 하나 꽃을 데 없던 마음에 수미산을 향해 온 세상을 담아 볼까? 희로애락은 깨달음이 되어 오늘의 지혜와 만난다.

노력하는 독서, 즐거운 지식, 통찰하는 지혜를 그리워한다. 유럽의 데카당스가 초래한 병폐를 보면 보람줄의 구실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긴 사유의 시간이 주어질 노년을 준비하는 지금이야말로 하늘에서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듯, 보람줄이 주는 소통의 의미를 알아 가야 하는 시간이다. 반갑다. 보람줄은 너무나 평범해서 누구도 눈길 한번 주지 않지만, 갑자기 책을 덮어야 할 때 어찌나 요긴한지 모른다.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비로소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감미로운 것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노력하여 갈고닦은 드레를 품으면 스스로 고귀해지는 것이다. 오롯한 하루를 살아보면 하루가 길고 여유롭다. 농부들은 고된 농사일을

바쁘게 뛰어다니며 하지 않는다. 산수화 같은 고요한 산기슭 밭에 한 점  
같이 보이는 촌로도 온종일 느직느직 일을 하지만 종내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한다.

Y와 나는 수많은 경험으로 지난날을 품었다. 앞으로는 어떤 이야기들을  
채워 나갈까, 기대와 연민이 생긴다. Y는 지금 책갈피 속의 보람줄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책을 읽다가 빼곡한 책장 사이를 세로  
질러 나와 책의 표식이 되는 보람줄. 나는 천천히 책모임 친구 여럿과 함  
께 책 속에서 건져 올린 영롱한 질문과 시원한 수다로 오늘을 표시할 것  
이다. 훗날 보람줄을 들춰서 그 페이지를 펼쳐 놓고, 울고 웃는 시간이 오  
기를 기대하며 오늘을 보람하고 싶다.

가작

## 가문 마음의 빛소리

전주라 대구 수성구 파동

결혼 후 생활은 구체적이 된다. 매달 가스요금 같은 공과금을 챙기고 남  
편과 아이를 먹일 찬거리를 사러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한다.  
결혼이 주는 안정감과 함께 생활은 규칙적으로 흘러가는데 어느 순간 마  
음은 모래를 품은 것처럼 서걱거렸다. 나의 시간은 남편을 위하거나 아이  
를 위한 '우리'라는 집합의 일부 같았다. 된장찌개에 넣을 호박을 썰다가  
도, 잠든 아이의 뺨에 붙은 머리카락을 떼어줄 때도, 불현듯 결혼 전 책장  
을 넘기며 활자 안에 감춰진 세계에 몰입했던 내가 그리웠다.

대학시절의 나는 되고 싶은 무엇이 있었다. '내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빈 강의실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그때는 내가 읽는 책이 인생의 풍부한 결을 만들어 주리라 믿었  
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부터 업무에 치여 일과 관련한 책  
외에는 다른 책을 읽을 겨를이 없었다. 더욱이 결혼 후에는 집안일을 하  
고 아이를 재우고 나면 시계는 자정이 훌쩍 넘는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학교를 졸업한 후 내 시간은 현실의 과업을 겨우겨우 해나가는 데 쓰였  
다. 마음의 풍향도 나보다는 남편으로 혹은 아이에게로 바뀌었다. 분명 매



일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허전했다. 사람들에게 씨실과 날실처럼 촘촘한 일상을 파고드는 공허감에 관해 이야기하면 다들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과정일 뿐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여자가 결혼, 출산과 육아라는 통과의를 겪고 있으니 나 역시 잘 견뎌야 한다는 조언도 해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 혼자만 이런 상실감을 느끼는 것 같아 불안했다.

어느 주말, 남편과 산책을 했다. 벤치에 앉아 발끝의 돌멩이를 바라보며 내 시간 속에 내가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나 자신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 뭔가 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며칠 뒤 남편이 내 이름이 적힌 책 도장과 시집 한 권을 내밀었다. 아이가 잘 때 시 한 편 정도는 틈틈이 읽을 수 있지 않겠냐며, 단어 하나와 문장 한 줄을 오래오래 읽고 마음에 담아 보라고 했다.

돌이켜보면 남편과 나의 인연도 책 한 권으로 맺어졌다. 29살 겨울, 직장상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 처음 만난 남편은 유행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밑이 넓은 바지를 입고 큰 가방을 메고 있었다. 우리는 어색하게 저녁을 먹고 자리를 옮겨 차를 마셨다. 속으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문득 책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를 읽었는데 생각할 점이 많다고 했다. 대학교 때 그 책을 읽었던 나는 남편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했다. 남편과 헤어지던 길, 이 사람과 만나면 결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서로 읽은 책을 빌려주고 읽고 이야기하며 1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했다.

해마다 남편의 서재에는 책꽂이가 늘어갔다. 남편은 마음에도 수련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굽이굽이 돌거나 머무르거나 흐른다. 우리 부부는 결혼 전부터 마음속 물의 유속과 방향을 정하는 것은

책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그 점이 우리를 각자의 삶에서 하나의 생활로 합치게 된 공통분모였다. 오래 잊고 지냈던 우리 부부의 마음속 공유지대를 남편이 시집 한 권과 함께 찰카하고 쳐주었다.

남편이 선물해 준 시집을 집안일을 하며 한 편씩 읽었다. 설거지를 하고 난 후 소파에 앉아 쉬거나 아이가 낮잠을 잘 때 옆에 앉아 시를 읽었다. 내 안의 결핍이 시 한 편으로 설명되고 언어로 집을 지었다. 마음에 드는 구절은 남편의 말대로 오래오래 눈으로 담았다. 두꺼운 소설은 집안일을 하고 육아를 하는 도중 읽는 맥이 끊어지는데 시는 내 생활 중 잠깐의 공백을 이용하여 읽어낼 수 있었다. 어느 순간 설명할 수 없었던 공허감이 점점 메워지고 있었다.

마음이 가장 가라앉았을 때 남편에게 선물 받은 시집은 심보선 시인의 '슬픔이 없는 십오 초'였다. 그 시집의 한 구절 중 '현재는 다만 꽃의 나날 꽃의 나날은/ 꽃이 피고 지는 시간이어서 슬프다'라는 부분이 있었다. 이 문장이 청소기를 돌리며 빨래를 널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내 시간도 결국 피고 지는 순간의 연속임을, 사람도 시간에 따라 닳아져 서글픈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공허감도 필연이며 누구나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현실을 채워간다는 생각에 이 시가 큰 위로가 되었다. 시를 읽으며 내 경험에 시 속의 단어를 대입하고 나 자신이 더 또렷이 이해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부부의 저녁 식사는 책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다. 역사와 동양고전에 해박한 남편은 사서삼경을 다독하며 느낌 점을 내게 이야기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나는 남편의 취향에 맞는 문학작품을 추천해 주곤 했다. 작은 보조 의자에 아이를 앉히고 남편과 도란도란 나누는 책 이야기는 하루의 피로를 떨치고 감겼던 마음의 눈을 열리게 했다. 우리는 심리학자인 융의 책을 함께 읽고 인간을 넘어 인류의 무의

식을 탐구하려 했던 그의 생애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으며 자유로운 삶에 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부부로 인연을 맺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도 각자의 시선은 별개로 존재한다. 남편과 나의 관심사는 다르지만 때로 서로의 관심사 밖에 있는 영역은 은근하게 권하여 빈 곳을 채워주기도 한다. 그리고 가끔 각자의 취향에 따라 책을 읽고 서로에 대해 좀 더 이해하게 되기도 한다. 어느 순간 우리는 색은 다르지만 한 방향으로 가는 구두처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다른 색의 구두를 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는 독서라는 교집합이 있었다.

결혼 전 책을 하나의 인격체처럼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참 좋았다. 남편은 책 내지에 항상 자신의 이름이 적힌 책도장을 찍은 후 깨끗하게 읽고 여러 번 반복해 읽었다. 이제는 내가 남편에게 선물 받은 책도장으로 책 내지에 내 이름을 새기고 책을 통해 내 세계를 구축해 간다. 도장이 찍힌 책을 하나씩 읽어나가다 보면 마음과 머릿속에 하나씩 방이 생겨 흐트러진 일상과 마음의 조각들이 정돈되어 간다. 내지에 찍힌 도장들이 하나씩 늘어갈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고 태도는 점점 유연해졌다.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며 한동안 나 자신은 지워졌다고 생각했다. 한 사람의 아내로 한 아이의 엄마로 그림자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림자에 목소리가 없듯 결혼과 함께 내가 가진 언어도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런 내게 남편은 시와 함께 나의 언어를 살려주었다. 아내이자 엄마로 사는 삶에도 철학이 있고 나의 언어가 있음을 남편과 함께 책을 읽으며 깨달았다.

우리 부부는 함께 책을 읽으며 한 가지 바람이 생겼다. 딸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 것이다. 책은 누군가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삶의 표정을 보여준다. 행간 속에 내밀하게 접힌 인생의 정수를 맛보는 기쁨을 딸도 함께 누렸으면 한다. 그리고 책을 통해 자신의 철학과 자신만의 분명한 언어를 가진 마음의 집이 단단한 어른으로 자라났으면 좋겠다.

살다 보면 달라지지 않는 현재가 서글퍼 마음이 가물 때가 있다. 마음이 품고 있던 생기를 잃어가던 그 시간, 창밖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간절히 그리웠다. 가문 마음에서 멈춘 내 발걸음에 남편은 시집 한 권을 내밀었다. 남편의 시집은 마른 마음에 ‘뚝뚝’ 비를 내려주었다. 책 속에 담긴 인생의 지혜는 부지런히 ‘뚝뚝’ 문을 두드리며 내게 너른 창을 열어주었다. 이제는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라 해도 책과 가족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기에 그 길목에서의 변화가 두렵지 않다. 가물어가는 계절도 책과 함께 깊어지면 어느덧 창밖에 비가 내리고 내 뿌리가 어제보다 더 튼튼해지리라 믿는다.

## 내 가슴속에 꽃이 핀다

정미정 대구 달서구 도원동

언제부터인가 내 가슴 속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학교 담장 너머 장미꽃은 꽃들의 여왕답게 귀한 자태를 뽐어내고 있고, 작은 텃밭 사이 연보라 색의 꽃잎을 감싸며 피어있는 가지 꽃이 눈물겹도록 곱다. 가만히 가지꽃을 들여다보니 꽃도 또한 나를 들여다본다. 그러더니 꽃이 살짝 웃는다. 꽃은 여러 가지 색깔과 향기를 가지고 있다. 꽃이 그런 것들을 가진 이유는 나비와 벌들을 유인하기 위한 존재방식이라고 한다. 꽃은 살아남기 위해서 있는 힘껏 씨앗을 튀우고 꽃을 맺는다. 꽃이 제 생명을 헌사하고 시든 다음에야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 꽃은 그렇듯 멈추지 않고 살아왔다.

꽃이 그러하듯, 나도 이제는 살아있다. 내 가슴속에도 꽃이 피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가슴속에는 꽃이 피어있지 않았다. 그저 무의미한 일상생활의 반복만 있을 뿐이었다. 이제껏 살아온 시간의 의미는 무엇이었으며, 과연 어떤 가치가 있었나 하는 물음만 되닐 뿐, 명쾌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나는 아주 작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그전까지 책을 읽어주시던 엄마가 갑작스레 이사를 하시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얼떨결에 받은 부탁인지라 거절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맡게 되었다. 한동안 발길을 끊었던 도서관으로 내 발걸음은 옮겨졌고, 죽어있었던 나를 차츰 일깨우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읽어주기 위한 책을 고르는 일이, 어쩌면 이렇게도 즐거울 수 있을까? 차츰차츰 내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땅콩 같은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책을 읽어주던 날을 잊을 수 없다. 푹푹푹푹한 눈망울로 책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아이들,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갔던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 시간 이후로, 내 가슴속에 꽃이 피었다. 만약 꽃이 없었다면, 우리는 험난한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꽃은 우리에게 삶의 아름다운 본질과 바탕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꽃을 보면 누구나 입가에 미소를 띠게 되듯이, 책 또한 내게 그랬다.

옛날 성인들이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책 속에 꽃길이 있었다.

요즘 나는 책 속에 나와 있는, 그 꽃길을 걸으며 즐거움에 빠져있다.

“어! 책 읽어 주는 엄마 아니세요?”

“다음번엔 더 더 더 재미있는 책 읽어 주셔야 해요?”

두 갈래머리를 묶은 어여쁜 1학년 여학생의 당부 말을 듣는다.

꽃은 저마다 독특한 자태와 빛깔로 향기로,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준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흔히 들 꽃을 한 아름 안겨주기도 한다. 꽃을 주고나 받을 때, 어떠한 말을 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인 것처럼, 오늘도 나는 꽃길을 걸으며 꽃을 전해 주리라 다짐해 본다.

가작

## 多讀多讀 내 인생

주선미 서울 관악구 청림동

수건을 목에 감고 커튼 봉에 연결해 매달리면 이 지긋지긋한 인생과 작별할 수 있을까. 부모님의 이혼위기, 팔 년 넘게 사랑하고 믿었던 애인의 바람과 배신, 직장에서의 해고, 친구들과의 관계 소원. 숨 막힐 만큼 고립되어 있어 마음을 둘 곳이 없었다. 그때의 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게서 버림받았다고 느꼈다. 몇몇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위로 속엔 그 불행이 자신의 것이 아니며 다행이란 안도가 함께 보여 더욱 비참할 뿐이었다. 어떤 긍정적인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삶을 놓아버리는 것만이 유일하게 살 길이라 생각됐다.

방 안을 둘러보았다. 작은 침대와 장롱, 화장대, 책꽂이가 전부였다. 책꽂이에는 그동안 추천받아 사놓은 책들과 필독서 목록에 있는 고전 몇 권 그저 제목에 이끌려서 사놓고 읽지 않은 책들이 평소처럼 다소곳하게 꽃혀있었다. 그중 한 권을 집어 들었다. 파울로 코엘료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죽기로 결심하다란 문구가 마음을 끌었다. 베로니카는 원하는 모든 걸 가졌어도 마음이 공허하여 죽기로 결심하지만 자살 시도에 실패하고 정신병원에 갇힌다. 어떤 행동도 이상히 여기지 않는 정신병원에서

그녀는 억누르던 감정에 대한 자유를 맛보고 막상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삶에 대한 애착을 느끼며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자신이 원했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베로니카와 만나며 죽음에 대한 생각 대신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어떤 억압이 나를 이리도 짓눌렀을까. 죽음을 생각했던 용기로 다시금 세상에 부딪혀 보는 건 어떨까.

책꽂이에 갇히듯 꽂혀 봐주기만 기다리는 다른 책들도 한 권씩 꺼내 어루만졌다. 책을 읽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단순히 책만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닌 책을 읽음과 동시에 작가와 호흡, 세계에(책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세계이므로) 대한 이해는 나를 긴장시켰기 때문이다. 책은 죽음에 대한 내 생각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끝내는 죽음을 완전히 거둬가는 대신 공감과 희망, 삶의 의미와 마음의 위로, 더불어 배부른 지식을 주었다.

책 속의 등장인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었다. 하루는 목에 감으려 했던 수건을 내동댕이치며 왈각 울음을 뱉어내기도 했다. 나보다 더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불행과 싸워 이기고 견뎌내는 사람들을 보며 약한 마음을 먹었던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때문이었다. 어떤 책 속의 주인공은 힘든 상황을 헤쳐 나가려 애쓰는 모습이 책에 들어가 다독거리 주고 싶은 마음이 일만큼 나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었다. 아, 나만 힘들고 외로운 게 아니구나. 어느 나라, 어느 마을을 가도 사람 사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저마다의 근심과 걱정, 행복과 불행을 고르게 안고 살았다. 심신이 모두 바닥까지 내쳐진 상황에서 공감할 대상이 있다는 것만큼 위안이 되는 건 없었다. 누구도 내 아픔을 대신할 수 없었고 진심 어린 위로를 줄 수 없었지만, 책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주었다. 책에 빠져 있는 동안은 쓸모없는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방 안에 틀어박혀 책을 읽는데 온 시간을 쏟아부었다. 몰두할 대상이 있으니 지루한지도

몰랐다. 한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자 부모님은 내가 은둔형 외톨이라도 된 게 아닌가 걱정하셨다. 누구보다 넓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고 해도 미쳤냐는 답만 돌아왔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어서 취업해 돈도 벌어야 하고 젊은 나이에 사람들과 만나 교류도 있어야 하는데 온종일 방 안에 틀어박힌 과년한 딸이 여간 걱정된 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책들의 도움에 힘입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책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 출판사에 취직도 했고 배신의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 정말로 우연히 서점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긴 나는 키가 나와 비슷하고 팔은 나보다 짧은 한 남자가 높은 책장에서 책을 빼려고 깽깽대는 걸 도와주었다. 남잔 창피해 하면서도 고마워 어쩔 줄 몰라 했고 난 고갯짓으로 괜찮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그날이 바로 학교 선배가 주선한 나의 소개팅 날이었고 그 자리에 나온 남자가 서점에서의 그 남자이자 지금의 남편이다. 첫 만남에서 우린 서점과 책이라는 공통화두로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고 책을 사랑하는 남자라면 넓은 시야를 가졌을 것 같아 호감이 갔다. 그는 교과서적 지식만이 아닌 多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진짜 지식, 현명함과 지혜를 고루 지니고 있었다. 가장 본받고 싶은 점은 편협한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 책을 가까이한다 자부하면서도 나는 늘 한쪽으로 치우쳐진 심지어 내 쪽으로 몹시도 기울어진 야박한 생각과 시선으로 세상을 읽곤 했다.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마음을 키웠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편견을 키웠다. 그러면서도 세상 탓, 남 탓, 네 탓을 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더 많은 책을 읽은 사람은 역시 달랐다. 그는 누구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객관적인 자세로 해결책을 강구했다. 틀리다로 치부하기 쉬운 상황을 틀린 게 아닌 다른 것뿐이라고 만드는 생



같은 사고를 유연하게 해주어 그는 사람들과 마찰이 없었고 어디를 가도 사랑을 받았다. 남편 역시 모든 힘은 독서에 있다고 믿었다. 책을 많이 읽은 결과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함께 읽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고 했다. 책 속엔 주인공의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닌 상대방과 주변 인물들 모두의 입장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결혼해 아이를 낳고 육아에 몰두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주변 엄마들은 일을 그만두면서 정체성을 잃은 것 같다고도 했고 우울증이 찾아왔다고도 했다. 나는 그들에게 육아지침서와 함께 상황에 맞는 책을 선물했다. 책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읽을 수 있으니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남편은 내게 독서 전도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독서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어서일까. 책을 선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일이 비밀비재해졌다. 책 부자인 내게 사람들은 종종 책을 빌리러 오는데 그들에게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다. “빌려주는 조건이 하나 있다고, 이 책을 읽은 후의 당신의 시야가 조금쯤은 자라 있어야 한다고 그저 하나만 지켜주면 대여 기간은 자유라고.” 한 권을 읽더라도 진중히 제대로 읽는다면 흐지부지 열권을 읽는 것보다 월등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나는 산후, 육아 우울증이 찾아올 틈이 없었다. 아이가 자거나 가사 일이 한가한 시간마다 세계 각국을 여행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느라 하루가 짧고 일 년이 우수처럼 지나갔을 뿐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시공을 초월해보는 것 또한 책이 주는 짜릿한 자유 중 하나였다. 직접적인 경험만이 배움과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간접 경험이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마음이 부자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winner 아니겠는가. 인간은 각종 조건들이 양호할 때에만 정신이 이상해지는 사

치를 부린다고, 행복해질 가능성이 클수록 불행해지는 것 같다고 파올로 코엘료는 말했다. 처지는 기분이 싫다면 우울감이나 심심함이 찾아올 틈을 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김광희 『미친 발상법』에서 ‘책은 문명의 전달자이다. 책 없이는 역사는 침묵하고 문학은 병어리며 과학은 절름발이이고 사상과 사색은 정체된다. 책이 없었다면 문명의 발달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책은 변화의 동력이고 세상을 내다보는 창문이며 시간이라는 바다에 세워진 등대이다. 책은 동반자이고 스승이고 마술사이며 마음의 보물을 관리하는 은행가이다. 인류를 인쇄한 것, 그것이 바로 책이다.’ 라고 정의했다. 이렇듯 책은 어느 한 분야 손 안 닿은 곳이 없고 우리의 삶 그 자체인 것이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저명인사들의 대부분도 자신을 성장시킨 것은 책이라 했고 독서를 통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어 세상을 바꾼 과학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어떤 분야를 가든 성공을 꿈꾼다면 사력을 다해 책과 친해져야 한다. 독서의 이로움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고 百害無益이라는 말을 바꿔 無害百益이 바로 책이라 일러주고 싶다.

책은 죽었던 나의 삶을 살린 생명의 은인이고 외로움 속에 친구가 되어준 인생의 동반자이며 고민들을 다독여준 최고의 카운슬러이자 삶을 설계해준 스승이다. 다시 선물 받은 인생에서 많은 걸 얻고 깨달았다. 모든 게 책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임을 알기에 이런 소중함을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다. 책을 통해 받았던 사랑을 언젠가 세상에 베풀고 싶다는 꿈도 생겨났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읽어야 함을 안다. 책을 통해 다시 태어난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외친다.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다독다독 거려준 多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임을.

## 아이와 나를 일으킨 독서의 힘

최이화 대구 북구 동천로

“내일 ○○도서관에 유명한 사람 강의를 있대. 같이 갈래?”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동네 도서관에서 유명 강사를 초빙해왔다고 친구가 함께 가보자고 권유한다. 강사는 수많은 강연을 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책도 썼다는데, 나는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었다.

‘도대체 누군데 유명하다지?’ 궁금한 마음으로 4살, 2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후 강연장을 찾았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마치 목사님 같은 아저씨가 나와서 ‘푸름이 아빠’라고 인사하셨다.

그저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흔한 ‘사랑’이 아닌 ‘배려 깊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에게 자연을 가까이하며 책을 읽어주라’는 말씀에 가슴이 요동쳤다. 강의 중간에 나는 박장대소하기도 하고 뒤통수를 망치로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기도 했다. 그렇게 내게 ‘생명의 물’과도 같던 강의가 끝이 났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첫아이가 세 돌이 될 때까지 나는 아이한테 진심으

로 그림책 한 권 정성스럽게 읽어준 적 없는 엄마였다. 물론 나 자신도 책을 전혀 가까이하지 않았고 애를 업고서라도 종일 텔레비전을 끌어안고 있을 정도였다. 드라마란 드라마는 다 꺾고 있으면서 태교 때부터 아이에게 정성을 들인다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당시 나는 내 감정만 앞세우며 어린애들한테 짜증을 내고 소리 지르다 결국 방치해 버리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그런 가여운 엄마였다.

불안한 내 심리상태에서 부부관계도 좋을 리 만무했다. 남편은 내내 바깥으로 돌고 서로의 불만은 자주 싸움으로 이어져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다. 무엇보다 나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지, 아무 의식도 못한 채 무의미한 시간만 흘러보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한 4살 딸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었다.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변을 아무 데서나 보고, 말도 늦고 감정조절 능력이 부족해 보였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이를 통해 직감하고 내게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던 차였다.

이 중요한 시기에 내 인생에 획을 긋는 강의를 듣게 된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고 했는가? 나는 내가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갈망하고 있었는데 단 두 시간의 강의로 거짓말같이 그것이 주어졌다.

‘엄마’라면 자신의 책을 읽어나가고 또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며 아이와 함께 꾸준히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그날 온몸과 마음으로 깨달았다. 그 순간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기도한 후 ‘나는 아이에게 책 읽어주다 목이 쉬어 생을 마감하리라’ 굳은 다짐을 했다.

그러나 책 읽어주기는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았다. 글자가 한두 줄 나와

있는 그림책은 열정만 넘쳐났던 내게 너무도 지루하고 어색해서 읽어주려니 재미가 없었다. 그렇다 보니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가 막막했고 결국엔 책 대여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일주일에 한 번 집에서 아이에게 책 읽어주는 선생님을 자세히 관찰하며 흉내 내기 시작했다. 몇 달을 따라 하며 노력하자 나도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가 조금씩 편안해졌다.

그렇게 아이가 원할 때마다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나의 관계는 놀랍도록 개선되었다. 큰 애가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고 언어가 빠르게 발달하는 게 눈에 보였다. 그러다보니 의사소통도 훨씬 쉬워졌다.

그때부터 나의 책 사랑은 시작된 것 같다. 우리 동네와 이웃 동네까지 도서관 네 곳을 누비며 책을 빌려보기 시작했고 직접 구매도 했다. 그리고 내가 읽을 육아서나 심리서를 틈나는 대로 찾아보며 천천히 하나씩이라도 반드시 실천하려고 애를 썼다. 또 나와 같은 책에 대한 교육관을 가진 엄마들과 독서모임을 하며 경험과 생각을 나누었다. 그곳에서 울고 웃으며 참 많은 것을 공감하고 배려 받으며 사랑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아이들에겐 책이 장난감이 되어 있었다. 책으로 집을 만들고 책 탑을 쌓기도 하며 거실에 발 디딜 틈 없이 책을 퍼트리고 놀았다. 책을 읽어 달라고 하면 내가 읽어주고, 다시 다른 놀이를 하면서 놀다가 가끔 혼자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놀고 하기를 2년 정도가 지났다. 어느덧 큰아이가 6살이 되었고 드디어 혼자 몰입하여 ‘읽기 독립’이 가능해졌다.

8살이 된 지금의 딸아이는 언제 어디서든 책을 끼고 살며 몇 시간도 혼자 책을 읽으며 행복해하고 있다. 올해 6살인 둘째 아이도 책을 읽는 엄마와 누나의 모습을 곁에서 보며 자연스럽게 놀이처럼 책을 가까이하는 중이다.

독서육아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나의 독서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에 반하여 가까운 사람들, 특히나 남편과 많은 다툼이 있었다.

은종일 힘들게 일하다 돌아온 남편에게 안식처가 되어야 할 집이 발 디딜 틈 없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책 덕분에 엉망이었고, 월급쟁이 남편의 박봉 월급으로 빛을 내면서까지 책을 사는 내 모습이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어떤 달은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면서도 아이의 책을 샀으니 남편은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내 의지는 확고했다. 책을 매개로 한 나의 성장을 바탕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책을 통한 성장이야말로 그 어떤 방법보다 손쉽다고 판단했다. 독서육아는 내가 책만 붙잡고 읽기 시작한다면 저렴한 비용과 시간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 받기 가장 좋은 육아법인 것 같았다. 때로는 나도 지쳐갔고, ‘왜 힘들게 이려고 사냐’라며 후회를 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다시 독서육아에 관한 책을 읽고 힘을 내었다.

“아이 책, 어른 책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엄마가 내적으로 안정되면, 엄마를 신으로 느끼며 자라는 아이들은 태어난 그대로의 고유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자랄 수가 있다”

4년 전 우연히 듣게 된 푸름이 아빠의 강연내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진리라고 느끼는 요즘이다.

작년부터 나는 일 년에 50권 정도의 책을 읽으며 나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남편까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긍정적인 에너지와 사랑은 전해지는 게 분명하다. 내 감정이 흔들릴 때 남

편과 아이들이 더 큰 사랑으로 내 손을 잡아주니 말이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독서의 힘으로 지금 우리 가족은 서로가 존중하고 격려하며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정의 초석을 마련했다. 너무나 감사하다.

‘배려 깊은 사랑’을 더욱 온전히 실천하기를 갈망하며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책을 읽는다.

|가작

##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허선이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남편의 유학길에 ‘내조자’로서 독일로 함께 향했다. 떠나기 전에 어학공부 미리 하지 않으면 가서 본인이 고생한다는 남편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다. 내 공부를 위해 가는 유학이 아니었기에 책임감도, 부담감도 없었다. 이런 무책임한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슈퍼마켓에 가니 붙여 놓은 글은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라던 우스갯소리가 더는 웃을 수 없는 말이 되었고, 사고 싶은 물건을 독일말로 단어라도 알아야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볼 수가 있었다. 못 찾으면 못 사는 것이었다.

미리 어학을 해 두지 않으면 어찌 되는지 알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불편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많이 후회했다.

남편은 도서관 문 열 때 나가서 도서관 문 닫을 때 나왔다. 열심히 공부하러 독일로 간 사람이니 그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사람 따라서 간다는 상황이 좀 달랐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말도 안 통하는 나는 늘 혼자였다.

상황이 사람을 만들었다. 살기 위해 어학원도 다니고, 나이 어린 외국인 친구들 불러서 한국 음식 해 먹여 가며 독일어 배우려고 애쓰고,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면서 직원들에게 말 붙이며 독일어 연습을 했다. 열심히 노

력한 덕분에 대학 입학 어학시험도 통과하여 독일대학에 입학도 하고, 낯선 생활도 점차 안정되어 갔다.

외국생활의 낯가림이 누그러들 때쯤 내가 엄마가 될 준비를 해야 했다. 언니, 이모로서 아기들을 만나 안아 주고 놀아 준 기억이 전부인 내가, 어디 물어볼 만한 지인도 없는 낯선 땅에서 초보 엄마가 된 것이다. 나는 매달 한 번씩 산부인과를 가야 하는 숙제를 부여받았다. 병원에서 쓰는 용어는 생활용어와는 달랐다. 잘못 알아들어서 중요한 사항을 놓칠까 봐 걱정이 되었고, 내 몸의 변화를 잘 전달하지 못해서 아기에게 문제가 생길까 봐 겁이 났다. 산부인과에 비치되어 있는 갖가지 홍보용 책자들을 가지고 와서 임신 관련 단어나 표현을 사전을 찾아가며 외우고, 병원에 가기 전에는 할 말을 미리 적어서 연습을 해 본 후, 의사 선생님을 만났다. 혼자 어떻게 병원을 갈까 걱정했지만 씩씩하게 잘 다녔고 그렇게 소통의 숙제를 해 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같은 해에 둘째를 임신한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친구가 나에게 던진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대구 살다가 대전에 이사 와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배가 ‘우리하게’ 아프다고 했더니 의사가 못 알아들더라. 크지도 않은 우리나라에서 한국말로 해도 이래 안 통하는데, 너는 독일 병원에는 우째 다니노?”

뱃속에 아기는 공부 욕심 없는 나를 이렇게 ‘생존 어학’으로 단련시키고 있었다.

6개월쯤 접어드니 아기가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신기한 것은, 도서관만 가면 아기가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었다. 집에서 태동이 잘 느껴지지 않는 날은 일부러 도서관을 가기도 했다. 내가 신문을 보거나 책을 읽으면 아기가 발길질을 팡팡해 대었다. 남편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엄마 공부시킨다고 덩달아 신기해했다.

이 범상치 않은 상황은 분명 천재가 태어날 것을 예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태어날 아기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만 갔다.

예정일 보다 열흘 정도 일찍 아기는 우리에게 왔고, 무척이나 단조롭고 딱딱한 유학 생활에서 도서관은 늘 우리의 놀이터가 되었다. 독일의 도서관에는 보드게임이 많이 비치되어 있어서 책 보다가 지겨우면 게임도 할 수가 있었다.

아이는 수많은 그림동화 중에서 좋아하는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을 좋아했다. 잘 때도 똑같은 책만 읽어 달라고 했다.

어느 날은 아이가 나에게 “엄마, 내가 이야기해 줄게” 하더니, 암전히 듣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줄줄 내게 들려주는 감격도 주었다.

아이가 5살이 된 여름날,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6년 가까이 떠나온 한국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나는 한참을 낯설어했다. 아이를 키우는 방법도 너무나 달랐고, 넘쳐나는 사교육 상황을 파악하고 나의 교육관을 정립하는데 많은 방황과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아이가 학교에 가야 하는 시점이 왔다. 1월생인 아이는 7세 또는 8세 ‘입학의 선택’을 해야 했다. 자기 이름과 한글 떠듬떠듬 겨우 소릿자로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으로 7세 입학은 결정했다.

무모한 결정이었음은 모든 결정을 되돌릴 수 없었을 때 깨달았다. 또래의 아이들은 한글은 물론 수학, 그림, 음악 기타 등등 여러 분야에서 초등 1년 입문을 준비하고 입학할 하였다. 학교 교육을 따라갈 만한 준비가 너무나 소홀했던 탓에 초등 1년 적응기가 남들보다 몇 배 더 힘이 들었다.

받아쓰기부터 문제가 되었고, 글씨를 써 본 적이 없으니 읽고 쓰는 속도가 느리고 선생님의 지적이 이어지고 혼나는 횟수도 늘어갔다. 해맑던 아



이가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기만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가장 문제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읽고 이해하는 것부터 해결되어야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았다.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다. 매일 도서관에 출근했다. 처음에는 내가 가서 빌려오면 아이가 읽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골라오는 순서를 밟았다. 한 페이지에 한 줄씩 있는 유치원생 수준의 그림동화책부터 스스로 읽기를 시작했다. 입학 전까지 글을 몰랐으니 책을 늘 읽어 주었다.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어 주니 자연스럽게 외워버려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책을 읽고 있듯이 페이지도 딱딱 맞춰서 능청스럽게 넘겨 가며 보는 그 모습이 재미있고 귀여웠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한글 습득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현실과 부딪혔고, 이 난국을 헤쳐 나갈 만한 돌파구는 수준 낮은 동화책으로 성취감을 맛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다행히 아이가 책읽기를 좋아해서 단시간에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더불어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었다. 학교 도서관과 동네 여러 도서관을 다니면서 책 읽는 재미에 빠졌다. 도서관의 책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서 도서 대여를 할 때마다 그 다양함에 감탄과 감사를 하였고, 끊임없이 들어오는 신간 서적을 보면 빨리 읽고 싶은 욕구도 자극되었다.

한글 늦둥이가 6년 내내 독서상을 받을 정도로 성실한 독서 습관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양질의 도서관 도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도서를 사서 읽어야만 한다면 경제적인 부담 앞에 발목 잡혀서 이만큼은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중학교에 가니 지필고사의 논술형, 서술형 문제 비중이 40~50%로 높아졌다. 독서 습관이 잡혀서 그런지 논술형 문제에서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또한 독서의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 책읽기를 즐기면 글쓰기를 할

때도 표현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책읽기는 먼저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에게 평소에 무엇이 제일 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침대에 벌렁 누워서 맛있는 과자 먹으면서 책 읽는 것이라고 말한다. 북카페 가는 것도 즐긴다. 도서관에는 먹을 것을 못 들고 가지만 북카페는 책도 읽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으니 정말 좋다. 만화책을 읽기 시작하면 줄 책을 읽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나만의 우려로 끝이 났다. 만화책은 만화책대로 줄 책은 줄 책대로 매력이 있다고 한다. 고전을 읽으라고 강요해 본 적은 없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인 딸아이가 이제는 고전을 읽어 봐야겠다고 가문에 단비 같은 말을 스스로 했다.

모든 것의 출발이 늦었었다. 몰라서도 늦었고, 늦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늦기도 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리 늦은 것도 아니었고, 출발이 빠르고 늦음은 그리 중요치 않은 것 같다.

지금도 도서관에는 내가 눈길 한 번도 주지 못한 신간들이 쌓여만 가고 있을 테고, 이제는 영어, 수학에 밀려 독서할 시간이 턱없이 모자란 딸에게 도서관 가자고 조르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그 무엇도 내가 계획된 대로 딱딱 맞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예기치 않은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을 것이기에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간다.

내가 책만 읽으면 뱃속에서 격한 태동을 하던 아이는 대단한 천재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고, 초등 1년 때 받아쓰기 50점을 맞아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글도 제대로 모른다고 놀림 받던 아이는 대단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출발이 미약하나 끝이 장대한 6년 독서왕이었다.

우리 집은 이렇게 도서관과의 인연을 이어 나갈 것이다.

이후 5년쯤 후에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 나비효과

Piaoxiangyu 경기 김포시 양촌면

책장을 넘기다 좋은 대목 하나 발견하고 빙그레 웃는다. 이내 수첩에 메모를 해놓는다.

‘한 줄의 여운’ 영화 같은 나비효과를 꿈꾸듯 메모한 것을 스마트폰을 집어 들고 내가 너무나 아끼는 벗들에게 보내기 한다.

‘실 새 없이 돌아오는 답장들’ 커피 향보다 더 진한 한 줄의 여운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나 보다. 이 한 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다 보면 어느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고 흥미하게 되지 않을까? 이쯤 되니 생기 가득한 여름날 녹색 풍경처럼 나의 마음에도 생기가 가득해진다. 부자가 된 듯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

‘어쩌면 나보다 더 이제는 글을 잘 쓰네?’

‘한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다.’

답장 중에 꼭 빠지지 않는 말.....

그래. 나는 중국 사람이다.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 우리 집은 다문화가정이다.

나는 중국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했는데 한국을 찾았다가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고, 언제나 시간만 있으면 공부하는 남편의 모습이 매우 좋아서 만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책 좋아하는 남편과 책에는 모든 길이 있다고 믿는 내가 만나 우리는 유독 책으로 많은 일을 함께해나갔다. 어릴 적 영화를 보면 침대에서 스탠드 켜놓고 책을 보며 잠자리 드는 부부들을 보고 참 근사하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내가 그 근사한 사람은 됐다. 어떤 책이든 읽을 수 있고, 이제는 좋은 말은 꼭 간직하고 싶으니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

사람이 한번 묻고 두 번 물으면 귀찮기도 할 텐데..... 자상한 이 남자를 만나 모르는 어휘를 수도 없이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데도 잘도 가르쳐줬다. 연애시절 때나 쓰였던 콩깍지 안경이 벗겨졌을 만도 한데 지금도 물어보면 곧잘 대답해주는 남편이 정말 고맙다. 왜 지적인 사람에게서 나는 그런 ‘매력 냄새’ 있지 않은가?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냄새가 이제는 나도 조금은 물들어 있나 보다. 차분한 내 모습이 지적이다 그런 소릴 들으니..... 어느샌가 우린 참 많이 닮았다.

처음 우리가 소개받게 되었을 때 남편은 중국어에 관심이 많던 때라 내게 더 관심이 컸다고 했다. 조금은 서운할 수도 있는 그 말..... 그런데 그런 배움의 마음이 우리 사랑을 더 돈독하게 한 것을 지금에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실 만도 한데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한 중국어로 이제는 제법 어려운 책도 읽을 줄 알고 의문을 가지는 남편의 열정이 참 멋있다.

‘취미생활’ 여름이 절정으로 향해 가는 요즘, 우리에게는 제법 멋진 취미가 생겼다. 우리 사는 김포의 아라뱃길에 간단한 그늘막이랑 돛자리 하나 들고 야외로 나가는 일이다. 적당히 쾌찬은 장소에 터를 잡고, 여름이라서 더 시원하게 불어오는 한강 바람에 몸 맡기고 우리가 가져간 책을 읽는다.

고구마에 김치 같은 사이랄까? 파란 하늘에 페이지 속 글자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궁합이다. 힐링이란 것 우리에게는 이게 정말 말 그대로의 힐링같다. 많이 가지는 게 최고인 줄 알던 때가 있었다. 중국에서 치과를 하며 화려하게 살던 시절 늘 그랬다. 그러나 언제나 찾아오는 텅 빈 듯한 쓸쓸함, 고독함..... 돈을 쓰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만 나아지는 것 같지 그 쓸쓸함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텅 빈 바람이었던 것 같다. 책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삶의 즐거움, 풍요로움, 평온함..... 내게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워준 것이 이 독서라는 비타민이 아닌가 싶다.

어릴 적 피아노를 열심히 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멜로디 하나 두 개가 나올 때가 있다. 바로 작곡을 하게 되는 것인데, 나도 이곳에서 남편 따라 독서를 계속하며 작은 꿈 하나를 가지게 되었다.

‘글을 써보자’

내가 읽었던 소설이 영화화된 경우를 많이 접하며, 남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글을 써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비록 어휘가 내 생각만큼 만족스럽지 못하고,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는 경우가 있지만 내 주위엔 모르는 표현을 가르쳐줄 곳은 참 많으니까.

중국에 살며 탈북해서 살아가는 분들이나 북한에 친척을 둔 지인들을 보면서 느낀 애잔함 같은 것이 참 많아서 그와 관련된 소설을 조금씩 써

보려고 한다. 내가 가장 관심 있고 쓰고 싶은 분야를 글로 쓴다는 건 정말 흥미로운 일이지 않을까? 창작인의 고통이 참으로 크다고 하는데 크지 않은 욕심으로 정말 즐기며 글을 쓰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고통도 참 행복한 고통은 아닐까 싶다.

다행스럽게 남편도 관심이 많아 요즘은 우리 부부가 그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 있다. 한 번씩 우리가 만들어갈 이 책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슴이 설레어 오기도 한다. 과연 앞으로 어떤 미래가 우릴 기다리고 있을까? 벌써부터 미소가 지어진다.

지금껏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어릴 적 책의 한 대목이 있다.

‘못할 것 같은 일도 시작해 놓으면 이루어진다.’

나는 힘들 때마다 이 문구가 생각이 나서 인내하고 노력했던 거 같다. 결국, 그 한 줄이 지금까지의 나를 만들어 놓은 나비효과다. 앞으로도 나는 많은 책을 읽을 것이고, 좋은 대목이 있으면 항상 벗들과 나눌 생각이 다. 내가 그랬듯 오늘 내가 벗들에게 보내는 이 책의 이 한 줄이 사람들의 나비효과가 돼주진 않을까? 책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으니까!

책을 읽다 말고 좋은 글을 발견한 내가 또 웃는다. 행복을 가득 담은 나비가 날갯짓 한다

## 책 속에는 내가 보지 못하는 '나'가

우리는 눈을 돌이나 가졌음에도 정작 자기 자신은 볼 수 없다. '나' 속의 나를 포함한 타자를 통해서만이 '나'를 만날 수 있다. 쉽게 정확히 나를 읽을 수 있으되, 진정한 나를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다. 다행히도 내가 보지 못하는 '나'가 수많은 책 속에 들어 있다. 지식의 확장을 위해서도, 인격과 자아의 완성을 위해서도 책읽기는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오늘날 텔레비전과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미디어의 편의성과 오락성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른 안락과 편리,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미디어 환경 때문에 우리 이웃과의 사이에는 무관심의 벽이 점점 높게 쌓여 가고 있다. 때로는 그 벽이 나의 안락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장벽이 된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길들여지면서 책읽기는 이제 우리 생활의 중요 덕목 중에서 한참이나 밀려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편리한 디지털미디어가 범람할수록 책의 중요성은 더 크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영남일보

가 공동 주최하는 달서 책사랑 전국 주부수필 공모전은 이런 시대적 소명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회를 거듭하면서 공모 열기가 높아지고, 작품의 수준 또한 꾸준히 높아진다는 중평이고 보면 주최 측에게는 큰 보람이 될 것이다.

예심을 거쳐 60편의 작품이 선자들의 손으로 넘어왔다.

공모전 취지에 충실한 작품을 뽑느냐,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을 뽑느냐를 두고 선자들은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단 양자를 다 아우르는 작품에 방점을 찍기로 하였다. 독서동아리활동, 도서관 자원봉사 체험, 가정 독서활동 등 사례중심으로 독서와 관련한 일에 대한 의미화와 독서활동을 통한 자기 발견의 주제를 제대로 형상화한 글을 눈여겨보았다.

우선 전국 주부를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이 공모전의 취지는 독서를 통한 삶의 재발견과 행복한 가정 꾸리기일 것이다. 아줌마로 불리어지는 주부는 가정과 학교, 사회의 교량이다. 이들의 건강하고 역동적인 생각이나 활동이 곧 나라 전체의 한 단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학교 도서관과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녀와 가족들의 독서활동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과 도서관 내 독서동아리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장래는 매우 밝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책을 사랑하고 읽어온 분들인지라 읽기의 내공이 쓰기에서 그대로 드러난 작품들이 많았다. 이은정 님의 '동상이몽 : 빛과 빛' 이은미 님의 '개미와의 동거' 조미정 님의 '받침두리'등 많은 작품들이 어금지금 한 수준이었음을 밝힌다.

이은정 님의 「동상이몽 : 빛과 빛」을 대상 작품으로 뽑는다.

'누가 남았을 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교육적으로 두 딸에게 더 도움

이 될 것인가.’ ‘술자리에서 안주가 사망보험금’일 만큼 삶의 바닥에서 허우적일 때 ‘독서 마라톤 대회’와 조우하게 된 필자의 상황묘사가 뛰어나다. ‘가족 수대로 네 장의 도서관 대출카드, 전국 어디서나 사용가능, 무담보 단박대출’ 등 의미의 전달이 명징하도록 비교와 대조를 능숙하게 구사한 이은정 님의 작품을 대상으로 뽑는 데 심사위원들은 의견을 모았다.

이은미 님의 「개미와의 동거」를 금상 작품으로 뽑는다.

일상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곤충 중 하나가 개미이다. ‘경험에서 책으로, 책에서 다시 경험으로, 그리고 다시 책으로 톱니바퀴처럼 이어지는’ 체계적 독서활동의 사례를 적은 글이다. 호기심을 넘어서, 하나의 주제를 향하여 천착하는 모습이 좋았다. 아들의 개미사랑을 위해 가족이 힘을 모으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이 행간에 배어 있다.

조미정 님의 「반침두리」를 금상 작품으로 뽑는다.

우연히 시작하게 된 독서회 활동이 단순히 읽은 책에 대한 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소중한 장이 되었다. 책이 밥이 되지 않는지만 책읽기는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 의사의 처방보다 더 영험한 치료방법이 된다. 북카페를 열겠다는 꿈이 생겼다. 독서활동을, 써적대는 인생에 균형을 잡아주고 무게를 떠받드는 반침두리로 형상화한 점이 돋보였다.

수상자들에게는 축하를, 아쉽게 낙선한 분들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독서활동을 통하여 온 가정과 나라가 유복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한다.

- 심사위원 일동 -

심사위원 : 장호병(심사위원장), 신재기, 김수영

|관련기사|

영남일보

2015년 8월 5일 (수)  
24면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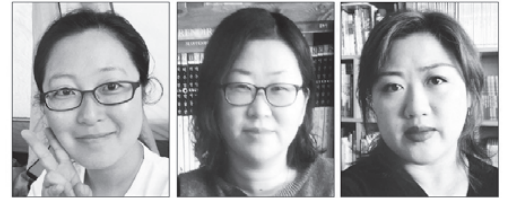
## 디지털미디어 범람 속 독서활동 통한 ‘자기발전’ 큰 울림

13일 영남일보서 시상식 수상작 수필집으로 제작

영남일보와 달서구청이 주최한 ‘제6회 달서책사랑 전국주부수필공모전’에서 이은정씨의 ‘동상이몽:빛과 빛’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상에는 이은미씨의 ‘개미와의 동거’와 조미정씨의 ‘반침두리’가 공동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부들에게 독서운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가정에서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219편의 작품이 응모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응모자들은 대구는 물론 서울과 부산, 광주와 제주 등에서 원고를 보냈으며 멀리 해외에서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다.

올해 출품작은 책과 독서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내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독서동아리활동, 도서관 자원봉사 체험, 가정 독서활동 등의 사례를 들어 독서와 관련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독서활동을 통해 자



대상 이은정씨

금상 이은미씨

금상 조미정씨

기를 발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 많았다.

장호병 심사위원장은 “디지털 미디어가 범람할수록 책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올해 참가자 다수가 오랫동안 책을 가까이해 두고 꾸준히 읽은 듯했다. 그래서 읽기의 내공이 그대로 드러난 작품이 많았다”고 평했다.

시상식은 오는 13일 오후 2시 대구시 동구 신천동 영남일보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수상작은 달서구 홈페이지와 달서 소식지에 게재된다. 이후 수필

집으로 제작돼 도서관에 비치된다.

김은경기자 enigm@yeonam.com

△김상자 명단

△대상-이은정 △금상-이은미 조미정 △은상-김미옥 최현정 △동상-권선희 손서희 신현량 △가작-김용선 김은형 김지선 김현숙 박영화 박지수 박해자 변선희 부지윤 신현 신현주 안재의 오경희 우순옥 우순수 이경희 이예리 이인정 이정미 이정화(안동) 이정화(경남 창녕) 전주라 정미정 주선미 최이화 허선이 piaoxiangyu

대상 이은정씨

### 책 읽고 달라진 삶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깊은 고민

공교롭게도 시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이별에 대해 두 딸과 대화를 나누고 시어머니께 드릴 편지를 적다가 그 전화를 받았습시다. 답답하게 전화를 받는 내게 담당자분은 미적지근한 반응에 얼떨떨해 하셨지만, 솔직히 그게 도무지 진짜로 믿기지 않았습시다. 전화를 끊고 얼마나 소리를 질

렀는지, 그 후로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한참을 평평 운 것을 아신다면 덜 서운하십니까.

태어나 처음 써보는 수필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지 않게 도서관을 다니고, 책을 읽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달라진 삶을 어떻게 이야기해

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제 주가 없어 그냥 썼습시다. 답답했던 마음, 감사한 마음을 모조리 담아서 집어넣었습니다. 제대로 반죽도 못하고, 제대로 굽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선이 된 이유는 오직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 힘내서 열심히 살라고 시외할머니께 주신 선물인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 책 주부들의 아름다운 노래 사랑이야기

제6회 달서 책사랑 전국주부수필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

발행일 | 2015년 8월 13일

주 최 | 대구광역시달서구청, 영남일보

주 관 | 영남일보

---